

ISSN 2713-9638

經 學

3

2022. 6.

韓國經學學會

經學 3

2022. 6.

〈연구논문〉

- 放隱 成樂熏의 한학과 한국 당쟁사 서술 이영호 / 1
- 정조의 경학 방법에 대한 고찰
—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의 의미 규명을 중심으로 .. 이시연 / 43
- 『논어집해』 양설병존 양상 연구 최시정 / 83
- 『說文解字』 부속자에 의한 부수의 의미 확정
— 走部和 辵部の 비교를 중심으로 신원철 / 137

〈학회 참관 보고〉

- 『시경』 연구 교류의 場 : 中國詩經學會 학술 동정 김수경 / 155

〈서평〉

- H. G. 크릴 저, 이성규 역, 『공자, 인간과 신화』 함영대 / 169

〈부록〉

- 한국경학학회 논문투고 규정 / 177
-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184
-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 189
- 經學 論文 審査書 / 199

한국경제학회 임원	/ 200
회원가입안내	/ 201
원고 모집 안내	/ 202

放隱 成樂熏의 한학과 한국 당쟁사 서술

이영호 *

1. 방은의 생애와 저술
2. 방은의 한학과 사승
3. 『한국당쟁사』의 형식적 특징
4. 『한국당쟁사』의 내용적 특징
5. 『한국당쟁사』의 당쟁관

【부록】 「華嚴宗主映湖堂大宗師淨屠碑銘并序」

■ 국문요약

한국의 근대와 전근대의 접점에서, 전통 한학자의 일부는 학문의 제도권으로 들어와 한학을 근대적 학문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중, 대표적 한학자가 바로 성낙훈이다.

성낙훈은 유교와 불교 전적의 번역과 한학 교육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유불 양쪽에서 많은 번역서를 내기도 하였지만,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거나 사적으로 한문강습을 통하여 많은 한국학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한편 학문의 영역에서도 한국 당쟁 서술에서 폭넓은 전거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사관을 보여주었다. 기왕의 당쟁서들이 당파적 견해에 치중하여 시비를 가리는 데 비하여, 성낙훈은 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군주에게로 그 책임의 소재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후일 그의 유학 관련 저술을 통해 이 부분이 좀 더 보완

* 성균관대학교 교수 / E-mail: lyh6896@skku.edu

이 된다면, 우리는 한국학의 또 다른 귀중한 자원을 발굴하는 셈이 될 것이다.

주제어 : 한학,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당쟁사, 한국학

1. 방은의 생애와 저술

한국의 근대와 전근대의 접점에서, 학문의 경우 보존과 변환이 동시에 일어났다. 한자와 한글이 착종하면서 한글로 이동하는 이 접점의 시기에,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인들이 그 보존과 변환의 중심에서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세상과 담을 쌓고 한학으로 몰입하기도 하였지만, 또 일부는 학문의 제도권으로 들어와 한학을 근대적 학문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동일한 한학적 기반을 가졌지만, 전자는 보존을 후자는 변환을 선택한 셈이다. 후자의 학자들 중 대표적 경우로 정인보, 김창숙, 임창순, 이가원, 이우성, 성낙훈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그 학문과 역할에 비해 비교적 조명이 덜 된 이가, 바로 성낙훈이다.

成樂熏은 1911년 1월1일,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부봉리 삼밭 마을에서 부친 成晩永과 모친 載寧 李氏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본관 昌寧이고, 호적명은 庚祚이며, 자는 子沐, 호는 放隱이다.

돌이 지나기도 전에 모친을 여의고 조모에 의해 양육되었는데, 3세에 (1913)에 서당에 입학하고, 5세에 서당 백일장에 장원하여 신동이란 호칭을 들었다. 15세(1925)에 대구 교남학교(현재 대륜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이듬해 중퇴하고 만주, 일본 등으로 외유하였다. 18세(1928)에 경주 안씨 春和 공의 차녀와 결혼하였으나, 이듬해 금강산에 입산하여 方漢岩 스님의 문하에서 불경을 공부하였다고 한다. 20세(1930)에 신간회에 가입하여 민족운동을 하였는데, 이 무렵 위당 정인보를 만났

다. 25세(1935)에 사찰의 강원에서 불경을 강론할 정도로 한문과 불교에 밝았다. 37세(1947)에 서울대 문리대 조교(중문학),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동양철학) 강사를 역임하고, 42세(1952) 이후, 전북대 사학과, 경북대 철학과,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58세(1968)에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전임편집위원, 동국역경원 번역 및 교열위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조선왕조실록 국역위원, 가정의례준칙심의위원 등을 겸직하였다. 59세(1969) 3월 1일 성균관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동방고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제자를 양성하였다. 64세(1974)에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67세(1977) 1월 1일에 작고하셨다. 출생일과 작고일이 같으니, 태어나신 날에 돌아가신 것이다. 후손으로는 5남 1녀를 두었다.¹⁾

저작으로 한국의 당쟁사와 유학사에 관한 저술 및 노자, 맹자, 순자, 정약용, 서유구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 이 글들은 모두 『(방은 성낙훈선생 문충) 한국사상논고』(동화출판공사, 1979)에 실려 있다. 이외에도 『연려실기술』, 『퇴계집』, 『율곡집』, 『선가귀감』 등 유학과 불교의 전적수집여 종을 번역하였다. 2008년에 그의 유문과 후학들의 논고를 모은 『(放隱 成樂熏 先生 三十週忌追慕文集) 韓國學의 人文學』(경인문화사, 2008)이 발간되었다. 방은 선생의 대표적 글은 조선당쟁사를 정리한 『한국당쟁사』²⁾와 한국유학을 정리한 『한국유교사』와 『한국유교사상사』³⁾인데, 모두 『한국사상논고』에 실려 있다.

1) 이상 방은 선생의 略史는 「放隱 成樂熏 先生 略傳」(『韓國學의 人文學』, 경인문화사, 2008)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2) 이 글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 『한국문화사대계』 2(정치경제사), 1966에 실려 있다. 이후 『한국당쟁사』는 이영호, 성장훈에 의하여 교주본(2021)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3) 이 두 편의 글은 모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 『한국문화사대계』 6(종교철학사), 1970에 실려 있다.

2. 방은의 한학과 사승

방은 성낙훈을 기억하는 이들의 뇌리에 가장 많이 남은 것은 그의 애주와 경이로운 한문 실력이었다. 그 기억의 단상들을 들여다보면, 술과 한문을 중심으로 방은 선생의 삶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먼저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의 초창기 면모를 기술한 이계황 회장(전통문화연구회)의 회고담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1 광화문 네거리 현 고보문고 빌딩 뒤편 첫째 골목길의 이름도 없는 묵로주점에서 放隱 成樂熏 선생과 시인 月下 金達鎭 선생이 소주잔을 건네며 하셨던, “도라무통(드럼통)이라도 치마만 두르면 됐지.”는 진짜 술꾼(?)들의 농담이었다. 당시 두 분은 예순에 가깝고 나는 서른도 안 됐지만, 방은 선생은 술의 淸濁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강의 쉬는 시간에도 한잔하실 정도로 술을 매우 즐기시는 분이였다. 이는 민족문화추진회가 발족한 후 성락훈 선생님을 모실 때에도 가끔 있는 일이었는데 성품이 소탈을 넘어 해탈한 분 같았다.

2 방은 선생은 사업 초기부터 번역을 주도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 당시 방은 선생이 주석을 口述하면 노영수 편수담당이 적어놓고 확인했는데, 二十五史의 자료를 찾아 대조하면 모두 정확한 것이었다. 少時에 신동이라 불리었다는 이야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당시 한학대가들은 四書三經과 詩文을 줄줄 외우는 ‘워킹 디셔너리(Walking Dictionary)’라 할 수 있는 분들이었다. 방은 선생의 회갑연이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될 때, 두계 선생이 축사 중에 “회갑잔치에 말이 좀 지나치지만 방은은 한문귀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두계도 한문에는 방은을 선생으로 대접한 것 같았다.⁴⁾

4) 이계황(2011) 참조.

1의 회고를 보면, 방은이 얼마나 애주가였는지를 알 수 있다. 色보다 酒가 더 우선이었으며, 요즘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수업시간에도 한잔 하시고 들어오실 정도였던 것이다. 이성무 교수도 방은의 이 음주 풍경을 유사하게 회고하고 있다. “선생님은 술을 매우 즐기셨다. 강의하기 전에는 반드시 술을 드셔 거나하게 취해야만 강의를 잘 된다고 한다. 술을 마시지 않고 오신 날은 강의하다 말고 나가서 소주를 들고 오시곤 했다. 건강에 나쁘니 술을 드시지 마시라고 하면 ‘나는 술 안 먹고 10년을 더 사느니 술 먹고 1년만 살린다’고 하셨다.”⁵⁾ 이성무 교수의 회고를 보면, 방은에게 술은 색보다도 심지어 목숨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2의 회고는 방은의 한문 실력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실로 20세기 초엽에도 한문에 있어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는 학자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북경대 초기 교수였던 劉師培(1884~1919)의 경우, 십삼경을 주석까지 통째로 암송하였다고 한다. 위의 기록을 보면, 중국의 유사배 보다 조금 후배격인 방은의 경우는 유교의 경전은 물론 25사도 거의 암송하였다고 하니, 두계 이병도의 ‘한문 귀신’이라는 칭찬이 허언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鷺山 李殷相(1903~1982)은 방은이 돌아가신 날에 문상을 와서, “우리나라 漢文學의 國寶가 돌아가셨다.”⁶⁾고까지 하였다.

한문귀신, 한문학의 국보라는 별칭은 방은의 한문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 별칭이 선배이자 당대 학계를 이끌었던 이병도, 이은상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그러면 한문학의 국보였던 방은은 그 뛰어난 한문 실력을 어디에 쏟

5) 이성무(2008), 31~32면.

6) 유풍연(2008), 27~28면.

았는가? 그 첫 번째는 후진 양성이었는데, 임형택 선생의 회고담에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오늘날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이 있기까지 그 성립과정에 실제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방은 선생으로 알고 있다. “한문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은 선생님의 지론이었거니와, 고전 국역의 필요성을 늘 역설하였다. 그리고 요로의 누구누구에게 간청하여 민족문화추진회를 설립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종종 들었다. 민족문화추진회의 기록을 보면 초기의 위원, 이사 등 명단에 학계 및 정계의 유명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한학자로는 유일하게 방은 선생의 이름이 보일 뿐이다. ……우전 신희열 선생과 우인 조규철 선생이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셨는데 이분들 또한 방은 선생이 견인한 줄로 알고 있다. 국역연수원이 설립되자 이 세분이 나란히 교수로 취임하였다.⁷⁾

근대로 접어들면서 주류 언어는 한문에서 한글로 옮겨 갔다. 이와 더불어 한문은 점차 소수의 지식인만이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적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이가 없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민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을 살면서도 전근대 문화의 정수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의 문자인 한문을 습득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방은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듯이 10년의 세월이 오롯하게 투자되어야만 한문을 읽을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⁸⁾ 10년의 시간을 투자해도 그 한문의 독해능력으로 현실을 살

7) 임형택(2008), 71면.

8) 유풍연(2008), 24면.

아간다는 것은 그리 녹록하진 않다. 때문에 이러한 한문은 어떤 소명의 식 내지 학문적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방은은 이런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한문을 배우는 후학을 일컬어 ‘한문종자’라고 한 것이다.

방은이 민족문화추진회의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현 한국고전번역원의 모태가 되는 민족문화추진회는 바로 ‘한문종자’의 양성과 더불어 한문고전의 국역을 핵심으로 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방은은 이렇게 공적인 활동뿐 아니라, 사적으로도 ‘한문종자’를 양성하는 후진교육에 몰두하였다. 동방고전연구원을 만들어서 홀로 한문을 가르쳤다. 이 때 방은의 문하에서 현재 한국 한문학의 대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문학의 李東歡, 林熒澤, 柳豐淵, 사학의 李成茂, 鄭求福, 박용운, 철학의 金容傑 등이 바로 방은에게서 한문을 배운 학자들이다.

이처럼 근대한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방은의 삶은 크게, 20~30대의 불교 공부 매진, 40~50대의 교수생활, 60대 이후의 교수 사직 후 활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방은의 삶에 대하여 정리된 기록이 없기에, 간략한 연보를 통해 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다. 그의 불교 공부의 이력(사승관계)과 교수 경력에서 말이다.

방은의 불교에 대한 몰두는 그의 손녀인 성숙은 화가의 회고에 잘 드러나 있다. 성숙은 화가는 필자에게 보낸 할아버지 방은에 대한 회고에서, “할아버지는 불심이 돈독하셨고 불교 경전에 관한 학문적 경지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큰 스님이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아무 말씀도 없이 특하면 집을 나가 전국 유명 사찰에 체류하면서 여러 고승들과 교류를 하는 행적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스님들이 수시로 저희 집을 방문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에게는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집을 나가 금강산 여러 사찰에서 수년간 불교 경전 공부를 하여 가족들이 애

타게 행방을 수소문하여 찾는 경우도 있었다고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放隱 成樂熏 先生 略傳」을 보면, 방은은 19세(1929년)에 금강산 유점사에 가서 方漢岩 스님의 문하에서 불경을 공부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1929년 1월 5일, 朝鮮佛敎禪敎兩宗에서 일곱 분의 敎正-金幻應, 徐海曇, 方漢岩, 金擎雲, 朴漢永, 李龍虛, 金東宣-이 선출된다.⁹⁾ 그런데 방한암은 이 시기를 전후로 약 20여년 이상을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게 된다. 즉 1929년을 전후로 방한암은 금강산을 간 적도 속가제자들을 가르친 이력도 없다. 그런데 「放隱 成樂熏 先生 略傳」에는 1929년에 방은이 금강산으로 가서 방한암의 문하에서 불교를 공부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후 방은의 이력에 대하여 언급하는 글에서는 방은이 방한암에게 불경을 배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손녀인 성숙은 화가의 회고와 방은의 불교에 대한 깊은 조예와 후일 불교계에서의 활동을 보면, 분명 불교의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런데 방은과 방한암의 사제관계는 「放隱 成樂熏 先生 略傳」 외에 아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 의심나는 것은 방한암의 당시 이력에서 보듯이 방은이 가르침을 받았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서 방은 자신이 당시 선지식의 제자라고 자임한 자료가 있다. 그 기록은 바로 방은이 쓴 「華嚴宗主映湖堂大宗師浮屠碑銘并序」이다. 여기 映湖堂大宗師는 앞서 거론한 1929년 1월 5일, 조선불교선교양종에서 뽑힌 7명의 교정 중 한 분인, 朴漢永이다. 박한영(1870~1948, 호는 映湖 또는 石顛)은 방한암 스님과 더불어 조계종의 초석을 세우고 한국 전통불교의 근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승려이다.

9) 염중섭(2020), 64면.

영호 박한영 스님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두 번에 걸쳐 종정을 역임한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으며, 1926년 이래 20여 년간 불교전문강원에서 스님뿐 아니라 재가 불자들에게도 불교 교육을 시행하여, 조선 불교 후학 양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분이다. 특히 스님은 이견방, 이상재, 오세창, 최남선, 정인보, 홍명희, 신석정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 과도 교유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방은이 어느 시기에 영호 박한영의 가르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영호 박한영이 1926년 이래 스님뿐 아니라 속인들에게도 불교 교육을 시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시기를 전후해서 방은이 가르침을 받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마침 방은이 불교 공부를 했다는 시점과 매우 가깝다.

영호 스님의 열반 후, 1965년에 방은은 영호 스님을 기리는 「華嚴宗主映湖堂大宗師浮屠碑銘并序」를 지었다.¹⁰⁾ 이 비명은 그해 12월 8일, 고창 선운사 비석에 새겨졌다. 그 비석의 말미에서 방은은 “대사가 입적한 뒤 18년이 지나, 여러 문인들이 도솔산 선운사에 부도를 세우려 하면서 나에게 銘을 짓기를 명하니, 나는 스승의 화엄종 문하생이었기에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명을 쓰노라”〔師寂後十八年，諸門人樹浮屠於兜率山禪雲寺，命樂熏爲銘。樂熏，吾師之華嚴門生也，辭不獲，謹爲之銘。〕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成均館大學校 教授 及 門生 昌寧 成樂熏 謹撰’이라고 부기하였다. 여기서 방은은 영호를 가리켜 ‘나의 스승〔吾師〕’이라 하였고, 자신을 ‘문하생〔門生〕’이라고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다. 또한 「영호당 정호대종사의 범택과 전등」의 ‘속가제자 및 교우’에 방은은 이병기, 신석정, 조지훈, 이광수와 더불어 나란히 등재되어 있다.¹¹⁾ 때문에

10) 이 비명의 전문은 종걸, 혜봉 공저(2016), 819~822면에 실려 있다.

11) 종걸, 혜봉 공저, 앞의 책, 833면.

우리는 여기서 방은의 불교쪽 사승에서 방한암과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도 없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박한영과의 사제간 관계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은의 불교공부의 이력은 후일 그로 하여금 전문 불경 번역에 들어서게 하여, 한때 동국역경원의 번역 및 교열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아는 이가 거의 없지만, 방은은 동국역경원의 전신인 護國譯經院에서 불교의 근대화에 힘을 쏟기도 하였다.

해방이 되자마자 그 해(1945년) 12월 17일에 호국역경원이 개원하였다. 이때 불교계가 아닌 속가에서는 당대 최고의 문인 혹은 한학자였던 오상순, 성낙훈, 변영만 등이 참가하였다. 이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약 5년 정도 호국역경원은 불전번역과 불교대중화를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¹²⁾ 이 시기 방은은 호국역경원에서 불경 번역뿐 아니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부처의 전기를 집필하였다. 방은이 쓴 부처의 전기는 단기4280년(1947년)에 『佛陀傳』이라는 명칭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은의 『불타전』이 얼마나 대중을 향해 다가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 방은은 『불타전』에서 부처가 출가하기 전날 밤과 새벽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十七. 잠자는 궁녀들

야수다라를 잠들게한뒤에 태자는 잠자는 궁녀들을 도라보았다. 옷이 구겨지고 살이 드러나고 침을 흘리고 이를 갈고 잠꼬대도하는 그들의 몸뚱이는 모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만 보였다. 피 대소변 臟腑를 가 죽주머니로 싸놓은것이였다. 궁녀들은 송장으로 보이고 궁전은 무덤같이 보였다.

12) 불교신문 3207호/2016년 6월8일자 기사 참조.

十八, 離別

태자는 더 참을수도 기다릴수도 없었다.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와서 御者 車篋을 깨워 사랑하는 흰말[白馬名韃陟]에 안장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차익은 놀래여 울면서

「깊은 밤에 놀러갈대도 아니오며 戰爭이 시작되는것도 아니온데 말은 몰아 무엇하시렵니까」

태자는

「차익아 큰 전쟁이 시작된다. 늙은 병 죽음 煩惱가 나를 습격하는줄 모르느냐. 급히 싸워야 한다. 주저할 때가 아니다. 말을 몰아라」

하였다.¹³⁾

부처가 출가하기 전날 밤, 부처가 사람들이 몰두하는 이성의 육체에 환멸을 느끼는 장면과 종자에게 출가의 변을 토로하는 대목에서 그 묘사와 언설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이른바 소설체로써 부처의 일생을 서술한 것이다. 여기에는 학술적 각주도 어떠한 참고문헌도 없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거의 소설에 가깝다. 그러나 이 책은 방은이 지은 여러 저서를 참고하였을 때, 단순히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마도 지금 추적할 수는 없지만 부처의 일생에 관한 많은 한문문헌을 자기 나름으로 소화하여 이를 소설체로 엮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후술하는 방은의 『한국당쟁사』 서술에 보이는 태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방은의 20~30대의 불교 공부 매진 시절의 사승관계에 이처럼 의문이 있다면, 그의 40~50대의 교수생활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바로 그의 교수 경력이다.

방은은 이처럼 재야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듯이 여러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들을 기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의 교수 경력을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띄는데 바로 시기를 달리

13) 成樂熏(1947), 17~18면.

해서 성균관대 교수를 두 번 역임한 것이다.¹⁴⁾ 처음에는 강사를 하다가 나중에 교수가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수를 각기 두 번 역임한 것이었다. 혹 반정부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한 번 해임되었다가 다시 재임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확인하지 못하다가 曁史 李佑成(1925~2017)의 발언으로 그 연유를 알게 되었다. 다음은 이우성 선생의 회고이다.

방은 선생은 성균관대학 교수직에 있다가 얼마 뒤 그만두었지. 나중에 잠깐 다시 복직을 했다가 또 안 나오고 그랬어. 학생들 시험을 가지고, 채점도 안 하고, 채점표도 잘 안내고 그랬어요. 성적표를 낸 적도 없어. 자기도 학교에 안 나오고 해서, 학교에서 그만 해직을 시켰어요. 두 번째 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니깐, 두 번 다 그렇게 해직이 되었어.¹⁵⁾

나(이우성-필자)는 종종 심산선생을 뵈러 가서는, “방은을 성균관대학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지금 그만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여러 번 권유를 했지.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왔는데, 또 강의가 불성실하고, 뭐 영 채점표도 안내고 하니, 그만 퇴출이 되어 버렸어. 월급은 늘 타가면서 강의는 잘 안 나오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나. 어쨌, 그래. 나중에 고전 번역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되어가지고서, 거기서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돌아갈 때까지 일을 성실하게 잘했지요.¹⁶⁾

이상 이우성 선생의 회고에서 우리는 방은이 어떻게 성균관대학교 교

14) 방은은 42세(1952)에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조교수를 하다가, 1년 뒤인 43세(1953)에 전북대학교 사학과 전임강사가 되었다. 다시 45세(1955)에 경북대 철학과 조교수 임용되었다. 그리고 54세(1964)에 다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가 되었다가, 59세(1969)에 그만 두었다.(방은기념사업회 편(1979), 319~322면 참조)

15) 허권수(2012), 277면.

16) 허권수, 앞의 글, 292~293면.

수에 두 번 취임하였고, 왜 그만두었는지를 알 수 있다. 애초 방은 그 뛰어난 한문 실력으로 40대 초반에 성균관대 교수가 되었으나, 학교에 잘 나오지도 않고 시험이라든가 채점 또한 거의 하지 않아서 해직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우성 선생이 당시 총장이었던 심산 선생에게 청을 넣어 다시 성균관대 교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 하지는 못하고 그만두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교수 생활이었는데, 당시에도 아마 방은 선생의 이러한 교수 활동은 특이하였던 것 같다. 여기에는 범인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방은 선생의 자유로운 면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방은 선생의 셋째 아드님은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를 한 적이 있다.¹⁷⁾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의 특징이랄까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생각난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아버님의 생애는 가정은 아예 안중에도 없으셨다.

그 두 번째는 학문과 제자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 세 번째는 철저한 자유인이셨다.

아들의 회고에 의하면, 방은 선생은 철저한 자유인이었다. 거기에는 가정도 안중에 없었으니, 학교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대학의 교수가 비록 사회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지만, 오고감에 걸림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방은 선생에게 한 가지 삶의 초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한문종자'를 기르는 것으로서의 학문과 제자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그 가족들은 보살핌에서 소외되었다. 방은의 손녀인 성숙은 화가는 할아버님에 대하여,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할아버지를 회고하면

17) 성유경(2008), 74~75면.

한마디로 낙제점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꾸려 나아가는 경제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평생 헌신하신 분야는 오로지 하고 싶은 학문 연구에 매진 하셨습니다.”라고 회고하였다. 방은에게 그야말로 가정 경제는 관심 밖이었으니, 그 집안의 살림살이의 팍팍함은 보지 않아도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회한을 그 아드님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벌써 고인이 되신지 어언 30년, 되돌아보면 제대로 자식으로 써는 아버님의 가르침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서운하고 아쉬운 회한이 한 둘이 아니지만, 시대가 그랬고 아버님의 뜻이 그러하였으니 어찌하랴. 그 시대가 우리 아버님에게 요구한 바가 있고, 학문이 우리 아버님을 더욱 필요로 하였으니 우리 자식이 아버님을 양보하는 수밖에
.....18)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쉬운 회한이 들지만 시대가 그리고 학문이 아버지를 필요로 하였기에 우리 자식이 아버지를 양보한다는 그 말에, 미안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다가온다. 본인들은 원치 않았겠지만, 그 가족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문종자’는 개화하였고, 그 열매를 성대하게 맺을 수 있었다. 현재 한문학 연구의 태두라 할 수 있는 임형택 선생의 회고에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그 시절(방은 선생에게 한문을 배우던 시기)에 김시습의 인간과 사상에 무척 매력을 느껴서 그가 남긴 소설 『금오신화』를 그의 철학적

18) 성유경, 앞의 글, 76면.

논리와 연계해서 해석한 논문을 썼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이지만 나는 누구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관견이 있다는 자만심을 마음속에 은근히 가졌던 같다. 그런데 이 논문에 대해 내린 선생님의 평어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小所見, 多所怪’ 즉 ‘본 것이 적으니 괴이한 것도 많다’는 의미이다. 이런 지적을 받자 나는 일시 풀이 죽기도 하였으나 그 여섯 글자를 학문하는 나 자신 두고두고 경구로서 가슴에 새겨놓고 있다.¹⁹⁾

이처럼 ‘한문중자’를 양성하는 사적, 공적인 교육에 방은 자신의 한문 실력을 쏟았다. 한편 방은의 한문 실력이 두 번째로 발휘된 분야는 바로 저술과 국역이다. 방은은 민족문화추진회 초기에 『연려실기술』 번역을 필두로 많은 국역서를 남겼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학과 사상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바로 한국의 당쟁사와 유학사였다. 이처럼 많은 국역과 저서 가운데서 방은은 자신의 대표작으로 『한국당쟁사』를 꼽았다. 아래는 임형택 선생의 회상이다.

선생님은 글을 강해하다가는 옛날이야기며, 학문에 관련한 말로 넘나 들기를 좋아하셨다. 자신에 대한 자부는 대단하셨는데 자기의 저술로선 『한국당쟁사』를 가장 역작으로 꼽으셨다. 당쟁사라면 자신이 제일 책임자라는 생각을 토로한 바 있다. 왜냐하면 당쟁사의 집필자는 첫째로 가문으로는 당파에 관여되지 않아야 되고, 둘째로 당쟁의 생리와 내막을 속속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서북사람들처럼 중앙 정계에서 멀리 떨어진 쪽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당쟁에 깊이 관련된 영남인이면서도 한미한 출신이라 당쟁에 관여된 문벌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말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신 것이다.²⁰⁾

19) 임형택, 앞의 글, 63~64면.

20) 임형택, 앞의 글, 64면.

위의 회고를 보면, 방은은 자신이 세상에 내놓은 저역서 가운데 대표작으로 『한국당쟁사』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방은 스스로 당쟁에 깊이 관련된 영남인이면서도 당쟁에 관여된 문벌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쟁사 집필에 적극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곧 기왕의 당쟁사는 어느 정도 당파적 견해에 의해 서술되는 데 비해, 자신이 집필한 당쟁사는 당파적 견해가 없는 공평무사한 저술이라는 자부일 것이다.

3. 『한국당쟁사』의 형식적 특징

일찍이 이우성 선생은 방은의 저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몇 개의 논문은 상당히 괜찮은 것이 있어. 다만 그저 연구방법과 서술방식이 다소 좀 현대적인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논지가 상당히 갖추어진 박식한 글이었지.²¹⁾

이우성 선생의 방은의 저술에 관한 평가의 핵심은 연구방법과 서술방식이 현대적이지는 않지만, 논지가 잘 갖추어진 박식한 글이라는 것이다. 방은의 『한국당쟁사』는 실로 이우성 선생의 이러한 평가에 부합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그 서술방식에서 보면, 한국어로 쓰인 연구서임에도 불구하고 각주가 전혀 없다. 당쟁사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과 사건에 대한 각주도 없을 뿐더러, 각종 전적에서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문 인용각주가 전혀 없기에 이 책을 보아서도 도대체 어디에서 인용한 내용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니 실로 전근대적 서술방식이라 할

21) 허권수, 앞의 글, 294면.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의 편폭을 보면 매우 광대하며 또한 자세하게 인용하고 있으니, 이는 또한 박식한 글에 해당될 것이다.

방은의 이러한 글쓰기는 현대의 논문 혹은 연구서의 체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특히 재야학자가 아니라 당시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가운데 대학에서 발간하는 연구총서에 실리는 『한국당쟁사』를 집필하면서, 왜 이런 글쓰기를 택하였는지 의구심을 일으키게 한다. 이 점에 대하여 박용운 교수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방은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역사와 관련된 선생님의 저술로 1960년대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출간한 『한국문화사대계』의 정치편 가운데 당쟁사를 쓴 것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거를 비롯한 註가 전혀 붙어있지 않다. 평소 에 이점을 이상하게 생각해 온 나는 어느 기회에 그 연유를 선생님에게 여쭙어 보았다. 그랬더니 대답이 '머리에 다 들어 있는데 굳이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셨다. 지금 헤아려 봐도 선생님다운 답변이었다고 생각된다.²²⁾

방은의 『한국당쟁사』의 교주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방은은 자신의 무한한 지식 혹은 암기에 의존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다. 때문에 전거를 하나하나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二十五史도 암기할 정도의 박람강기함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그냥 한국의 당쟁사를 써 내려갔던 것 같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인용의 전거는 명확한데 비하여, 인용의 내용은 원전을 그대로 옮기는 형태는 아니었다. 이는 실상 방은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전거와 전거에 해당되는 원전의 인용이 일체 없기에 학술서라고 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 그렇다고 완전한 대중 교양서라고 보기에는 비록 제시는 하지 않

22) 박용운(2008), 44면.

왔지만 전거가 분명하고 나름의 논리적 맥락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당쟁사』는 한문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문장 또한 고어투가 많다.

이에 『한국당쟁사』를 교주함에 있어서 가장 공력을 들여야 하는 부분은 전거를 찾고 그 전거에 해당되는 원문을 각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인이 읽기에 부담 없도록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할 것이며, 문장 또한 현대어투로 가급적 원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즉 교주본 『한국당쟁사』는 전거 확인 및 각주 추가, 한글 한자 병기, 저본 문장 현대화 등 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그런데 전거를 찾아 그 원문을 각주로 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다. 『송자대전』, 『명재유고』 같은 각종 문집과 『연려실기술』, 『동소만록』, 『당의통략』, 『조선왕조실록』 등 수많은 전적에서 인용하였기에 그 번역문만 가지고서 원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방은은 史書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지 않고 變改하여 실었기에, 실로 전거를 찾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다.²³⁾ 그 실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李滉이 시골에서 入京하여 幾日後에 領相 李浚慶에게 인사하러 갔더니,

李浚慶은

入京한 지 여러 날 뒤에야 나를 보러 왔는가.

하였다.

士友들이 찾아오는 이가 많아서 늦게야 오게 되었습니다.

전일에 己卯의 人士들이 서로 追從하기를 즐기더니 마침내 禍를 당하던걸.

23)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난 뒤, 이를 보완하는 작업의 소산으로 이영호, 성창훈의 교주본 『한국당쟁사』(2021)가 출판된 것이다.

趙光祖의 소위 「朝廷에 友道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었다.²⁴⁾

위의 『한국당쟁사』에서 인용한 이황과 이준경의 대답은 『선조수정실록』에 실려 있는 이준경의 줄기에 유사한 내용이 들어 있다. 아래는 『선조수정실록』에 실려 있는 그 내용이다.

李滉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사대부가 아침저녁으로 그의 문전을 찾아가니, 이황은 한결같이 모두 예로 접대하였다. 최후에 준경을 찾아가 인사하자 준경이 말하기를, “도성에 들어오신 지 오래되었는데 어찌 이제야 찾아오십니까?” 하니, 이황이 사대부들을 응접하느라 그럴 틈이 없었다고 하자, 준경이 언짢아하며 말하기를, “지난 기묘년에도 선비의 풍조가 이러하였으나 그 가운데도 염소 몸에 호랑이 껍질을 뒤집어쓴 자가 있었으므로, 사화가 이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趙靜庵 이외에 그 누구도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李滉之入來, 士大夫朝夕候其門, 滉一皆禮接, 最後往謁浚慶, 浚慶曰: “入城已久, 何來見之晚?” 滉答以應接不暇, 浚慶不悅曰: “往在己卯, 士習如是, 其間亦有羊質虎皮, 禍由是媒, 趙靜庵外, 吾不取也.”] - 『宣祖修正實錄』 5年 7月 1日

『선조수정실록』과 『한국당쟁사』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방은이 기존 사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먼저 원문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당쟁사』의 집필과정에 대한 방은의 언급에서 보았듯이, 일차적으로 기억에 의존하여 사서의 내용을 인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인용할 때, 기존 사서의 비대화체 문장을 대화체로 바꾸어서 표현의 생동감을 살렸다는 점이다. 위의 예로든 『선조수정실록』과 『한국당쟁사』의 인용부분을 비교해 보면, 거의 소설체적 표현에 가깝게 원문을 변용하였음을 알 수 있

24) 성낙훈(1979), 170면.

다.²⁵⁾

한편 방은은 『한국당쟁사』에서 문장의 생동감을 살리고자 기존 사서의 원문의 문장을 축약, 변형하기도 하였으며, 때로 도치하여 인용하거나 각기 다른 시기의 문장을 하나의 인용문으로 묶어서 처리하기도 하였다. 방은의 이러한 서술기법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현장성을 생생하게 부각시켜 몰입도를 높여 주었다.

다음으로 『한국당쟁사』에 들어 있는 방은의 사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4. 『한국당쟁사』의 내용적 특징

앞서 임형택 선생의 회고에 의하면 방은은 자신이 쓴 『한국당쟁사』에 자부심이 대단하였다고 보여진다. 그 자부심의 이면에는 자신만이 당파에서 자유롭고 한문에 탁월하다는 점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당쟁사』에는 방은의 조선 당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뚜렷하게 들어 있는데, 그 핵심은 도학과 군주, 그리고 당쟁의 순기능이었다.

㉠ 도학 : 조선 당쟁의 원인

▶ 유교 중에도 宋儒의 道學은 말폐에 이르러서는 배타적으로 되기 쉽고 현실보다 이론이 강한 것이다. 李朝에서 숭상한 유학은 주자학과 의 도학이다. 이는 정치를 위한 도학이 아니라 도학을 위한 정치였으며

25) 방은의 저술인 『불타전』과 『한국당쟁사』의 문투는 소설체에 가깝다. 그 원전을 전혀 인용하지 않고, 원전을 환골탈태시켜 소설체의 형식으로 석가의 전기와 조선 당쟁의 역사를 저술하였다. 제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평소 방은은 틈날 때마다 『태평광기』 같은 소설체 글을 탐독하였다고 한다. 어쩌면 그의 이러한 독서력이 저술의 형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본다.

로 오히려 도학의 정치화라고 불러 마땅할 것이다.²⁶⁾

▶ 이조에는 당쟁 때문에 정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쟁이 생긴 것이다. 이론을 좋아하고 현(賢)을 숭상하며 군자와 소인만을 분별하는 도학의 정치화는 그의 말류에는 필연적으로 당이 생기기 마련이다.²⁷⁾

▶ 배타적이요 명분적이요, 군자와 소인의 구별을 위주로 하는 도학 정치의 말폐와 삼사 제도의 이상한 발달에서 당쟁의 불이 치성하게 된 것이다.²⁸⁾

방은은 조선주자학의 연원인 송대 도학의 폐단이 조선 당쟁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도학의 말폐인 배타성, 현실보다 이론을 중시하는 점을 조선의 士類가 답습하여 정치에 적용하였기에 후일 당쟁의 불이 타올랐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의 정치에 학문이 복속하는 데 비하여, 조선은 학문에 정치가 종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방은의 표현대로라면 ‘정치를 위한 도학이 아니라, 도학을 위한 정치’였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도학의 특징에 정치적 상황이 연계됨으로써 조선의 당쟁은 명분을 중시하고 군자와 소인, 즉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같은 편끼리 뭉치는 당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의 응집력은 더욱 강해져서 결국 조선이 망하는 그 날까지 이런 현상은 지속된 것이다. 학문에 정치가 종속되었기에, 그 추상적 이념에 매몰됨으로써 현실을 도외시되고 명분에 골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단순하게 명분을 중심으로 하는 학

26) 성낙훈 저, 이영호, 성창훈 교주(2021), 42면.

27) 성낙훈 저, 이영호, 성창훈 교주, 앞의 책, 48면.

28) 성낙훈 저, 이영호, 성창훈 교주, 앞의 책, 86면.

문적 논쟁으로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어 피바람 부는 당쟁으로 이어지게 한 근저에는 조선 군주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방은의 주장이다.

② 군주 : 조선 당쟁의 괴수

이조 역대에 士類를 많이 죽인 군주는 燕山, 中宗, 文定王后, 宣祖, 肅宗인데, 그중에도 숙종은 조정에 당쟁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광폭한 살육을 자행하고 張氏, 閔氏 두 왕비를 이리저리 바꾸는 틈새에 죄도 없는 此黨, 彼黨을 번갈아 죽였다.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숙종의 농락에 희생되고 만 것이다. 말년의 일만 보더라도 세자와 연잉군을 대립시켜 당쟁과 결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선조가 그 말년에 광해군과 永昌大君을 대립시켜 大北, 小北의 당쟁과 결부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과실이다. 더구나 선조가 7명 신하에게 준 밀서나 숙종이 이이명에게 密託한 것이 너무도 같은 拙惡한 수법이다. 黨人들은 선조나 숙종에게 속아서 막대한 화를 당하고 말았다. 당쟁에 있어서 죄의 괴수는 군주다.²⁹⁾

당쟁을 발생시킨 원인은 도학에 있고 이를 정치에 원용한 주체는 사람이지만, 당쟁을 상대당파에 대한 비판과 학문적 논쟁을 넘어서 목숨이 오고가는 참화가 이끌어낸 주체는 조선의 군주이다. 이것이 당쟁의 원인과 주체,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한 방은의 주장이다. 특히 燕山, 中宗, 文定王后, 宣祖, 肅宗이 대표적 군주인데, 여기에서도 선조와 숙종이 당쟁에 있어서 죄의 괴수였다고 보고 있다. 당쟁의 현장에 있었던 이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군주의 당쟁을 이용한 권력의 추구에 어육이 되었던 것이다. 방은은 이를 두고서 군주가 광폭한 살육을 자행하였다고까지 비

29) 성낙훈 저, 이영호, 성창훈 교주, 앞의 책, 295면.

판하였다.

③ 당쟁의 순기능 : 일당 독재의 비판

누구나 다 당쟁이 나라를 망쳤다고들 말하지만 피상적으로 보는 것처럼 정권의 쟁탈, 개인 간의 중상모략의 불순한 동기에 의해 당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당쟁 때문에 국가의 일이 그릇되기도 하였지만 여하간 격쟁은 300년의 國脈과 함께 이어온 것도 사실이다. 당쟁이 나라를 그르친 것이라기보다도 나라의 모든 결점이 당쟁을 통하여 표현되고 발로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말하면 당쟁이 아니더라도 나라가 잘 될 수 없을 만큼 나라 자체의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³⁰⁾

앞서 당쟁에 대한 방은의 주장을 보면, 일견 당쟁이 조선을 좀먹은 원흉인 것으로만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방은은 조선 정치의 흥망의 책임을 당쟁에게로만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방은은 당쟁이 비록 나라를 망치는 데 일조를 하였지만, 그것은 따지고 보면 당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라 자체의 결함이 당쟁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표출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시의 조선은 당쟁이 아니더라도 잘 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마침 당쟁이라는 정쟁도구를 만나 상승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조선의 망국이 당쟁 때문이라는 친일적 사관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라고도 할 것이다. 방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쟁의 순기능을 인식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두고 임형택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0) 성낙훈 저, 이영호, 성장훈 교주, 앞의 책, 37면.

“당쟁 때문에 백성이 도탄에 빠진 것으로 세상이 알고 있는데 당쟁과 민생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 선생님의 지론이었다. 왜냐하면 당쟁은 어디까지나 관료층-사대부들 저희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순기능도 있었다고 보셨다. 당쟁이 갖는 상호 견제작용을 주목한 것이다. 반대 당파의 공격을 의식해서 벼슬을 하게 되면 자기 관리를 비교적 철저히 하기 마련이다. 부패가 만연하게 된 것은 세도정치가 등장한 이후다. 권력의 독점으로 종래의 견제 작용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¹⁾

임형택 선생은 방은을 사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고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그 회고의 한 대목인데, 바로 방은의 당쟁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방은은 당쟁은 기본적으로 민생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당쟁으로 인해 조선이 피폐해지고 망하였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다. 한편 임형택 선생의 회고에 의하면, 방은은 당쟁의 순기능에도 주목한 것 같다. 상대 당을 인식하는 한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서 조선 관료 사회의 상호견제장치로써 당쟁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견제장치가 없어졌을 때, 즉 당쟁이 사라졌을 때 일당독재의 세도정치로 인한 부패의 만연이 이루어졌음은 방은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그 양상을 방은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갑오경장 후 軍國機務處가 대원군을 옹위하고 문벌,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불구하고 인재를 선발해 등용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당파에 의한 등용은 표면상 타파된 것 같았으나, 노론의 압도적인 주도권은 망국의 날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노론이 최후까지 그 관성을 유지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31) 임형택(2008), 66면.

병합할 당시 한국의 대신 중 農商務大臣 趙重應을 제하고 모두다 노론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또 병합과 동시에 관작에 제수된 76명의 귀족중 소론 7명, 복인 2명 외에는 전부가 노론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의 사정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³²⁾

『한국당쟁사』의 대미는 조선의 망국으로 끝맺음을 하는데, 여기서 방은은 조선망국의 가장 큰 책임을 상대 당이 사라진 가운데 정국의 전권을 휘두른 노론에게 돌리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할 당시 대신의 거의 전부가 노론이었으며, 병합 이후 일제의 관작을 받은 76명의 대신 중 노론이 67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나 망하고 난 뒤에도 노론 일색이었던 것이다. 이는 일견하기에 망국의 책임을 노론에게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당쟁이 사라진 정국에서 일당독재의 부작용을 언급하였다고 보여진다. 때문에 이러한 언급은 바로 조선의 당쟁이 그 역기능만큼이나 순기능도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5. 『한국당쟁사』의 당쟁관

위에서 우리는 방은의 한국당쟁사 서술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 가장 특별한 면모는 두 번째 든 조선 당쟁의 괴수를 군주로 지목한 점이다. 이는 기왕의 당쟁서와 비교하는데서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조선의 당쟁을 기록한 당쟁서 중에서 각 당파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한 당쟁서를 들라면, 南人の 입장에서 정치사를 정리한 南夏正

32) 성낙훈 저, 이영호, 성장훈 교주, 앞의 책, 363면.

(1678~1751)의 『桐巢漫錄』, 西人들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南紀濟의 『我我錄』, 少論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과 李建昌(1852~1898)의 『黨議通略』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당쟁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이 여럿 있지만, 그 중 당쟁 초기에 해당되는 1589년(己丑年) 10월에 일어난 기축옥사(정여립 모반사건)는 여러 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일단 규모면에서 압도적이다. 3년여에 걸쳐 이 옥사의 수괴로 지목된 鄭汝立(1546~1589)과 친교가 있었거나, 또는 동인(東人)이라는 이유로 처형된 자가 1,000여명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옥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정여립과 연관되어 처형당한 李潑(1544~1589)과 그의 가족에 관한 논란이었다.

정여립의 역모사건 당시, 동인의 거두였던 이발은 두 차례 모진 고문을 받고 杖殺되었다. 이발이 죽은 뒤 80여세의 노모와 어린 아들도 혹독한 형벌을 받고 모두 죽었다. 그런데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이발의 노모와 어린 아들이 참혹하게 죽은 사실은 이후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노모와 어린아이의 죽음은 강상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에서 이를 훼손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이발과 그 가족의 참혹한 죽음을 주도하였는가? 그 주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에 각 당파에서는 이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극력 自黨을 변호하기에 이른다. 그 양상을 먼저 남인의 당쟁기록인 『동소만록』에서 시작하여 서인, 소론의 당쟁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남하정, 『동소만록』

이발의 어머니와 아들이 형장을 받고 죽은 때가 경인년(1590, 선조 23) 5월 4일이었다. 4월초에 서애가 이조판서가 되었는데 죽은 부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휴가를 내어 영남 고향에 내려갔다. (그 뒤) '6월 29일 정승에 임명되어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분

명히 실려있다. (그런데도) ‘같이 추국하기로 함께 약속했다’거나 ‘추국에 따라갔다가 함께 약속했다’는 등 자기 멋대로 무고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더욱이) 판서가 위관이 되는 것은 국조 이래 없었던 규정이다. 하물며 휴가를 빌어 고향에 있었는데 어떻게 함께 국문하고 함께 약속할 수 있었겠는가?³³⁾

■ 남기제, 『아아록』

이발과 이길이가 죽은 뒤, 그들의 82살 되는 어머니와 9살 어린 아이가 잡혀서 수감되니 이때가 庚寅年(1590, 선조 23) 12월이다. 임금이 국문을 명하자 조정의 신하들이 끝까지 법에 따라야 한다고 계문을 올려 옥중에 구류되었다. 辛卯年(1591, 선조 24) 5월이 되자 서애가 또 위관을 맡았다. 윤씨를 추문하다가 壓膝刑을 가하니, 그가 죽었다. 9살 어린 아이 또한 옥중에서 죽었다. 그 화 또한 참혹했다. 壬辰年(1592, 선조25)에 송강이 강계 유배지에서 풀려나와 관서 행재소에서 서애와 만났다. 송강이 서애를 책망하며 말하길 “대감이 일을 맡고서 어찌서 景涵(이발의 자)의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죽였습니까?”라 하였다. 柳가 눈물을 흘리며 “대감이 있었어도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이발의 어머니와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송강이 강계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일어났음을 또 알 수 있겠다.³⁴⁾

■ 이견창, 『당의통략』

이발은 본래 무거운 명망이 있었다. 정철도 비록 속으로는 미워했지만 자주 임금께 말해서, “滌이 汝立과 사권 것은 정에 끌려서 그의 악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이오니 천하에 어찌 두 汝立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더욱 신문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澈은 휴가를 청해서 조정을 떠나고 柳成龍이 그에 대신해서 委官으로 있었는데, 마침 그때 滌이 여러번 형벌을 당한 끝에 죽고 말았다. 成龍은 滌과 함께 동인이었지만, 사이가 서로 좋지 못하고 또 임금의 명령이므로 감히 용서해 주지 못하고 곤장을 때려 죽였다.³⁵⁾

33) 정호훈(2016), 176면에서 재인용.

34) 정호훈, 앞의 논문, 179면에서 재인용.

35) 이견창 저, 이민수 역(1972), 25면.

1589년 기축옥사 때 李潑이 연루되었는데, 그의 노모와 어린 아들도 감옥에 갇혀 고문을 받다가 죽는 일이 발생했다. 80세가 넘는 노인과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죽은 비극적인 사건은, 후일 비극을 초래한 주체를 놓고 서로 다른 진술을 낳았다. 이 비극이 일어난 해는 경인년(1590, 선조23) 鄭澈이 위관이었을 때라는 진술과, 신묘년(1591, 선조24) 柳成龍이 위관이었을 때라는 진술로 엇갈렸다.³⁶⁾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정사인 『宣祖實錄』에서 당시 기사를 모두 누락시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경인년(선조23) 5월 기사와 신묘년 5월 기사에는 이발 노모의 사망과 관련된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 실상 『선조실록』에는 기축옥사에 대한 기록 자체가 거의 없다. 이 부분의 기록이 소략한 이유는 임진왜란에 있었다. 광해군이 즉위하여 선조 때의 실록을 편찬하려고 했을 때, 戰火로 사책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선조실록』을 보완 수정한 『宣祖修正實錄』이 나와서 기축옥사에 대한 기록을 첨부하였지만, 역시 당시 위관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³⁷⁾ 이미 이때는 위관을 놓고서 의견이 분분하였기에 정사에 한쪽의 견해를 넣기 어려워서 그러했으리라 보여진다.³⁸⁾

상황이 이러하니, 정철이 속한 서인과 유성룡이 속한 동인(남인)의 기록에도 큰 차이가 났다. 먼저 남인의 기록인 『동소만록』에서는 이 비극이 경인년(1590, 선조23) 5월 4일에 일어났다고 기술하면서, 이때 유성룡은 부인상을 당하여 고향인 영남에 가 있었는데 어떻게 국문에 참

36) 오항녕(2015), 274면 참조.

37) 오항녕, 앞의 논문, 259~260면 참조.

38) 『광해군일기』(중초본)에는 이 비극적 사건의 위관으로 유성룡을 지목하여 기술하였으나, 정초본에서는 이 기사를 삭제하였다. 이 또한 후대 위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기에 정초본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여진다.(이에 대해서는, 정호훈, 앞의 논문, 170면 참조)

가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반면 『아아록』에서는 이 비극이 일어난 시간을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신묘년(1591, 선조 24) 5월로 잡고 있다. 사건의 심의 자체는 『동소만록』의 기록처럼 경인년(1590, 선조 23)에 시작되었지만, 사건의 결론은 다음해인 신묘년에 이루어졌다고 기술하였다. 당연히 이발의 노모와 어린 아들이 고문 끝에 죽은 시점도 바로 이 시점으로 확정하였다. 이 때 정철은 유배를 가서 도성에 남아 있지 않았기에 당연히 위관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 결론에 확신을 주기 위하여, 정철과 유성룡의 대담을 기술하는 가운데 당시 위관이 유성룡이었음을 드러내 주었다.

요약하면, 남인들은 이 비극은 1590년에 일어났으며 당시 유성룡은 영남에 가 있었기에 이 일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인측에서는 1591년 유성룡이 위관이었을 때 이 옥사가 결론났기에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소론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에는 이 비극을 다룬 기왕의 자료들을 인용을 하였지만, 당시의 위관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세기 말엽에 쓰여진 이견창의 『당의통략』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인의 기록에 서 있다. 위의 인용에서 보다시피, 이 비극적 사건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예 당시 위관을 유성룡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발에 대한 정철과 유성룡의 태도를 기술하면서, 정철은 상대당인 이발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묘사하고 유성룡은 자당인 이발과 사이가 좋지 않는 것으로 적어 놓았다. 기왕에 있었던 다양한 논의를 무시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서인측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렇게 보면, 정사인 실록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야사인 당쟁서에서 제각각의 논의를 펼친 셈이다. 그런데 남인의 기록에 비해, 서인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구한말에 쓰여진

소론의 당쟁서에서는 서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고, 이런 주장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³⁹⁾

이상 우리는 기축옥사에서 이발의 노모와 어린 아들의 죽음을 다루는 각 당파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당론서의 기술은 자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후대로 갈수록 당시 위관을 유성룡으로 지목하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어디까지나 이 잔혹한 사건의 책임은 유성룡이든 정철이든 당시 당파의 우두머리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방은의 기술과 평가는 사뭇 달랐다. 방은은 이발의 인물됨과 그 가족의 비극에 대하여, “이발은 孝友하고 淸名이 있는 사람이었다. 정여립과 친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역적과 공모하지 않은 것은 세상이 다 믿는 바였다. 더구나 80세의 노모와 8세의 어린 아들까지 매를 맞아죽었다.”⁴⁰⁾라고 기술하면서, 기축옥사 당시 그 참혹한 고문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또 이발의 어린 아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부친이 평소에 가르치기를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충성하라’ 하였으니, 역적의 일은 듣지 못했습니다.”

39) 예를 들어 현대 사학자 이덕일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럼 정여립 사건 당시 위관은 누구였던가? 유성룡이 위관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유성룡이 위관인 적이 없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문제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여립 반란 사건의 수사 기록인 「기축옥안(己丑獄案)」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이다. 이발이 죽을 당시에 위관이 누구인가 하는 논쟁은 훗날 서인과 남인 사이의 당론을 더욱 격화시켜 양자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더구나 사건 당시 이발의 팔순 노모와 열 살이 채 안 된 어린 아들까지도 국문을 받다가 죽음으로써 동인들은 이 사건으로 서인들, 특히 정철과 배후의 성헌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었다. 정철이 이발을 죽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철은 상대방의 장점은 인정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물론 서인의 강경파인 정철은 이발을 미워했지만 그의 재능은 인정해 임금 선조에게, ‘이발이 정여립과 사귄 것은 정에 이끌려서 그가 악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하에 어찌 두 여립이 있겠습니까?’라고 변호해 그를 구원하려 하였다. (이덕일(2004), 100~102면)

40) 성낙훈 저, 이영호, 성창훈 교수, 앞의 책, 107면.

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도리어
 “이런 말이 저놈의 집 아이한테서 나오다니……”
 하고, 매를 쳐 죽이게 하였다.⁴¹⁾

방은은 종래 당쟁서에서 과연 누가 이 가족의 비극을 초래한 위관이
 었는가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발의 인물됨과 그의 억
 울함, 그리고 노모와 어린 아들의 죽음을 담담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때의 정황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당시 이발의 모친은 82세였는데
 죽음에 이르러 형벌이 지나치다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발의 8세 어린 아
 들은 고문의 가운데서도 선조를 향해 부친에게서 효와 충을 배웠지 반역
 은 배우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 항변에 선조는 격분하여 그 어린아이
 를 매로 때려죽였다. 방은은 당시의 이런 정황을 대화체로 표현하면서,
 선조의 잔인함에 대하여 생생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때의 참화의 괴수는 정철이나 유성룡 같은 당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어둡고 잔인한 선조라고 주장하였다.⁴²⁾

방은의 이러한 주장은 과거 정사인 실록이나 당쟁서는 물론, 현대에
 쓰여진 당쟁관련 저술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과거에서 현재
 에 이르기까지 당파의 우두머리나 그 당파에게 당쟁의 원인을 돌리는 서
 술에서 탈피하여 그 최종적 책임의 소재로써 군주를 지목하였다. 하여
 분명하게 ‘당쟁에 있어서 죄의 괴수는 군주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때문
 에 이러한 군주를 묘사할 때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⁴³⁾

41) 성낙훈 저, 이영호, 성장훈 교주, 앞의 책, 114면.

42) 『한국당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113면. “이 역속사건을 살펴보면, 당시
 의 임금이었다던 선조의 혼암(昏暗)하고 잔폭(殘暴)한데 그 죄를 돌리지 아니할 수
 없다.”

43) 예컨대 방은은 선조를 가리켜 ‘호색하는 군주’라고 하거나 ‘당쟁이 생긴 뒤 전제군주
 가 자기 개인의 사적인 애증으로 대신들을 처리하려 하였다’고 비난하였다.(성낙훈
 저, 이영호, 성장훈 교주, 앞의 책, 116면 참조)

이상으로 우리는 방은의 당쟁사 서술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종래 당론서와 비교하는 가운데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방은의 당쟁관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당쟁관과 차별되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다. 방은의 『한국당쟁사』에 들어있는 다양한 특징과 더불어 그의 이러한 당쟁관은 돋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은의 저술은 그의 주저인 『한국당쟁사』 이외에 유학 관련 글들이 있다. 이 또한 상당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필자는 방은의 조선유학 관련 저술을 모아 교주본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후일 『한국당쟁사』에 이어 그의 『한국유학사』도 복원되어 학계에 보고된다면, 한학을 근대 학문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를 한 방은의 학문의 전모가 온전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 「華嚴宗主映湖堂大宗師浮屠碑銘并序」⁴⁴⁾

내 공경히 영호 대사의 유문을 읽다가 「蓮潭大師碑陰記」(陰記, 비석 뒷면에 새긴 글)에 “蓮潭(1720~1799) 스님이 일찍이 雪坡(1707~1791) 노스님의 초상을 기리며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華嚴宗이 존망의 기로에 처했을 때, 우리 스님이 이 즈음에 나타나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고 화엄종의 十玄法門을 다시 활짝 열었으니, 그 누가 唐나라 淸涼國師 澄觀(738~839)의 재림이라고 하지 않으랴고 하였는데, 내 보기에 이 말은 연담 자신을 기리는 글로서 적합하다.”는 말에 이르렀다. 나는 문득 놀라며 말하기를, “내 보기에 영호 대사가 가히 이 말에 해당된다.”고 하

44) 이 비명의 번역과 원문은, 종길, 혜봉 공저(2016)의 말미에 실려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번역의 오류를 수정하고 원문을 표점교감하여 실었다. 특히 원문에 오자가 다소 있는데, 이 원문을 교감할 때 사용한 실물(고창 선운사 소재) 사진은 전 한국고전번역원 천길주 이사장께서 제공하였다.

였다.

또 영호 대사가 기록한 「先師雪乳大師行畧」을 읽다가, “선사가 일찍이 말하기를, ‘불경을 모두 꿰뚫어 큰 도에 들어가려고 하면, 쉼에서 나와 有로 들어가야 하니, 반드시 천하의 서적을 읽고 필히 천하의 학문을 살피며 반드시 천하의 선비를 사귀어야 할 것이다. 이런 뒤에야 다시 옛것을 음미하여 새로움을 도출해냄으로써, 가히 한 시대와 더불어 설 수 있고 부처의 가르침을 더불어 논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는 말에 이르러, 내가 문득 놀라며 말하기를, “내 보기에 영호 대사가 자신을 말한 것에 합치된다.”고 하였다.

또 「草广上人遺稿序」를 읽다가 “고금의 禪家 작품을 총괄하여 논해 보면 詩는 많으나 文이 부족하다. 조선조로 내려오면서 教風과 詞藻가 함께 날로 하강하여, 5백 년 동안에 시로써 이름을 날린 이가 몇 분에 불과하였다. 하물며 본체를 갖춘 대가를 어떻게 많이 볼 수 있겠는가! 근래 禪家 藝壇의 우두머리를 뽑음에 마침내 초엄상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니, 여기에 異論이 없을 것이다.”라는 글에 이르러, 내가 문득 놀라며 말하기를, “내 보기에 영호 대사가 자부하는 것에 합치된다.”고 하였다.

영호 대사는 雪坡, 白坡, 雪竇, 雪乳의 정맥을 이은 분으로 화엄의 종주이시다. 시문에 이르러서도 초엄과 더불어 禪家의 문단에서 나란히 일컬어졌다.

대사의 성은 密陽 朴氏요, 이름은 漢永이며, 아버지는 聖鑰, 어머니는 晉州 姜氏이다. 한말 경오년(1870) 8월 16일에 全州府 草浦面 鳥沙里에서 출생하였다. 집안은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고향에서 이름을 떨쳤다. 유년에 아버지를 여윈 뒤 무상을 깊이 생각하여 불가에 뜻을 두었으나, 차마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다.

19세에 威鳳寺에 갔다가 드디어 참된 보은을 하고자 결의하여 錦山の

長老에게 머리를 깎고 鼎鎬라는 법명을 받고, 幻應, 擎雲 등의 스님들에게서 수학하였다.

26세에 龜巖寺 雪乳 대사의 법통을 계승하니 법호는 映湖요, 石顛은 그의 아호이다. 이후 스승의 강론을 계승하였는데,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책을 읽어지고 모여든 팔도의 승려들이 백여 명에 이르러서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 절이 한낱 자그마한 사찰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나라에서 으뜸가는 이름을 차지하게 된 것은, 설파 선사 이래 백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문을 강론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山寺의 우러러보는 바가 된 것은, 대사가 여기에 머물면서 역대 스승의 아름다움 떨쳤기 때문이다.

30세에 석장을 짊고 여러 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화엄경』을 논하여 사람들을 탄복시키고 『禪門拈頌』을 설하여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大菴寺, 大源寺, 白羊寺, 靈源寺, 海印寺, 法住寺, 華嚴寺, 釋王寺, 乾鳳寺, 梵魚寺는 모두 대사께서 한 차례의 법회를 가진 곳이다. 39세에 韓龍雲(1879~1944), 琴巴(1868~1915) 스님 등과 함께 시운이 어지럽고 교풍이 쇠퇴함에 비분강개하여 북쪽으로 한양에 가서 불교 청년동맹을 결성하여 구제도를 개혁하고 維新을 도모하였다.

41세인 경술년(1910)에는 震應(1873~1941), 龍雲 선사 등과 더불어 臨濟宗院을 설치하여 친일적인 圓宗의 무리를 물리쳤다.

44세에는 海東佛報의 편집을 맡았고, 47세에는 宗立 中央學林의 강사가 되었으며, 57세 병인년(1925)에는 한성 동쪽의 大圓庵에 選佛場을 창건하여 禪을 논하고 教를 설하며 다시 20여 년을 수행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배운 자들 중에 안목을 얻은 이가 수없이 많았으니, 이는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逝多林의 아름다움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종정이 되어 승려들을 통솔하였으며, 동시에 불교전문학교의 교장이 되어 신

도들을 양성하였다.

64세는 멀리 중국 강남에 가서 머물다가 돌아왔으며, 76세에 강좌를 거두고 호남 內藏寺에서 노년을 보내다가, 무자년(1948) 2월 29일에 병 없이 입적하니 세수 79세요 法臘 61세였다.

스님은 계행이 엄정하고 시주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노래와 여색을 도외시하였으니, 『清涼國師傳』에서, “비구니 사찰의 먼지도 밟지 아니하고, 옆구리는 거사의 자리에 닿지 않았다.” 함은 곧 스님을 일컬음이다. 학문에 있어서도 教와 禪에 모두 뛰어나고 내외의 서적을 두루 섭렵하여 보지 않는 것이 없었다. 널리 보고 기억력이 좋아, 故事, 稗說, 僻書, 異聞에 이르기까지 묻는 대로 바로 대답하여 세상 선비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다. 시문에도 妙法을 얻어, 樓閣을 손끝으로 나타냄에 법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뛰어난 경관을 그려내었으니, 실로 속인의 언어나 할 수가 없었다.

간혹 학사나 문인들이 찾아오면 싫어하는 마음 없이 더불어 놀았으니, 李琦, 吳世昌, 金敦熙, 李道榮, 卞榮晚, 高義東, 鄭寅普, 崔南善 등이 당시 따르던 이들이었다. 저서로는 『石顛詩鈔』와 『石顛文鈔』가 있으며, 그 글에서 스스로에 대해 말하기를 “근대시로 禪境을 좇아 느낀 바대로 썼다.”고 하였고, 『石林草』 자서에서는 “성품이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여 석장을 끌고 우리나라 명소와 중국 남부의 浙江, 蘇州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들은 말을 기록하고 사물을 적은 초고가 마침내 약간의 권수가 되었다.”고 하였다.

대사가 입적한 뒤 18년이 지나, 여러 문인들이 도솔산 선운사에 부도를 세우고 나에게 銘을 짓기를 명하니, 나는 스승의 화엄종 문하생이었기에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명을 쓰노라.

三學에 통달하여 사부대중을 인도하니
火蓮이 映湖에 의탁해 피어나네.
글을 지어 먼저 바치니
불조의 玄談이지 葫蘆를 그린 것이 아니로다.
이곳을 지나는 이는 마땅히 頂禮하라
명산을 진압하는 부도가 있도다.

불기 2992년 을사년(1965) 12월 8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및 문하생, 昌寧 成樂熏이 삼가 짓다

華嚴宗主 映湖堂大宗師 浮屠碑銘并序

予伏讀映湖大師遺文，至蓮潭大師碑陰記有云：“蓮潭，曾頌雪坡老眞曰：‘東國華嚴 若存若亡 我師問生，整其頽網，十玄法門，重得恢張，其誰不曰，再來清涼。’以吾觀之，亦合蓮老之自頌也已。”輒不覺瞿然曰：“以吾觀之，湖老亦可當此語也已。”

又讀至先師雪乳大師行畧有云：“先師嘗曰：‘惟鑽極內典，欲踏大方，宜乎出空入有，必讀天下書，必窺天下學，必交天下士，然後復食古化新，可以並立於一世，可以與論佛乘矣。’”輒不覺瞿然曰：“以吾觀之，亦合湖老之自道也已。”

又讀至草广上人遺稿序有云：“統論古今禪家之作品，詩有餘而文不足，降及漢陽之代，教風與詞藻，俱漸日下。五百年間，以詩名者，不過數人，況復多見具體大家哉！擬擇近古禪家藝壇主盟者，竟歸草广上人，無異論矣。”輒不覺瞿然曰：“以吾觀之，亦合湖老之自居也已。”

映湖大師，乃雪坡，白坡，雪竇，雪乳之正脉也，華嚴之宗，有所自來矣。至於詩文，可以與草廡，並峙禪家之文苑矣。

師姓密陽朴氏，名漢永，考聖鏞，妣晉州姜氏，韓季庚午八月，十六日，誕于全州府，草浦面，烏沙里。家世爲農，幼而聽慧，聲振鄉邑。髻而失怙，痛念無常，志在方外，未忍離母。年十九，參威鳳寺，遂決以眞報恩，依錦山長老剃染，法名鼎鎬，受學於幻應，擎雲諸尊宿。二十六，嗣法於龜巖寺雪乳師，法號映湖，石顛其雅號。

仍而繼講，名播遠邇，八路雲衲，負笈者，數至百餘，得希有大盛會焉。是寺不過一小刹，而名冠國中者，自雪老以來，百數年間，講學繼擅。爲衆山所歸仰者，師于是克闡前微焉。

三十轉錫於諸山，論雜華解人頤，說拈頌，刮人眼。大茈，大源，白羊，靈源，海印，法住，華嚴，釋王，乾鳳，梵魚，皆師之一會處也。三十九，與龍雲琴巴等，感時運遷滯，慨教風陵夷，北遊漢京，結佛教青總，圖革舊而維新。

四十一庚戌，與震應龍雲諸師，設臨濟宗院，攻斥所謂圓宗附日之徒。四十四任海東佛報編輯，四十七爲宗立中央學林講師，五十七丙寅，勅選佛場於城東大圓菴，談禪演教，復修二十冬夏。通方學人之得眼目者，計至百千，比作逝多林嘉焉焉。於此中間，爲宗正，統攝僧尼，兼佛專校長，培養信檀。六十四，遠遊中國江南而歸。七十六，輟講休老於湖南內藏寺。至戊子二月二十九日，無疾示寂，世壽七十九，戒臘六十一。

師戒行嚴淨，不受檀施，度外聲色，「清涼國師傳」所稱，足不履尼寺之塵，脇不着居士之席者，師之謂矣。其於學也，兼精教禪，通涉內外，無所不窺。覽博記強，至於故事稗說僻書異聞，隨問如響，使世儒瞠目。爲詩文如其所得法，樓閣現於指端，不拘於規制，而儼一奇觀，要之非俗人語也。間有學士文人來，就不厭與之遊，李琦，吳世昌，金敦熙，李道榮，卞榮晚，

高義東, 鄭寅普, 崔南善, 皆時月相從者也. 所著有『石顛詩鈔』, 『石顛文鈔』, 鈔中隨筆自引曰: “隨近代詩禪境, 感而筆之者也.” 石林草自敘曰: “性多登臨之癖, 曳一枝錫, 而數周東海名區, 及夫南中浙蘇, 紀言紀物草, 遂若干云.” 師寂後十八年, 諸門人樹浮屠於兜率山禪雲寺, 命樂熏爲銘. 樂熏吾師之華嚴門生也, 辭不獲, 謹爲之銘曰:

通三學導四衆, 火蓮托生映湖, 得句先呈, 佛祖談玄, 非畫葫蘆. 過此者宜頂禮, 鎮名山有浮屠.

佛紀 二千九百九十二年, 乙巳, 臘八日.

成均館大學校 教授 門生 昌寧 成樂熏 謹撰.

〈참고문헌〉

- 박용운(2008), 「방은 선생님을 추모하며」, 『韓國學의 人文學』, 경인문화사.
- 방은기념사업회 편(1979), 『(방은 성낙훈선생문충) 한국사상논고』, 동화출판공사.
- 성낙훈 저, 이영호, 성창훈 교주(2021), 『한국당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成樂熏(1947), 『佛陀傳』, 護國譯經院.
- 성유경(2008), 「아버님에 대한 추모의 글」, 『韓國學의 人文學』, 경인문화사.
- 염중섭(2020), 「한암 중원의 선불교와 교육사상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 오향녕(2015), 「기축옥사의 비극적 사건과 기억들」, 『한국인물사연구』 제23호, 한국인물사연구회.
- 유풍연(2008), 「放隱 成樂熏 先生님과과의 因緣」, 『韓國學의 人文學』, 경인문화사.
- 이건창 저, 이민수 역(1972), 『당의통략』, 을유문화사.
- 이계황(2011), 「초기 고전국역의 낙수(落穗)」, 『고전칼럼』, 한국고전번역원.
- 이덕일(2004),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석필.
- 이성무(2008), 「放隱 成樂熏 선생과의 인연」, 『韓國學의 人文學』, 경인문화사.

- 임형택(2008), 「나의 방은 선생 회상기」, 『韓國學의 人文學』, 경인문화사.
- 정호훈(2016), 「조선후기 당쟁과 기록의 정치성」, 『한국사학사학보』 33, 한국사학사학회.
- 종길, 혜봉 공저(2016), 『석전 박한영』, 신아출판사.
- 허권수(2012), 「벽사 선생과의 대답」, 『연민학지』 17집, 연민학회.

Description On Chinese Studies of Bang Eun(放隱) Sung Nakhon(成樂熏) and a History of Party Strifes in Joseon Period

Lee, Young ho*

A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modern and pre-modern eras of Korea, some of the traditional scholars of the Chinese classics entered the academic system and played a role in transforming Chinese studies into modern studies. Among them, the representative scholar of the Chinese classics is Sung Nakhon.

Sung Nakhon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translation of Confucian and Buddhist texts and teaching Chinese Studies. Although he published many translations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both, h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nd educated many talented people in Korean Studies through teaching at a university or privately giving classes in Chinese characters.

In the academic field, he showed a unique view of history based on a wide range of references in the description of party strifes in Joseon period. While the existing books of party strifes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by focusing on partisan views, Sung Nakhon holds kings responsible because they coordinate all of this aspects. If related discussion is further supplemented through his writings about confucianism in the future, that will be a valuable resource for korean studies.

*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E-mail: lyh6896@skku.edu

Key Words

Chinese Studies,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History of Party Strifes in Joseon Period, Korean Studies

논문접수일: 2022. 1. 21, 심사완료일: 2022. 6. 28, 게재확정일: 2022. 6. 30

정조의 경학 방법에 대한 고찰

－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의 의미 규명을 중심으로

이시연 *

-
1. 서론
 2.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의 眞意
 - 1) 『근사록』 인용을 통한 정조의 주자학 존숭
 - 2) 장식의 호상학 계승과 그 특징
 - 3) 『속대학혹문』에 나타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 정신
 3. 결론
-

■ 국문요약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正祖)는 18세기 말의 새로운 사상적 유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자를 배우는 요령으로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의 태도를 제시하였다. 정조가 주자학을 무비판적으로 존숭한 것인지, 일정 부분 다른 설을 제기하였는지, 혹은 그 외의 어떤 지점에 서 있었는지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여전히 분분하다. 이에 정조가 말하고자 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가 가지는 본의를 추적하여 주자학에 대해 정조가 가지는 구체적인 입장과 학술태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정조가 『홍재전서』 내에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를 언급한 것은 두 차례로 첫 번째는 「책문_대학」을 통해 ‘주자를 존중하는 요령으로 장식이 호안국에게 유착하듯이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할 것’을 강조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회재 이언적의 『속대학혹문』에 서문을 내리면서 ‘주자를 잘 배워 無疑而有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 / E-mail: ttyuuui12@naver.com

疑 有疑而無疑 하였다'고 회재의 업적을 칭찬'한 부분이다. 고찰한 바에 따르면 정조는 의문을 가지는 자세를 중시하되, 의문의 끝에는 반드시 의문이 해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책문_대학」이나 「경사강의」에서 발견되는 정조의 질문은 주자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정조가 말하는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정신은 주자에게서 이어받은 학문 태도로, 처음에는 의문이 없는 상태이더라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되고 의문을 끝까지 궁구해 가며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의문이 해소됨을 말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주자학을 벗어나는 새로운 의견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유가사상의 전제 안에서 그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조 또한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하는 태도를 지니지만 스스로는 새로운 설을 제시하지 않는데, 이는 주자를 온전히 이해하였다는 자신감과 주자설의 완벽성에 대한 확신의 교집합일 수도 있고, 왕이라는 신분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제어 : 정조, 주자학, 장식, 호상학파, 근사록, 이언적, 속대학혹문, 대학장구보유,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

1. 서론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재위1776-1800년)는 주자학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까? 18세기 당시는 이미 주자학이 조선 사회의 통치 철학으로 공고화된 시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학, 양명학, 고종학 등의 새로운 사상적 유입이 시작되고 있던 때기도 하다. 이에 정조는 주자를 배우는 요령으로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¹⁾의 태도를 제시하

1) 현재(2022.1.) 고전번역원DB의 번역에 따르면 정조가 주자를 존송하는 요령으로 언급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는 '의심이 없는 가운데 의심을 가지고, 의심이 있는

여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문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홍재전서』에서는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 언급을 두 차례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정조는 「책문_대학」을 통해서 '주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 예로 장식이 호안국에게 유착하듯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²⁾ 또 다른 한 번은 정조가 회재 이언적의 『속대학혹문』에 내린 서문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이하 「속대학혹문서」)에서 보인다. 여기서 정조는 회재가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하는 학문 자세를 갖추었다며 주자를 잘 배웠다고 극찬한다.³⁾

그런데 위의 두 사례를 살펴보면 서로 간의 상반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장식과 호안국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장식은 호상학을 그 대로 수용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갔다고 알려진 인물이다.⁴⁾ 따라서 여기

가운데 의심하지 않는다' 혹은, '의심할 것이 없는데도 의심을 갖고, 의심을 해야 하는데도 의심을 갖지 않는 것'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 번역을 그대로 이해하면 주자의 설에 굳이 억지로 의심을 가지고 비판해야 한다는 뜻과 의심이 있더라도 묵수 주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상충되는 의미가 공존하여 혼란을 초래한다.

- 2) 正祖, 『弘齋全書』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 3) 正祖, 『弘齋全書』卷55,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
- 4) 장식 및 호상학과 관련된 한국논문으로는 연재희의 「張栻의 心論 研究: 호상학과 주자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67집, 2013년; 소현성의 「張栻哲學思想研究」, 北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1년과 「張栻의 中和說」, 『동양철학』 제22집, 2004년; 이연정의 「南軒 張栻의 수양론 연구 -호상학과 주자학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철학논집』 제58집; 「장식 '仁'에 대한 小考」, 『한국 철학논집』 제55집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장식이 주자에게 미친 영향을 위주로 서술되고 있다. 한편 장식과 관련한 중국 논문은 다음과 같다. 戴景賢, 「論南宋湖湘學脈之形成與其發展」, 『中國文化』第四十, 八期, 2018; 蘇炫盛, 「張南軒의 性論」, 『蜀學』第十一輯, 2016; 鐘雅琮, 「張栻對胡宏思想的傳承及調整」, 『孔子研究』, 2014; 任仁仁, 「張栻生平及其往來書信論析」,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18; 楊世文, 「張栻의 治國理政思想及現實意義 - 以『論語解』爲中心的考察」, 『蜀學』第十一輯, 2016; 王麗梅, 「張栻哲學思想研究」, 『湘潭大學碩士學位論文』, 2001; 王鳳賢, 「胡宏、張栻의 "性本論"倫理思想」, 『浙江學刊』, 2017; 姜海軍, 「胡宏의 經學詮釋及其思想探析」, 『儒家典籍與思想研究』第八輯, 北京大學出版社, 2016. 중국 논문의 경우

에 정조가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의미를 투사한 것은 전통 계승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이언적의 『속대학혹문』은 조금 다른 배경에서 생겨났다. 이언적은 『대학장구보유』를 지어 주자의 『대학장구』 편차인 경1장 전10장 체제를 경1장 전9장 체제로 개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언적은 청송장을 경1장 뒤에 붙이는 등 주자와는 다른 과감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의견을 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⁵⁾ 따라서 「속대학혹문서」에서 정조가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태도를 칭찬한 지점은 기존 논지에 대한 비판 정신과 새로운 학문 체제 개설의 창달에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일견 정조는 서로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서 동일하게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태도라 평하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정조는 서로 다른 두 사례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포착하여 동일한 평가를 내린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밝힌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정조가 전하고자 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자학에 대한 정조의 학문 태도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중요

는 장식 및 호상학에 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장식이 호상학을 계승한 데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고, 장식과 호평의 변별적 특징을 위주로 서술한 경우는 드물었다.

- 5) 회재 이언적의 『대학장구보유』 및 『속대학혹문』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김진성, 「晦齋 『大學章句補遺』의 思想的 特徵」, 『孔子學』 제20집, 한국공자학회, 2011; 이지경, 「晦齋 李彦迪의 「大學章句補遺」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16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이지경, 「朱子の 『大學章句』 編次 해석에 관한 이언적의 비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2집,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2; 이동희, 「李彦迪의 朱子 『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적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제34집, 한국유교학회, 2008; 조창열, 「주자, 회재(朱子, 晦齋)의 『대학』 주석 비교 연구」, 『漢文古典研究』 제11집, 한국한문고전학회(구. 성신한문학회), 2005; 강보승, 「회재 이언적의 『대학장구』 편차 개정과 16-17세기 조선 학계의 찬반론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5집, 한국유교학회, 2019; 서근식, 「晦齋 李彦迪의 [大學] 해석에 관한 연구」, 『東洋古典研究』 제34집, 동양고전학회, 2009 등이 있으며, 주로 회재의 시각이 주자와 얼마나 달랐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한 연구주제로 부각되어 왔다. 한형조는 정조가 주자학을 因循하는데 만족하지 않은 비판적 회의주의자라고 평가하였다.⁶⁾ 즉, 정조는 주자학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회의적이었다는 주장이다. 백민정은 정조가 주자의 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주자의 설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⁷⁾ 또 백민정은 정조 및 모든 당파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자학이 객관적인 평가대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성인의 위상과 경전의 실제적 의미, 주자학적 해석 방식의 한계와 모순점 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공공연히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⁸⁾ 박경남은 정조가 『경사강의』에서 『대학』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선현을 존경하면서도 스스로의 의문과 깨달음 속에서 주자와 다른 창조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오히려 참된 공부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주자에 대한 정조의 懷疑정신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⁹⁾

한편, 보다 최신 논문에서는 정조가 주자를 추존하는 입장이었다는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권오영은 정조가 주자를 성인으로 여겼으며, 정조 자신이 공자 이후 주희로 이어지는 도통을 잇고 있다고 자임하였다 말하였다.¹⁰⁾ 강문식은 정조가 『주서백선』을 편찬할 때 주자가 불교와 양명학을 비판한 편지들을 다수 수록한 것에 주목하여 이를

6) 한형조, 「정조의 학문관: 주자학의 비판적 복고」, 『장서각』 제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7) 백민정, 「정조와 다산의 『대학』에 관한 철학적 입장 비교: 『경사강의, 대학』 『증진추록』 및 『회정당대학강의』 『대학공의』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제126집, 퇴계학연구원, 2009.

8) 백민정, 「경사강의를 통해 본 정조시대 학문적 논쟁의 양상 사서에 관한 정조와 학인들의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1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 767면.

9) 박경남, 「한국문집과 한학연구: 한중 문화의 교차적 이해(1): 청과 조선의 어제집 편찬과 성조, 정조의 『대학』 논의」, 『민족문화연구』 제61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153면.

10) 권오영, 「正祖의 朱子學과 정치이념」, 『진단학보』 제135집, 진단학회 2020.

‘正學守護’의 관점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렇듯 정조가 주자학을 무비판적으로 존숭한 것인지, 일정 부분 다른 설을 제기하였는지, 혹은 주자학과는 또 다른 어떤 지점에서 있었던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다. 즉, 주자학에 대해 정조가 취한 구체적인 학문 태도와 입장을 정의할 만한 일치된 견해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의 본의에 접근하여, 앞서 밝힌 문제의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근사록』에 기록된 주자의 언급을 살펴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전거를 밝힐 것이다. 둘째, 호상학과 발전과정 및 학문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장식-호상학과의 비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조가 회재에게 주자를 잘 배웠다고 한 진의를 『대학장구보유』와 『속대학혹문』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2.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의 眞意

1) 『근사록』 인용을 통한 정조의 주자 존숭

『근사록』은 중국 송나라 때, 주자와 그의 제자인 여조겸이 함께 편찬한 책이다. 주자와 여조겸은 주무숙, 장횡거, 정명도, 정이천 등의 저서나 어록에서 일상 수양에 필요한 장구 622조목을 뽑았다. 그리고 이를 道體, 爲學, 致知, 存養, 治法, 克己, 家道, 出處, 政事, 教學, 警戒, 弁異端, 觀聖賢의 14편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세 번째 편에 해당하는 치지

11) 강문식, 「정조의 朱子學 연구와 『朱書百選』 편찬」, 『한국문화』 제89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62면.

는 『대학』의 팔조목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은 사서 체계를 확립시킨 주자가 일생의 정력을 바쳐 개정을 거듭한 텍스트로, 사서 중에서도 주자학의 대지를 볼 수 있는 間架이다. 특히 주자는 『대학』을 경1장과 전10장으로 나눈 뒤 전5장에 해당하는 「격물치지장」이 일실되었다고 생각하여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어 붙임으로써 후대에 많은 논란을 초래하였다.¹²⁾ 주희는 『근사록』에 致知편을 두고 치지란 무엇인지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책을 보는 까닭은 자신의 의심을 풀고 자신이 통달하지 못한 것을 밝히려 해서이다. 책을 볼 적마다 언제나 새로 유익한 것을 안다면 학문이 진전될 것이요, 의심하지 않던 곳에 의심이 생겨야 비로소 진전될 것이다.

책을 볼 적마다 언제나 새로 유익한 것을 안다면 학문이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학문은 진실로 의심을 푸는 것이요, 학문은 또한 의심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의심하면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면 터득할 수 있다. 의심하지 않던 부분에 의심이 생긴다면 이치를 살피어 치밀한 것이다.¹³⁾

주자는 『근사록』에서 책을 읽는 이유와 요령을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즉 독서의 이유는 자신이 통달하지 못한 것을 밝혀서, 새로 유익한 것을 아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자는 먼저 의심하지 않던 곳, 즉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거나 지각하지 못한 지점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라 보았다. 사실 『대학장구』 개정이야말로 그러한 주자의 견해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¹⁴⁾ 주자가 『고본대학』의 체

12) 주희 지음, 최석기 옮김, 『대학』, 한길사, 30면.

13) 朱熹, 『近思錄』卷3. “所以觀書者, 釋己之疑, 明己之未達. 每見, 每知新益, 則學進矣. 於不疑處, 有疑, 方是進矣. 每見是書, 而每知新益, 則學進矣. 然學固足以釋疑, 而學亦貴於有疑, 蓋疑則能思, 思則能得. 於無疑而有疑, 則察理密矣.”

제에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평생의 정력을 다한 것은 바로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고 다시 그 의문의 끝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다르다.

『근사록』의 또 다른 예를 보자.

이천 선생이 말씀하였다.

“배우는 자는 먼저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주자가 말씀하였다.

“책을 처음 읽을 적에는 의심할 줄 모르다가 그 다음에는 점차 의심이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구절 구절이 의심이 있게 되니, 이렇게 한 차례를 지난 뒤에는 의심이 점차 풀려서 융회하고 관통하는 데에 이르러 의심할 만한 것이 모두 없어야 비로소 學이라 할 수 있다.”¹⁴⁾

위 내용에서 주자는 정이천의 말을 빌려, 의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자에 따르면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의심이 없더라도 만일 계속해서 속독하면 의심이 생겨나고, 나중에는 구절구절 의심이 일어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의심은 의심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의심의 의심을 거듭하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의심이 점차 풀려나가고 전체 내용과 조목이 잘 이해되고 명료해져서, 의심이 없어지는 단계에까지 이르는데, 주자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학문 과정이라 보았다.

조선에서는 퇴계와 율곡 이후 주자학이 더욱 공고화되었다. 주자학은 조선 전반을 아우르는 학문체계이자 통치 질서였다. 조선의 대다수 학자들은 주자 존숭을 당연시하였다. 정조 또한 그의 문집 『홍재전서』 전반

14) 김유곤, 「한국 유학의 『대학』 체제에 대한 이해(1) - 『대학장구』와 『고본대학』의 체제를 개정한 학자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43집, 한국유교학회, 2011.

15) 朱熹, 『近思錄』卷3. “學者先要會疑, 朱子曰, 書始讀, 未知有疑, 其次漸有疑, 又其次節節有疑, 過了此一番後, 疑漸漸釋, 以至融會貫通, 都無可疑, 方始是學.”

에서 주자를 존숭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성명의 정치를 만들어 내려면 詩敎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고, 시교의 근본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주자의 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니, 이것이 『아송』을 편집하게 된 까닭이다. 그러나 부자의 시는 풍부하고 세련되어 가릴 수가 없다. 내가 春邸에 있을 적부터 존숭하고 암송하여 매번 全部를 『詩經』 삼백 편의 체제를 모방하여 정리하려고 하였다.¹⁶⁾

편전에서 만나 보고 그의 학식을 시험해 본 뒤에 內藏한 주자서를 사하여 주자를 존숭하고 正道를 보위하는 뜻을 면려하였다.¹⁷⁾

정조가 평소 주자를 존중하는 요령이자 주자를 잘 배운 자세로 강조한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의 태도는 정조의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자신이 존숭했던 주자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되고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⁸⁾

정조는 앎을 지극히 한다는 것[致知]은 단순히 암기를 잘하거나, 주자의 설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주자의 글을 의문이 생길 만큼 속독하고 읽다 보면 분명 의문에 또 다른 의문이 생기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자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이어져 더 이상의 의문이 사라지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16) 正祖, 『弘齋全書』卷56, 「雜著3」 「分命諸臣書朱夫子詩 漫書卷端」. “欲做聲明之治, 莫先於詩敎, 欲求詩敎之本, 宜自朱子詩始, 雅誦之所以編也. 然夫子之詩, 棧棧不可選也. 予自春邸, 尊閣諷誦, 每欲會通全部, 以做三百篇之體.”

17) 正祖, 『弘齋全書』卷184, 「羣書標記」6, 「命撰2」 「關西賓興錄三卷」. “臨見于便殿, 叩其所存, 賜以內藏朱子書, 勗之以尊朱衛正之意.”

18) 더 나아가서 조선유학의 변천과 변용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주자학 내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그것이 주자의 설과 다르더라도 참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지은의 「새로 쓰는 17세기 조선유학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주자 존승법을 강조한 정조는 스스로 이를 실천하여 『대학장구』의 곳곳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표적인 것이 「책문_대학」이다.

‘책문’이란 문과 試問의 한 종류로, 임금이 직접 경서의 뜻이나 時政 등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여 과거에 응시한 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다. 정조 15년(1791, 건륭) 8월 11일 치러진 ‘到記儒生の 秋試 및 抄啓文臣의 親試와 文臣의 製述’에 해당하는 공통 시험 문제는 『대학』에 관한 것이었다.¹⁹⁾ 「책문_대학」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자. 먼저 정조는 『대학』을 학문하는 지침이고 천하를 다스리는 헌장이라고 공포한 뒤, ‘이제 모두 다 해석하지 않겠다’는 주자의 말을 들어, 주자가 다 해석하지 않고 남겨 둔, 나머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약 27여 가지의 질문을 제시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지침이요, 천하를 다스리는 헌장이다. 규모의 광대함과 절목의 상세함에 대해서는 주자가 ‘지금 모두 해석하지는 않는다.[今不盡釋]’라고 하였다. 미진한 의미를 낱낱이 논할 수 있겠는가? 20)

신민에서 ‘친(親)’ 자를 ‘신(新)’ 자로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견해가 분분하다. 고본을 따른다면 뜻이 심하게 어긋나는가? 21)

팔조목의 공부는 ‘어떠한 것을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그것을 하려면 또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문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치지와 격물만은 유독 변격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2)

19)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와 尹椿의 『無名子集文稿冊九』, 「殿策_大學」의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1791년 辛亥八月到記科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大學一書, 爲學之指南, 而君天下之憲章也. 其規模之大, 節目之詳, 可以歷論於今不盡釋之餘歟?”

21)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新民之改親爲新, 歧議紛然. 仍舊則有甚抵牾歟?”

22)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八

격물과 치지의 의미를 보충한 보망장은 정자의 생각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知止’와 ‘聽訟’ 구절을 가지고 격물과 치지에 해당하는 전문의 착간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평생의 정력을 『대학』에 쏟은 주자로서도 오히려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인가?²³⁾

격물·치지를 夢覺關이라 하고, 성의를 人鬼關이라고 하였다. 무엇에서 취하여 비유한 것인가?²⁴⁾

격물’을 ‘외물을 막는다[捍禦外物]’라고 해석한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²⁵⁾

정조의 위와 같은 질문은 평소 주희의 『대학장구』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에서는 주자학의 위상이 상당하였고 정조 또한 주자학을 바탕으로 학문하였으나, 그의 질문은 주자설 자체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 다가서고 있다. 특히 주희의 『대학장구』 개정 이래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친민-신민 문제, 치지와 격물의 변격 문제, 이언적이 제시한 -주희와는 다른 새로운-편차 해석, 그리고 격물의 문제 등이 가감 없이 등장한다. 따라서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자칫 정조가 주자를 신랄히 비판하고 새로운 설을 내어놓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정조의 언급은 위와 같은 질문 의도가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정신에 다름 아님을 보여준다.

.....어찌하여 세상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도가 밝아지지 않아서 다 스리는 규모는 刑名으로 돌아가고 학술은 입과 귀로 답습하여 眞西山

條工夫, 先而又先. 而致知格物, 獨爲變例, 何歟?”

23)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格致補傳, 意取程子. 而或以知止聽訟, 爲格致之錯簡. 則平生精力, 猶有所未盡歟?”

24)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格致之夢覺關, 誠意之人鬼關. 何所取喻?”

25)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扞禦外物之解, 創自何人?”

과 丘瓊山의 『大學衍義』와 『補篇』 등의 책을 때때로 오할하고 事務에 절실하지 못하다고 하며, 경연에서 질문하는 것이나 강사가 전수하는 것이 명사의 뜻과 字句의 분석에 지나지 않고, 그중 심한 것은 정자와 주자를 한껏 배척하고 별도의 문호를 세워 誠意의 공을 으뜸이라고 하고, 修身을 본령으로 삼아 다른 길을 따라서 차츰차츰 陸象山과 王陽明의 논설로 들어가고 있으니, 세상 교육이 황폐해지고 올바른 학문이 가리어지는 것이 어떠하냐? 내가 세자로 있으면서부터 이 책을 탐독하여 낮 시간과 새벽녘에 깊이 탐구하고 연마한 것이 대체로 여러 해 되었다. 늘 이르기를, “경전을 존중하려면 먼저 주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주자를 존중하는 요령은 또한 의심이 없는 데서도 의문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다 보면 의문이 없어지게 되는 데에 있으니 張宣公이 胡文定에게 유착하듯이 한 연후에 참으로 주자를 존중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지금 나의 책문을 대하는 이는 모두 주자 문하로서 祭酒를 올리고 계보를 계승하는 선비이니, 經一章과 傳十章의 『章句』와 『或問』을 반드시 익숙하게 읽고 체험해 왔을 것이니, 내게 비밀로 하지 말고 가진 것을 모두 보여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²⁶⁾

정조는 경연에서의 질문 수준 및 강사가 전수하는 것이 명사의 뜻과 자구의 분석에 지나지 않음을 개탄하였다. 그는 정자와 주자를 배척하는 태도, 격물치지가 아닌 誠意의 공을 으뜸이라고 하는 태도, 수신을 본령으로 삼아 육상산과 왕양명을 닮아가는 태도에 대해 세상 교육이 황폐해지고 올바른 학문이 가리어지는 것이라 비판한다. 그리고 경전의 존중은

26) 正祖, 『弘齋全書』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奈之何世級漸降, 斯道不明, 治讓歸於刑名, 學術襲乎口耳, 西山瓊山衍義補輯等諸書, 往往以爲迂闊不切事務, 而經筵之所發難, 講師之所傳授, 不越乎名義字句之分析, 其甚焉者, 力排程朱, 別立門戶, 以誠意謂首功, 以修身爲本領, 異塗殊轍, 稍稍入於陸王之餘論, 其爲世教之榛蕪, 正學之蔽蔽, 顧如何哉? 惟予自在春邸, 潛心是篇, 晝漏晨鐘, 窮深研幾者, 蓋亦有年矣. 常謂欲尊經者, 當先知尊朱, 而尊朱之要, 又在於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不但如張宣公之留著胡文定, 然後儻庶幾乎真箇尊朱. 凡今對予之策者, 皆朱門瓊享譜承之士也, 其於經一傳十之章句或問, 必讀之熟而體之素, 願勿祕予, 悉以所存屬予. 予將親覽焉.”

주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정조는 주자를 존중하는 요령으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를 제시한다.

이는 앞서 제시된 질문이 주자의 권위를 상실시키기 위해서라거나, 주자의 설에 진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정조는 의문을 가지는 자세를 중시하되, 의문의 끝에는 반드시 의문이 해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았다. 정조가 제시한 질문은 주자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대학』에 대한 학설을 수험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주자의 해석이 어떠한 경학사적 맥락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마치 정조가 「책문_대학」을 통해 주자의 설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하는 듯 보이나, 궁극적으로 그는 주자의 설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²⁷⁾

이를 방증하듯 정조는 홍재전서에서 『대학』과 관련된 논의를 기록할 때 『대학장구』의 경1장과 전10장 체제를 철저히 따른다. 그리고 주자가 쓴 「대학서문」을 중시하여 그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한다. 정조는 오히려 주자의 설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와 회의 정신을 가지되²⁸⁾ 궁극적으로 논리적 보강을 바탕으로 주자의 학설이 옳다는 견해까지 이르는 것이 최종 귀결점이라고 본 것이다.

27) 尹愷의 『無名子集文稿冊九』, [殿策_大學]은 1792년(정조 16)에 식년문과에 병과 급제 답안이다. 이 답안은 정조가 제시한 질문에 대하여 주자의 설이 옳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조의 질문 의도가 주자학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자학에 대한 학자들의 수준을 가늠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자학의 모순이라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정조가 치밀한 보강작업을 하고자 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28) 이러한 ‘회의적 시각’ 혹은 ‘비판하였다.’는 관점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회의정신과 비판적 시각은 당시 주자학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논리를 개진해 가는 일반적인 방식 중 하나였을 것이다.

2) 장식의 호상학 계승과 특징

한편 정조는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에 대한 실례로 장식과 호상학과 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조는 장선공(장식)이 호문정(호안국)에게 유착하듯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장식이 호상학과를 일으킨 데에 빗대어 그러한 방식이 참으로 주자를 존숭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내가 세자로 있으면서부터 이 책을 탐독하여 낮 시간과 새벽녘에 깊이 탐구하고 연마한 것이 대체로 여러 해 되었다. 늘 상 이르기를, “경전을 존중하려면 먼저 주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주자를 존중하는 요령은 또한 의심이 없는 데서도 의문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다 보면 의문이 없어지게 되는 데에 있으니 비단 張宣公이 胡文定에게 유착하듯이 한 연후에 참으로 주자를 존중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²⁹⁾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장식이 호안국에게 유착하듯이 하는 태도일까? 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장식이 호상학과를 번창시킨 과정과 그 학문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상학과란 남송 理學의 한 학파이다. 북송의 주돈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정호·정이·이정을 거쳐 남송대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된 이학은 크게 두 갈래 계통으로 나뉜다. 하나는 양사-이통-주희로 이어지는 閩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좌-호안국-호굉 부자를 거쳐 장식으로 연결되는 湖湘學이다. 호상학과 의 대표인물인 호안국의 호가 호문정이므로 정조의 비유는 장식이 호상학과 의 학맥을 이은 것을 지칭한다. 호상학과 의

29)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惟予自在春邸, 潛心是篇, 晝漏晨鐘, 窮深研幾者, 蓋亦有年矣. 常謂欲尊經者, 當先知尊朱. 而尊朱之要, 又在於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不但如張宣公之留著胡文定, 然後儻庶幾乎真箇尊朱.”

발전과정에 있어서 호안국이 『춘추전』을 지어 호상학파의 사상적 특색과 학문적 풍격을 다졌다면, 호굉은 『지언』을 통해 가학을 잇고, 더 나아가 性과 天道라는 이학 주제를 탐구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호상학파가 번창하게 된 것은 장식에 의해서이다.

장식(張栻, 1133-1180)은 그의 아버지 장준으로부터 유가 사상을 교육받는다. 그러다 27세 때 호굉을 만나게 되었다. 호굉은 장식의 이학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장식 또한 그 가르침을 귀히 여긴다. 장식은 호굉의 『지언』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그 말은 간략하며 그 뜻은 정세하다. 참으로 도학의 요체요, 다스림의 거울이다.”³⁰⁾라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굉은 장식을 제자로 받아들인 그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장식은 1165년에 유공(劉珙, 1122~1178)의 초빙으로 악록서원에서 강의하며 운영을 맡게 된다. 배우는 사람들이 3년 동안 수천 명에 달하여 장식은 스승 호굉의 학문을 이어받은 호상학파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장식은 서원을 단순한 과거공부처가 아니라, 도를 전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인재 배출의 장소로 규정했다. 그리고 교육의 宗旨, 교육방법, 조직기능을 일신하여, 관학과도 구별되고 복송의 서원과도 다른 새로운 교육기구를 확립하게 되었다.³¹⁾ 장식이 중흥시킨 호상학파는 이학을 추승하고 경제치용을 강조하며 공행실천을 주장한다는 특징을 가지며,³²⁾ 이러한 호상학은 왕부지, 하장령, 증국번 등에 영향을 미쳤다. 호굉과 장식의 사상적 차이를 仁과 性의 언급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張栻, 『南軒集』卷40, 「胡子知言序」. “其言約,其義精. 誠道學之樞要制, 治之蓍龜也.”

31) 주한민 저, 박영순 역, 『호상학파와 악록서원』, 학교방, 2011, 131면.

32) 주한민 저, 박영순 역, 『호상학파와 악록서원』, 학교방, 2011, 377면.

① ‘仁’의 해석

장식은 공맹 유학과 이정 도학을 계승하며 이학의 도통을 잇는 역할을 해나가려 하였다. 따라서 위로는 공맹을, 아래로는 이정-호굉 사상을 정수로 삼아 그만의 사상체계를 정리해갔다.³³⁾

“인과 관련된 설의 전일의 뜻은 대개 그 본원을 미루는 것이다. 사람과 천지만물은 일체이다. 이 때문에 사랑은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 사람의 몸에 조금도 관통하지 않음이 없으며 조금도 사랑이 아닌 것이 없다.”³⁴⁾

장식에 있어서 인의 본질적인 함의는 ‘사람과 천지만물은 하나의 본원으로 이루어져 있다(人與天地萬物一體)’는 데에 있다.³⁵⁾ 이는 정호의 인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정호는 배우는 자는 우선 인을 인식해야 하며, 인은 만물과 혼연히 하나 됨을 이루는 것이라 말하였다.³⁶⁾ 인의 개념에 있어 장식은 정호의 사상에 호굉의 인 사상을 더하여 수용해 간다.

스승인 호굉은 장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인의 도량이 크면 반드시 대체를 볼 수 있고 그런 연후에야 자신의

33) 이연정, 「장식 ‘仁’에 대한 小考」, 『한국 철학논집』 제5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34) 張栻, 『南軒集』卷20, 「答朱元晦秘書」, “仁之說前日之意, 蓋以爲推原其本, 人與天地萬物一體也. 是以其愛無所不至, 猶人之身, 無尺寸之膚, 而不貫通, 則無尺寸之膚, 不愛也.”

35) 張栻, 『南軒集』卷20, 「答朱元晦秘書」, “仁之說前日之意, 蓋以爲推原其本, 人與天地萬物一體也.”

36) 程顥, 程頤, 『二程遺書』卷2, “學者須先識仁, 仁者, 渾然與物同體, 義禮知信皆仁也.”

편중됨을 살펴서 바름을 익숙하게 할 수 있다.³⁷⁾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늘이 되는 방법이다. 하늘의 이치가 다 밝혀질 수 있는 뒤에야 극기로 그것을 끝맺는다.³⁸⁾

사람이 그 마음을 다하면, 인을 더불어 말할 수 있고 마음이 그 이치를 궁구히 하면, 성을 더불어 말할 수 있고, 본성이 그 진실됨을 보존하면, 천명을 더불어 말할 수 있다. 경하면 남들이 그를 친애하고, 인하면 백성이 그를 사랑하며, 참되면 귀신이 그를 즐거워한다.³⁹⁾

호굉은 장식에게 仁을 확충시켜 대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 강조하였다. 호굉에 있어 인이란 천지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다.⁴⁰⁾ 따라서 인을 확충시켜 나가면 하늘과 일체가 된다고 말한다.⁴¹⁾ 따라서 천명을 세우는 것은 오직 인자만이 할 수 있다.⁴²⁾ 그에게 인이란 허황된 공언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인은 현실에 작용해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장식은 이러한 호굉의 실천적 仁 개념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호굉이 말하지 않은 사덕의 개념을 더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인설을 구축한다. 장식은 인간의 본성에 인의예지 사덕이 구비되어 있고 모든 선들은 이 사덕과 관계된다고 보았다.⁴³⁾

37) 胡宏, 『五峰集』卷2, 「與將敬夫」, “仁之道大, 須見大体, 然后可以察己之偏, 而習于正.”

38) 胡宏, 『五峰集』, 卷2, 「與將敬夫」, “仁也者, 人之所以爲天也. 須明得天理盡然后, 克己以終之.”

39) 胡宏, 『五峰集』卷4, 「知言」, “人盡其心, 則可與言仁矣. 心窮其理, 則可與言性矣. 性存其誠, 則可與言命矣. 敬則人親之, 仁則民愛之, 誠則鬼神享之.”

40) 胡宏, 『五峰集』卷4, 「知言」, “仁者, 天地之心也. 心不盡用, 君子而不仁者, 有矣.”

41) 이연장, 「장식 '인(仁)'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 철학논집』 제5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42) 胡宏, 『五峰集』, 「知言」. “誠, 天命, 中, 天性, 仁, 天心, 理性以立命, 唯仁者能之.”

43) 張栻, 『南軒集』卷18, 「仁說」. “性之中, 只有是四者, 万善, 皆管乎是焉.”

사람의 본성은 인의예지 사덕을 구비하고 있다. 그 사랑의 이치는 인이고, 떳떳함의 이치는 의이며, 사양함의 이치는 예이고 앓의 이치는 지이다. 이 네 가지는 비록 형체를 볼 수 없으나, 그 이치가 실로 여기에서 근본하니 여기에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⁴⁴⁾

그러니 이른바 사랑의 이치[仁]라고 하는 것은 곧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며, 그것은 생이 말미암는 바이다. 그러므로 인이 사덕의 으뜸이 되는 것이고 또 나머지를 겸하여 포섭한다고 할 수 있다. 오직 성속에 이 네 가지가 있으므로, 정으로 발현하면 측은 수오 시비 사양의 단서가 된다. 그러니 이른바 측은이 또한 일찍이 관통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성과 정이 체와 용이 되고, 심의 도가 성정을 주재하는 까닭이다.⁴⁵⁾

장식은 사람의 본성에 인의예지 사덕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다. 장식의 논리에서 이 사덕은 각각 사랑, 떳떳함, 사양함, 앓 이 네 가지 이치가 된다. 또한 사덕은性に 소속되나,情으로 발현되면 측은, 수오, 시비, 사양의 단서가 된다.

靜에 仁·義·禮·智의 體가 갖춰지고, 動에 측은·수오·사양·시비의 단서가 두루 미치니, 그 名義의 위치는 본래 서로 순서를 바꿈을 용납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로지 仁만이 그것을 미루어 정당함을 얻을 수 있기에 義가 되는 것이고, 仁만이 공경하고 사양하여 절도가 있을 수 있기에 禮가 있게 되는 것이며, 仁만이 知覺하여 여덟지 않을 수 있기에 智가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仁이 다른 것을 겸하고 관통할

44) 張栻, 『南軒集』卷18, 「仁說」. “人之性, 仁義禮智四德具焉. 其愛之理, 則仁也, 宜之理, 則義也, 讓之理, 則禮也, 知之理, 則智也. 是四者, 雖未形見, 而其理固根於此, 則體實具於此矣.”

45) 張栻, 『南軒集』卷18, 「仁說」. “而所謂愛之理者, 是乃天地生物之心, 而其所由生者也. 故仁爲四德之長, 而又可以兼包焉. 惟性之中, 有是四者, 故其發見於情, 則爲惻隱羞惡是非辭讓之端. 而所謂惻隱者, 亦未嘗不貫通焉, 此性情之, 所以爲體用, 而心之道, 則主乎性情者也.”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⁶⁾

장식은 仁이야말로 사덕 중 으뜸이라고 강조한다. 장식에게 인이란 사람의 마음이다.⁴⁷⁾ 따라서 배우는 자라면 언제나 인을 구하는 자세를 중시해야 한다. 또한 인을 행하는 것을 ‘극기의 도’로 삼아야 한다.⁴⁸⁾ 이렇듯 장식은 호굉이 강조한 바를 계승하여 인을 그저 추상적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행을 통해서 천지와 합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② 호굉의 성본론과 장식의 성선론

장식의 스승인 호굉은 性を 우주의 근본이자 만물의 존재 근거로 삼는다. 호굉은 성은 선악을 규명할 수 없는 中의 상태이며, 따라서 선악의 결정은 후천적인 행동양식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호굉에 있어서 성은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자, 선악의 개념을 초월한 영역이다. 호굉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은 천하의 대본이다.⁴⁹⁾

성이란 천지가 세워진 까닭이다.⁵⁰⁾

천리와 인욕은 체는 같고 용이 다르며, 체는 같고 정이 다르다.⁵¹⁾

46) 張栻, 『南軒集』 卷18. 「仁說」, “夫靜而仁義禮智之體具, 動而惻隱羞惡辭讓是非之端, 達其名義位置, 固不容相奪倫, 然而惟仁者, 爲能推之, 而得其宜是義之所存者也. 惟仁者爲能恭讓, 而有節是禮之所存者也. 惟仁者, 爲能知覺, 而不昧, 是智之所存者也. 此可見其兼能而貫通者矣. 是以孟子於仁統言之.”

47) 張栻, 『南軒集』 卷18. 「仁說」, “曰, 仁人心也, 亦猶在易乾坤四德, 而統言乾元坤元也.”

48) 張栻, 『南軒集』 卷18. 「仁說」, “然則, 學者, 其可不以求仁爲要, 而爲仁, 其可不以克己爲道乎!”

49) 胡宏, 『五峰集』, 卷4, 「知言」, “性, 天下之大本也.”

50) 胡宏, 『五峰集』, 卷4, 「知言」, “性也者, 天地之所以立也.”

호굉은 성을 선한 것으로 말하는 일반적 유가 논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천리와 인욕은 동일한 체를 가지나 그 용과 정에 의해 구분될 뿐이라 보았다. 이는 악을 상대하는 윤리 도덕적 의미에서의 성선을 부정하는 것이다.⁵²⁾ 그는 성의 광범함을 단순히 윤리적 호불호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호굉에 있어 성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본체의 존재이며, 천지의 정묘함을 내포하고 있어 말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성에 윤리적 개념을 덧입히는 것을 꺼렸다.⁵³⁾

그러나 장식은 이와는 달리 성은 선하며, 성선의 주요 내용으로 인의 예지를 들어 선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인의예지 사덕으로 보아 분명히 한다.⁵⁴⁾ 장식은 인의예지는 성에 구비되어 있고 그 단서가 되는 것을 측은, 수처, 사양, 시비심이라 보았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고 확충시킨 것으로 장식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성선의 논리는 대개 여기에서 근본하니, 문의를 상고해 보면 실로 문인의 기록에 맹자가 성선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요와 순을 언급하셨다.⁵⁵⁾

인간은 천지의 가운데에서 살아가나, 인의예지는 모두 성에 구비되어 있고, 그 이른바 인이라는 것은 곧 사랑의 이치가 존재하는 바이다.⁵⁶⁾

51) 胡宏, 『五峰集』 卷4, 「知言」, “天理人欲, 同體異用 同體異情.”

52) 연재홍, 「張栻의 心論 研究: 호상학과 주자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 67집, 한국중국학회 2013.

53) 그러나 이는 성무선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호굉이 말하는 성은 無善이 아니라 악과 대응되지 않는(惡對之) 개념을 말한다.

54) 張燕妮, 「張栻仁學思想」, 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년, p.24

55) 張栻, 『發已孟子說』 卷3. “性善之論, 蓋本於此, 以文義攷之, 實門人記錄, 以爲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也.”

56) 張栻, 『發已孟子說』 卷2. “人受天地之中以生, 仁義禮知皆具於其性, 而其所謂仁者, 乃愛之理之所存也.”

인간의 양심이 구비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이다.⁵⁷⁾

만약 이 사단이 없다면 또한 인간의 도가 아니다.⁵⁸⁾

사단은 만 가지 선에 관계하고, 인은 사단을 꿰고 있으며, 극기는 또한 인의 요지가 된다.⁵⁹⁾

이른바 선이란 대개 이 인의예지가 존재하는 바이다.⁶⁰⁾

사람에게 불선함이 있는 것은 모두 혈기의 하는 바이지 성 때문이 아니다.⁶¹⁾

장식은 맹자의 양심과 사단에 착안하여 性善이라는 명칭이 인간에게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 본래의 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장식의 성선 개념은 호굉이 제시하는 성의 개념과는 확실히 구분된다.

이 외에도 장식은 太極卽性的 본체론, 純粹至善의 인성론, 知行互發의 인식론이라는 이학사상을 제시하였다.⁶²⁾ 그러나 장식의 논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의 제시가 아니다. 앞서 맹자의 예를 통해 호굉의 논리를 수정한 것처럼, 장식은 호굉과 다른 논지를 전개할 때에는 반드시 성리학의 개념 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心論에 있어서도 장식은 호굉과 다른 입장을 보인다. 장식은 호굉의 논리에서 心과 性を 體와 用으로 구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

57) 張栻, 『發已孟子說』 卷2. “人之良心具是四者.”

58) 張栻, 『發已孟子說』 卷2. “若無是四端, 則亦非人之道矣.”

59) 張栻, 『發已孟子說』 卷2. “四端管乎萬善, 而仁則貫乎四端, 而克己者, 又所以爲仁之要也.”

60) 張栻, 『發已孟子說』 卷3. “所謂善者, 蓋以其仁義禮知之所存.”

61) 張栻, 『發已孟子說』 卷3. “人之有不善, 皆其血氣之所爲, 非性故也.”

62) 주한민 저, 박영순 역, 『호상학과 악록서원』, 학고방, 2011. 233-260면.

았다. 장식은 오히려 程伊川이 말한 “性이 드러남[顯現]이 있음으로부터 말하자면 心이고, 性이 움직임이 있음으로부터 말하자면 情이다”⁶³⁾라고 말한 것의 의미가 더욱 정밀하다고 주장하였다.⁶⁴⁾ 이것은 장식이 정이 천으로부터 입론의 근거를 모색하여 호상학의 근간인 性體心用의 체계를 옹호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⁶⁵⁾

정조는 장식이 호상학과를 계승한 것을 ‘유의이무의 무의이유의’의 정신이라 하여 주자를 존송하는 요령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장식의 호상학 계승과 학파 및 학설의 수용 및 발전, 그리고 변용 양상을 살펴, 정조가 추구한 주자학 존송의 방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조가 ‘장식이 호안국에게 유착하듯’ 하라고 한 말의 진의는 그저 무비판적 수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조가 말하는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정신은 첫째, 스승인 호굉의 학설을 철저히 이해하고, 둘째, 학파를 중흥시킬 정도로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며 동시에 후학을 양성한 자세, 셋째, 스승의 설과 자신의 설의 융합, 새로운 설의 창안 등을 통해 새로운 고민과 시도를 해 보는 자세 등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다만 스승의 설을 수정할 때에 장식은 반드시 그 근거를 공맹 혹은 程頤와 같은 권위 있는 성현의 논리를 끌어쓰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⁶⁶⁾

63) 程頤, 程頤, 『二程遺書』卷25, “稱性之善謂之道, 道與性一也, 以性之善如此, 故謂之性善, 性之本謂之命, 性之自然者謂之天, 自性之有形者謂之心, 自性之有動者謂之情, 凡此數者皆一也.”

64) 朱熹, 『晦庵集』권73, “栻曰, 心性分體用, 誠爲有病. 此若改作‘性不能不動動則情矣’一語, 亦未安. 不若伊川云‘自性之有形者, 謂之心, 自性之有動者謂之情’語意精密也.”

65) 연재흠, 「張栻의 心論 研究: 호상학과 주자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67집, 한국중국학회, 2013.

66) 이는 장식만의 방식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새로운 설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논지 전개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속대학혹문』에 나타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 정신

한편 정조가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한 또 다른 기록은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이하 「속대학혹문서」)에서도 보인다. 『속대학혹문』이란 조선 중기의 문신 이언적이 『大學章句補遺』를 지으며 주자의 『대학혹문』의 예에 따라 『대학장구』와 서차나 해석을 다르게 한 이유를 문답의 형식으로 풀이한 책이다. 즉, 주희가 『대학장구』를 개정하고 그에 대해 『대학혹문』을 통해 『대학장구』의 개정 이유를 부연한 것처럼, 이언적은 자신의 『대학장구보유』에 『혹문』을 짓고 이를 『속대학혹문』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남인은 갑술환국(1694년, 숙종 20) 이후 노론이 정권을 잡게 되어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다. 그러다 18세기 말, 이언적의 학문이 정조에 의해 주목받게 되며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이언적에 대한 정조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정조는 1781년(정조 5)과 1792년(정조 16)에 옥산서원으로 중앙관료를 보내 노론의 대표 서원인 송시열을 주향하는 화양서원의 사례에 준하여 이언적을 치제하도록 명했다. 1794년(정조 18)에는 옥산서원에서 빌려온 이언적의 『續大學或問』을 읽고 돌려보내면서, 「회재선생 ‘속대학혹문’의 서문에 제하여〔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라는 글을 직접 지어 옥산서원에 보내 이를 소장하게 하였다.⁶⁷⁾ 여기에서 정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④사람들이 항상 말할 적이면 반드시 ‘정자와 주자가 출현하고서야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밝혀졌다’고 하며, 후세의 학자들은 단지 그

67) 『正祖實錄』 卷39, 正祖 18年 3月 22日 己酉 1794年 清 乾隆 59年. ○先是, 閣臣李晚秀奉使嶺南, 取文純公李滉手簡, 文元公李彥迪『大學續或問』以進. 至是, 上題其卷首, 命藏于陶山, 玉山兩書院.

들은 바를 높일 따름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 심하기도 하구나. 그 느슨하게 방치하는 것을 즐기고 가까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함이어. 송나라의 정자와 주자가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을 천명하고 발휘시켰는데, 그 본령을 공정히 논하여 보면 바로 『대학』의 고본을 다시 정하는 데 달려 있었던 것이다.⁶⁸⁾

㉔정자와 주자 이후에 채청같은 여러 선비들이 가끔 정자와 주자의 훈고에 의문을 제기하며, 간편(簡編)의 차례를 정한 것에 대해 각기 견해를 달리하는 자도 6, 7家나 되는데, 선정 회재의 『대학장구보유』, 『속대학혹문』 역시 그중의 하나이다. 대저 성인이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 반드시 분발하기를 기다려서 식견이 열리도록 하는 것은 왜 그런가? 대개 그 입으로만 외고 귀로만 들어서 실제 마음에는 얻는 것이 없음을 싫어해서이다. 의심이 없는 데서도 의문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다 보면 의문이 없어지게 된다. 묻고 배우는 차례가 그런 것이다. 비록 정자나 주자처럼 동일한 목적을 위해 노력한 큰 유학자로서도 세 분이 모두 처음에는 정말로 같지 않았는데, 더구나 그보다 아래 수준의 사람이겠는가? 그런 연후에야 정주의 제사를 지내고 정주의 계보를 계승한 자가 반드시 균등하게 주자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알겠으니, 회재가 『대학』에 대해서 바야흐로 주자를 잘 배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⁹⁾

㉕에서 정조는 후세의 학자들이 정자와 주자를 찬양하면서도 그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는 태도를 개탄하였다. 그리고 정자와 주

68) 『弘齋全書』卷55, 「雜著二」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 “人有恒言, 必曰程朱出而經學明, 後之學者, 但尊其所聞而已, 而不知所以明之之功用, 甚矣. 其樂弛置而厭近思也. 有宋程朱氏, 闡揮經學, 夷攷其本領, 卽在於大學古本之更定.”

69) 『弘齋全書』卷55, 「雜著二」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 “程朱之後, 如蔡清諸儒, 往往起疑於程朱之訓, 所次簡編, 各異其見者, 復六七家, 而先正晦齋之『大學補遺』『續或問』, 亦其一也. 夫聖人教人, 必待憤悱而啓發, 何者? 蓋惡其口耳之無得於實心, 則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問學之序然也. 雖以程朱之同德大儒, 三本皆未始苟同, 況其下者乎? 然後知瓚享譜承者, 未必均有朱子之識解, 而先正之於『大學』, 方可謂善學朱子也歟.”

자가 경학을 창도하고, 『고본대학』을 개정한 점이 바로 정주의 뛰어난 점임을 밝힌다. 즉 정조는 조선의 대다수 학자가 정자와 주자의 학설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시선을 보내지만, 그것이 치밀한 논리적 사색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그저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한편 ㉔에서 정조는 회재가 『대학장구보유』를 지은 데 대하여 주자를 잘 배웠다고 극찬한다. 그런데 『대학장구보유』는 주자의 경1장, 전10장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송장을 경1장 말미로 이동시키는 등 다양한 개정의 시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정조는 주자의 설보다 회재의 설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정조는 ‘이정 형제와 주자도 처음에는 세 분이 같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아랫사람인 후인들의 설이야 당연히 주자의 설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즉, 주자 후에 나온 설은 주자의 설보다 아래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은 것이다. 따라서 정조가 회재의 태도를 칭찬한 것은 그의 논리적 치밀함이 주자를 뛰어넘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 보고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그 의문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자세에 대한 칭찬이라 할 수 있다.

주자 존숭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던 정조의 입장에서 주자의 설 외의 다른 설들은 주자보다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자학을 무비판적으로 외우기만 하는 것 또한 주자의 정신이 아니다. 주자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 하나하나를 곱씹고 따져, 왜 주자가 그러한 논지에 이르렀는지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정조는 이러한 과정에서 회재가 그러했던 것처럼,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자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

러나 정조는 주자와는 다른 결론을 내린 회재에 대하여 칭찬하면서도 그것이 곧 주자를 뛰어넘은 학설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록 정자나 주자처럼 동일한 목적을 위해 노력한 큰 유학자로서도 세 본이 모두 처음에는 정말로 같지 않았는데, 더구나 그보다 아래 수준의 사람이겠는가? 그런 연후에야 정주의 제사를 지내고 정주의 계보를 계승한 자가 반드시 균등하게 주자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알겠다'고 말한 것이다.

결국 정조는 이언적의 설이 주자와 동일하지 않은 것은, '그보다 아래 수준의 사람'의 한계라 보았다. 하지만 정조는 이러한 회재의 사고가 주자와 같지 않다는 점에 천착하여 '옳다' '그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 집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자설은 무조건 옳다는 無疑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거듭 읽어 그 사이에서 기존 논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有疑의 상태로 나아간 점을 높이 사 이언적의 태도를 극찬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주자학에서 벗어나는 사고가 용인된다는 의미일까? 이어지는 「속대학혹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내가 일찍이 구이지학이 번거롭게 일어나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라지고,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라지자 부정한 도가 熾盛해지는 것을 개탄스럽게 여겨, 공자와 맹자의 도를 배우는 선비들을 가르쳐 현명한 이를 추천하게 하고, 짐차로 물들어 가는 무리들을 성취시켜 격려하였다. 이에 선정이 편찬한 『大學鈔編』⁷⁰⁾의 심획을 가져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연구해 보니, 선정이 당시에 자세히 주의한 마음과 정밀하게 이해한 공부를 아직도 책 가운데에서 상상해 볼 수 있으니,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진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배우는 자들이 마음 쓰기를 모두 선정이 진실을 쌓고 힘쓰기를 오래 한 것과 같이한다면, 아무리 더욱 이치에 가까운 허무 적멸의 이단이라 하더

70) 문맥상 이언적의 『속대학혹문』을 말한다.

라도 변론을 하여 물리쳐서 환하게 여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더구나 서양 사학의 실상은 사람을 어리석게 현혹시키기에도 부족한데 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영남의 여러 유생들에게 부탁하노니, 선정의 심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 법을 관찰하는 방법이 돌아보건대 투철하게 탐구하고 정미한 경지에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힘쓰는 데 달려 있지 않겠는가. 마침 명을 받들고 떠나는 近侍가 있기에 촛불을 가져오게 하여 그 책에다 써서 돌려주면서 제향을 받드는 서원에 간직하도록 하였다.⁷¹⁾

©에서 정조는 이언적의 글이 허무적멸의 이단을 물리치고 서양의 사학에 현혹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정조는 주자학을 정밀하고 진실하게 이해하고자 힘쓴다면 불교나 서학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정조는 주자학의 논리와 개념 안에서 전개되는 의문 제기와 논의는 얼마든지 용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주자학을 벗어난 개념과 사상까지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주자학 내에서 허용되는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자세일까? 회재의 『대학장구보유』는 확실히 상당 부분 주자의 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때 『속대학혹문』에서는 『대학장구보유』의 개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정조가 용인하는 주자학적 사과의 경계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속대학혹문』의 내용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회재는 『대학장구』의 편차와 순서를 바꾸어 본래의 경1장과 전10장

71) 『弘齋全書』卷55, 「雜著二」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 “予嘗慨然於口耳煩而經學熄, 經學熄而邪道熾, 教鄒魯之士以賓興之, 就漸染之輩以激勵之, 于斯時也. 乃取先正大學鈔編之心畫, 得以潛心焉. 先正當日細心密理之工夫, 尚亦有以想見於卷中, 爲學固不當若是耶. 今之學者用心, 皆如先正之眞積力久, 雖虛寂之彌近理者, 何難乎辭而闕之廓如. 況西洋邪學之實, 不足愚人, 又何有焉. 寄語嶠南諸生, 欲學先正之心法, 伊其觀法之方, 顧不在於鞭辟近裏之工乎哉. 會有近侍銜命之行, 呼燭書其卷以還之, 俾藏俎豆之院.”

을 경1장과 전9장으로 줄여 『대학장구보유』를 만들었다. 이언적은 이 책을 통해 주희가 편집한 『대학장구』의 구조를 재편한다. 주희는 『대학』을 경 1장과 전 10장의 구조로 편집하고, 그중 제5장인 ‘격물치지장’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소위 ‘보망장’을 만들어 넣었다. 이언적은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여, 주희가 제4장으로 분류했던 청송장을 경 1장의 끝에 붙이고, 경 1장에 있던 ‘물유본말장’과 ‘지지이후장’을 내려서 전 4장에 넣었다. 그리고 ‘此謂知本’과 ‘此謂知之至也’를 합쳐서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 전 4장이라고 명명하였다. 이후는 주희의 장구와 같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주자의 『대학장구』 체제

經傳	要旨
經1章	三綱領八條目
傳1章	釋明明德
傳2章	釋新民
傳3章	釋止於至善
傳4章	釋本末
傳5章	釋格物致知之義今亡矣
傳6章	釋誠意
傳7章	釋正心修身
傳8章	釋修身齊家
傳9章	釋齊家治國
傳10章	釋治國平天下

표2. 회재의 『대학』 체제

경전	구성	요지
經1章	經1章 1절, 4절~7절, 傳4章	三綱領八條目
傳1章	傳1章	釋明明德
傳2章	傳2章	釋新民
傳3章	傳3章	釋止於至善
傳4章	經1章 3절, 2절, 傳5章 1절~2절	釋格物致知
傳5章	傳6章	釋誠意
傳6章	傳7章	釋正心修身

傳7章	傳8章	釋修身齊家
傳8章	傳9章	釋齊家治國
傳9章	傳10章	釋治國平天下

이렇게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 4장과 전 5장이 합쳐져서 전 4장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경 1장과 전 9장의 구조가 되어 주희의 장구보다 1장이 줄어들었다. 이언적은 자신이 지은 이 책의 서문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나타내어 주희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여기에서 취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책 뒤에 『속대학훈문』을 싣고, 『대학장구보유』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회재는 『속대학훈문』에서 자신이 『대학장구』의 순서를 바꾼 이유와 편장을 줄인 이유를 문답의 형식을 통해 여섯 개 조항으로 설명하였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혹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대학』 한편은 정자께서 비로소 존신하여 그것을 표장한 것이고, 또 이를 위해 간편의 순서를 정하여 그 귀취를 발휘하신 것이다. 주자가 장구를 저술하게 되어서는 비록 정자의 뜻에 근본을 두었으나, 착간을 다시 정한 데에 이르러서는 정자의 견해와 다른 점이 있으니 어찌서인가?”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천하의 이치가 무궁하니, 비록 성인이라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으니, 그러므로 성인이 아직 발명하지 못한 바를 후세의 성인이 발명함이 있고, 전현이 아직 말하지 못한 바를 후세의 성인이 말함이 있다. 정자와 주자의 학문은 실로 알고 깊음과 높고 낮음을 말할 수 없으나, 보이신 바가 상세하고 간략하거나 다르고 같음이 없을 수 없다. 정자가 대학에 있어서 표장하고 발휘하였어도 끝내지 못한 점이 있어, 주자가 다시 참고하여 별도로 차서를 지어서 그 뜻을 다하셨으니, 모두 도를 밝히고 가르침을 세운 바이다. 두 분의 견해가 비록 간혹 같지 않음이 있으나,

하나의 법도가 됨에 해가 없다.”⁷²⁾

② 혹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청송 한 절이 정현의 예기 대학편에 서는 착오로 ‘지어신’ 아래에 있었는데, 정자가 올려서 경문의 아래에 두었고, 주자가 또 이것을 전문 3장의 뒤에 두어서, 별도로 한 장을 만들어 본말의 뜻을 해석하였다. 그대가 주자의 설을 미진하다고 여겨서 정자의 옛 설을 회복하고자 한 것은 어째서인가?”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고인이 글을 지으실 적에, 반드시 옛 성현의 말씀을 취하여 곁어로 삼으셨다. 예컨대 공자의 제자가 『논어』 20장을 서술하면서 요순의 말로써 종결지어서 성인의 학문의 유래가 있음을 밝혔으며, 자사가 『중용』을 지으실 때에도 장구의 첫머리나, 장구의 말에 대부분 부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것을 증거로 활용하였다. 끝장에 이르러서는 또 시경과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종결지었으니, 중용 한편의 요지가 모두 부자의 전수하신 바에서 근본함을 밝힌 것이다.”⁷³⁾

③ 혹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격물치지의 배우는 자가 최초로 공을 들이는 곳인데 그 글에 전문이 결실되었으므로 주자가 대개 일찍이 본받아서 만들고자 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다가 드디어 정자의 뜻을 취하여 그것을 보충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대가 경문 가운데에서 두 절을 취하여 이 장의 결실을 보충하니 그것은 또한 어디에서 근거한 바인가?”

72) 李彥迪, 『續大學或問』. “『或問』, 『大學』一篇, 程子, 始尊信而表章之, 又爲之次其簡編, 發其歸趣, 及朱子著章句, 雖本程子之意, 而至於更定錯簡, 則有異於程子之見, 何也?”, 曰“天下之理, 無窮, 雖聖人, 有不能盡者, 故有前聖之所未發而後聖發之者, 有前賢之所未言而後賢言之者, 程朱之學, 固無淺深高下之可言, 而所見不能無詳略異同, 程子於大學, 表章發揮而有未竟, 朱子更加參考而別爲序次, 以盡其義, 皆所以明道而立教也, 二子之見, 雖間有不同, 而不害其爲一揆也.”

73) 李彥迪, 『續大學或問』. “或問聽訟一節, 鄭本誤在止於信下, 程子進而置之經文之下, 朱子又置之傳三章之後, 別爲一章, 以爲釋本末之義, 子乃以朱子之說, 爲未盡而欲復程子之舊, 何也?”, 曰“古人述作, 必取古昔聖賢之言, 以結之, 如孔門弟子, 述論語二十篇, 終之以堯舜之言, 以明聖學之淵源有自來也, 子思作中庸, 或於章首, 或於章末, 多引夫子之言, 以證之, 至於卒章, 又引詩及夫子之言, 以終之, 所以明一篇之旨, 皆本於夫子之所傳也.”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정자가 격물이라는 것은 도에 나아가는 시작이니, 격물하고자 생각했다면, 실로 이미 도에 가까울 것이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치지의 요체는 마땅히 지선의 소재를 아는 것이니, 마치 아버지는 자애에 머무르고, 자식은 효에 머무르는 류와 같다고 하였다. 주자도 또지지(知止)라고 한 것은 사물이 이르고, 얹어 지극해져서 천하의 일에 모두 그 지선의 소재를 아는 것이 있음을 말하였으니, 정자와 주자도 이 두 절로써 격물과 치지의 뜻을 삼은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다만 그 지지라고 한 것이 지어지선의 아래에 속하였기 때문에 선유들이 그것이 경문이 된다고 생각하여 감히 옮겨 바꾸지 못한 것이다. 생각건대 이 도 절을 삼강령 팔조목의 사이에 두면, 깊고 긴절한 의미가 없고, 그것을 옮겨 격물치지장의 글로 삼으면 그 포함되는 의미가 넓고 경문에도 흠이 없어지고 전의 뜻에도 보충됨이 있어, 반복하여 참완(參玩)하면 말이 만족스럽고 의리가 명백해져 의심할 것이 없어지니, 비록 회암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또한 일부는 여기에서 취함이 있을 것이다.”⁷⁴⁾

이언적은 『속대학혹문』에서 자신의 편차 개정의 이유를 문답 형식으로 변호하였다. 그런데 이 문답은 자신의 논리를 개진하는 데에 있어서 그저 자신의 생각이 더 논리적이거나, 이치에 합당하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언적은 먼저 ①에서는 정자의 설을 주자가 고친 점을 언급하며, 비록 성인이라도 천하의 이치를 다 알거나 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자의 설을 주자가 고친 것과 같이 비록 성인의 설이라 할지

74) 李彥迪, 『續大學或問』. “或問, 格物致知, 學者最初用功之地, 而其文, 專闕, 朱子, 蓋嘗欲效而爲之, 而竟不能成, 遂取程子之意, 以補之, 今子乃取經文中兩節, 以補此章之闕, 其亦何所據耶?”, 曰“程子, 言格物者, 適道之始, 思欲格物, 則固已近道矣. 又曰致知之要, 當知至善之所在, 如父止於慈, 子止於孝之類, 朱子, 又言知止云者, 物格知至, 而於天下之事, 皆有以知其至善之所在也, 則程朱, 亦以此兩節, 爲格物致知之意, 明矣. 但其知止云者, 屬於止於至善之下, 故, 先儒, 意其爲經文, 而不敢移易也. 惟此兩節, 置於三綱領八條目之間, 無甚緊切意味, 而移之爲格物致知章之文, 其意之所包, 其廣, 無欠於經文, 而有補於傳義, 反覆參玩, 辭足義明, 無可疑者, 雖晦菴復起, 亦或有取於斯矣.”

라도 때로 후인들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는 언급을 통해, 이언적 자신 또한 주자의 설을 수정하는 데에 있어 고의로 참람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②에서부터는 구체적으로 『대학장구보유』에서 개정한 내용에 대하여 왜 이러한 방식으로 개정했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언적은 청송 이하의 1절에 대하여 정현과 주자가 순서를 달리하였던 부분에 대해 자신이 주자의 설이 아니라 정현의 설을 따른 이유로, 옛사람들이 글을 쓰는 습관에 있어서 반드시 옛 성현의 말씀을 취하여 곁어로 삼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은 옛 사람들이 글을 짓던 방식 및 정자가 편을 정했던 방법에 따라 청송장을 경문 바로 아래로 옮겨 글의 뜻을 더욱 긴요하고 절실하며 의미심장하게 바꾸었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③에서 이언적은 격물치지보망장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는 주자와는 달리 경문에 있던 두 구절을 격물치지장의 내용일 것이라 생각하여 경문에서 두 절을 취해 전문으로 삼는다. 그리고 정자와 주자도 이 두 절로 격물과 치지의 뜻을 삼았을 것이나, 경문을 감히 옮겨 바꾸지 못한 것뿐이라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설을 주자가 본다면 주자 또한 이를 취할 만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장구보유』와 『속대학혹문』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초점은 이언적의 설이 주자의 설과 얼마나 다른 의견을 개진하였는가를 향해 있었다.⁷⁵⁾ 물론 이는 조선 유학자들이 주자학을 묵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언적의 설을 주자학에서 벗어나는 시각으로 평가하려는 논리가 우세하였다.

그런데 이언적은 여섯 개 조목 모두, 자신이 주자의 논리를 고친 근거를 주자성리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이정형제와 공자, 맹자가 이미 언

75) 주석 5) 참조.

급하였던 내용에서 찾고 증거로 활용하였다. 또한 옛사람들의 글 짓는 습관에서 근거를 찾기도 하고, 성인이라도 다 알지 못하거나, 모두 다 말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며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정자와 주자도 설이 각기 달랐다는 예를 제시하여 이언적의 시도가 성현들 사이에서도 이미 시도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조는 이러한 회재의 『속대학혹문』에 대하여 주자를 잘 배웠다고 극찬하였는데, 이렇게 보면 ‘무의이유의 유의의무의’의 의미는 더욱 명료해진다. 이는 바로 기존의 설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자신만의 사색과 숙고를 통해 논리를 개진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점은 자신의 새로운 논리라는 것도 결코 주자학을 벗어난 논의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주자는 스스로 사서의 체계를 새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주석을 작업했을 뿐만 아니라, 어류와 서신, 그 외 강의록 등 다양한 저서와 글을 남겼다. 방대한 글을 남겼던 탓에 주자의 논리 체계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때로 변화하기도 하였고,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치 상반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비춰질 때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에서는 새로운 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자의 설과 다른 내용일지라도 논리적 근거가 주자학의 언어 속에서 발굴된 것이라면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언적은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언적은 『속대학혹문』에서 자신의 『대학장구』 개정이 주자학적 논의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맹을 잘 이어서 주자학의 논리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였음을 변증하였다. 따라서 정조 또한 주자학의 개념을 근거로 주자의 설을 수정하는 회재의 태도를 ‘주자를 잘 배웠다’고 칭찬할 수 있었다.

3. 결론

지금까지 주자학에 대하여 정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려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정조는 주자를 존송하는 요령이자, 주자를 잘 배운 자세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장식이 호상학을 계승한 것과 이언적이 『속대학혹문』을 지은 점을 제시하였다.

장식은 자신의 스승인 호굉의 설을 계승하고, 제자 양성, 학문의 심화 발전 등을 통해 호상학을 널리 알렸으나, 호굉의 설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호굉이 성의 윤리적 선악 개념을 부정한데 반해 장식은 성선을 주장하여 호굉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장식은 맹자와 정이천 등 선현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언적은 주자의 『대학장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자가 왜 『대학장구』를 개정했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대학장구보유』를 쓰고, 개정 이유로 『속대학혹문』을 서술하였다. 그런데 『속대학혹문』에 나타나는 이언적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공맹, 이정과 주자의 논리가 그대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본질은 바로 비판적 사고와 회의 정신이다. 정조는 주자학을 정학으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묵수적으로 받아들이기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주자학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학문 경향으로 나아가려 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회의 정신을 가지고 주자설 전반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학자들에게도 주자설에 대한 깊이 있는 의문 제기를 바랐다. 정조는 학자들이 주자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자가 이러한 논리를 개진한 것인지 스스로 묻고 따져 고찰해 보기를 바랐다. 그는 이러한 회의 정신과 비판 의식 속에서 주자학이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물론 주자설에 의문을 제기하다 보면 때로 주자가 제시한 말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조는 그것이 주자학의 언어 속에서 이론적 견고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주자가 강조한 학문 태도의 본질이다.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를 강조하는 정조의 주자학 학습법은 주자가 『근사록』에서 언급한 致知의 구체적 학문 태도에 근간을 둔 것이다.

하지만 결론 도달에 있어 주자학을 벗어난 이론을 용납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만약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려 한다면 그 근거는 반드시 주자학 안에서 설명되어야 했다. 장식은 호광의 설을 부정하는 데 있어 맹자와 이정의 설을 근거로 들었다. 이언적 또한 『속대학혹문』 전반을 통해 자신이 새롭게 개정한 『대학』의 체제는 자신의 설이라기 보다는 성현들의 설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조 또한 이러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 정신을 심분 활용하여 「책문_대학」이나 『경사강의』를 통해 상당히 예리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언적과는 달리 주자를 넘어서는 새로운 설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단지 주자설이 보다 정교해지도록 논리적 이해를 보강할 뿐이다. 이는 주자를 온전히 이해하였다는 자신감과 주자설의 완벽성에 대한 확신의 교집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왕이라는 신분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검토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文淵閣 四庫全書DB本]

胡宏, 『五峰集』

程顥, 程頤, 『二程遺書』

朱熹, 『大學章句』

朱熹, 『大學或問』

朱熹, 呂祖謙, 『近思錄』

張栻, 『南軒集』

張栻, 『癸巳孟子說』

『朱子全書』

[韓國古典綜合DB本]

正祖, 『弘齋全書』

『正祖實錄』

〈연구논저〉

강지은 지음, 이혜인 옮김(2021), 『새로 쓰는 17세기 조선유학사』, 푸른역사.

이연적 지, 조창열 역(2008), 『大學章句補遺, 속대학혹문』, 한국학술정보.

주희 지음, 최석기 옮김(2014), 『대학』, 한길사.

주한민 지, 박영순 역(2011), 『호상학과와 악록서원』, 학교방.

강문식(2020), 「정조의 朱子學 연구와 『朱書百選』 편찬」, 『한국문화』 제89-62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보승(2019), 「회재 이연적의 『대학장구』 편차 개정과 16-17세기 조선 학계의 찬반론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5집, 한국유교학회.

권오영(2020), 「正祖의 朱子學과 정치이념」, 『진단학보』 제135집, 진단학회.

김진성(2011), 「晦齋 『大學章句補遺』의 思想的 特徵」, 『孔子學』 제20집, 한국공자학회.

박경남(2013), 「한국문집과 한학연구: 한중 문화의 교차적 이해(1): 청과 조선의

- 어제집 편찬과 성조, 정조의 『대학』 논의, 『민족문화연구』 제61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백민정(2009), 「정조와 다산의 『대학』에 관한 철학적 입장 비교: 『경사강의_대학』 『증진추록』 및 『희정당대학강의』 『대학공의』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제126집, 퇴계학연구원.
- 백민정(2010), 「경사강의를 통해 본 정조시대 학문적 논쟁의 양상 사서에 관한 정조와 학인들의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16집, 한국국학진흥원.
- 서근식(2009), 「晦齋 李彦迪의 『大學』 해석에 관한 연구, 『東洋古典研究』 제34집, 동양고전학회.
- 소현성(2001), 「張栻哲學思想研究, 北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소현성(2004), 「장식(張栻)의 중화설(中和說), 『동양철학』 제22집.
- 연재흠(2013), 「장식의 心論 研究: 호상학과 주자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67집, 한국중국학회.
- 이동희(2008), 李彦迪의 朱子 『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적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한국유교학회.
- 이연정(2018), 「남軒(南軒)장식(張栻)의 수양론 연구 -호상학과 주자학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5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 이연정(2017), 「장식 '인(仁)'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철학논집』 제5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 이지경(1997), 「晦齋 李彦迪의 「大學章句補遺」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16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지경(2002), 「朱子の 『大學章句』 編次 해석에 관한 이언적의 비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2집,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조창열(2005), 「주자, 회재(朱子, 晦齋)의 『대학』 주석 비교 연구, 『漢文古典研究』 제11집, 한국한문고전학회(구.정신한문학회).
- 한형조(2000), 「정조의 학문관: 주자학의 비판적 복고, 『장서각』 제3-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 戴景賢(2018), 「論南宋湖湘學脈之形成與其發展, 『中國文化』 第四十, 八期.
- 蘇炫盛(2016), 「張南軒의 性論, 『蜀學』 第十一輯.
- 鐘雅琮(2014), 「張栻對胡宏思想的傳承及調整, 『孔子研究』.
- 任仁仁(2018), 「張栻生平及其往來書信論析,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楊世文(2016),「張栻的治國理政思想及現實意義 - 以『論語解』爲中心的考察」,『蜀學』第十一輯.
- 王麗梅(2001),「張栻哲學思想研究」,『湘潭大學 碩士學位論文』.
- 王鳳賢(2017),「胡宏、張栻的“性本論”倫理思想」,『浙江學刊』.
- 姜海軍(2016),「胡宏的經學詮釋及其思想探析」,『儒家典籍與思想研究』第八輯,北京大學出版社.
- 張燕妮(2013),「張栻仁學思想」,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鐘雅琮(2014),「張栻對胡宏思想的傳承及調整」,『孔子研究』.

누리집

한국경학자료시스템DB: koco.skku.edu

A Study on the Method of King Jeongjo's Studying Confucianism Bible

Lee, Si-yeon*

King Jeongjo, the 22nd king of Joseon, presented an attitude of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At first, even if there is no doubt, questions arise, and at some point all questions are solved as you continue to solve them with questions.)” as a way to learn Zhu-xi to cope with the new ideological influx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cademic discussions on whether King Jeongjo uncritically respected “Neo-Confucianism” raised some other theories, or at what other points he stood at, are still divided. Accordingly, it was intended to investigate King Jeongjo's specific position and academic attitude toward “Neo-Confucianism” by tracking the intentions of the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that King Jeongjo wanted to say. It is twice that King Jeongjo mentioned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within 『Hongjejeonseo』. The first is the part that emphasized through “「ask for countermeasures」” that “Zhang-shu(張栻) should be a as if it were adhered to Hu-anguo(胡安國) as a trick to respect Zhu-xi.” The second is the preface to Hojae's work “『A sequel to ask a question for great literature』,” praising Hojae's achievements for learning Zhu-xi well and doing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According to the consideration, King Jeongjo emphasized the attitude of questioning, but at the end of the question, there was a point where the question was necessarily resolved. Jeongjo's question found in 『ask for countermeasures』 or 『Lectures on scriptures and history』 was not a departure from Neo-Confucianism, but a process of deeper

* East Asian Studies at Sungkyunkwan University / E-mail: ttyuuii12@naver.com

understanding of the Zhu-xi's theory. Therefore, Jeongjo's spirit of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is an academic attitude inherited from Zhu-xi, and even if there is no question at first, if you continue to study, you will be asked questions one after another, and if you continue to ask questions one by one, all questions will be resolved. At this tim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ogic should be supported within the premise of Confucianism, not accepting new opinions outside of Neo-Confucianism. On the other hand, Jeongjo also has a very keen attitude to asking questions, but he does not present a new theory, which may be an intersection of confidence that he fully understood Zhu-xi and the perfection of the Zhu-xi theory, or an inevitable choice considering the status and political situation of the king.

Key Words

king jeongjo, zhuxi, the great learning, ZhangShi, HuXiangXuePai

논문접수일: 2022. 1. 19, 심사완료일: 2022. 6. 28, 게재확정일: 2022. 6. 30
--

『논어집해』 양설병존 양상 연구

최시정 *

-
1. 서론
 2. 『논어집해』의 양설병존 양상
 - 1) 道千乘之國章
 - 2) 君子不重章
 - 3) 今之孝者章
 - 4) 由也好勇章
 - 5) 子見南子章
 - 6) 回也其庶乎章
 - 7) 鄉原章
 3. 결론
-

■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하안의 『논어집해』 등 4대 주석서를 통해 주석서에 보이는 양설병존 현상을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해당 구절을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논어집해』의 양설병존 7구절을 중심으로 후대의 주석서인 『논어의소』, 『논어주소』, 『논어집주』와 추가로 Arthur Waley(1938)와 D. C. Lau(1979)의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 어떤 변화 과정을 보였는지를 살펴보았다.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 양설병존 7구절이 아닌 전체적인 해석학적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 신도중 교사 / E-mail: sijeong82@hanmail.net

비교를 통해 『논어』 텍스트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兩說並存, 『The Analects of Confucius』, 『論語集解』, 『論語義疏』, 『論語注疏』, 『論語集註』, 何晏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고는 何晏의 『論語集解』 등 4대 주석서를 통해 주석서에 보이는 兩說並存 현상을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양설병존이란 주석자가 기존의 여러 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알 수 없거나 모두 옳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남겨둔 것을 말한다.

원서가 쓰인 시대와 주석이 쓰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원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풍우란¹⁾의 “역사”와 “쓰인 역사”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풍우란은 사건 자체는 역사 혹은 객관적 역사라고 이름할 수 있고, 사건의 기술은 “쓰인 역사” 혹은 주관적 역사라고 이름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원작자/원서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객관적 “『논어』”가 있다면 이를 풀이한 주석가의 “쓰인 『논어』”가 있다. 막스 노르다우에 따르면, ‘객관적 실상’과 ‘쓰인 역사’의 관계는 바로 칸트가 말한 “물자체”와 ‘인간의 인식’과의 관계와 같다. ‘쓰인 역사’는 영원히 실제 역사와 상합할 수 없다²⁾고 했듯이 주석가는 원의미의 “『논어』”

1) 풍우란, 『중국철학사 상』, 까치글방, 2009.

2) 막스 노르다우, 『역사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p.12.

와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한비자가 말하기를 “공자나 목자나 다 같이 요순을 강론하지만, 취사선택한 것이 다르다. 그러나 각자는 요순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주장한다. 요순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장차 누구로 하여금 유목의 진실을 가리게 하랴?”³⁾고 했으니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공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 무엇이 옳은지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결국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다양한 주석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기존의 견해가 여러 가지 있고 또 그 중 한 가지 설로 확정짓지 못한다면 주석자는 여러 견해를 동시에 소개하고 모두 남겨두기도 한다. 이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속이지 않으려는 진지한 자세로부터 나온 것이다. 공자 역시 “군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고) 빼놓는다.”〔君子於其所不知，蓋闕如也。〕⁴⁾라고 말하였는데, 이곳의 “빼놓는다”라는 말이 학문을 대하는 학자의 진지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 주석자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확정적인 결론을 유보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음을 밝히는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 가령 “어느 것이 옳은지 아직은 모르겠다”〔未知(詳)孰是〕, “이를 써서 후대의 뛰어난 사람을 기다린다”〔(書此以)俟後之賢者/人〕 등이 기존의 견해 중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방식이다.

『논어집해』 「서」를 보면 “앞 시대에는 스승의 견해를 진수받아 비록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해설을 달지 않았다. 이후에는 그러한 사항에 해설을 달게 되어 지금에 이르러 많아졌다. 보는 바가 같지 않지만 각기 득실이 있어 지금 여러 학자들의 좋은 점만을 모아 그들의 성명을 기록

3) 『한비자』, “孔子墨子俱道堯舜，而取舍不同，皆自謂真堯舜。堯舜不復生，將誰使定儒墨之誠乎?”

4) 『논어(論語)』 「자로(子路)」.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꾸어 『논어집해』라 이름하였다.”라고 되어있다. 『논어집해』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출발하여 한·위의 공안국, 포함, 마옹, 정현, 왕숙, 주생렬, 진군과 같은 여러 학자의 주석 중에서 좋은 것을 모으고 여기에 하안이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덧붙여 만들어 졌다. 그런데 이 책에서 하안 스스로 한 가지 뜻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두 가지 견해를 남겨둔 경우를 7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양설병존 현상은 대부분의 주석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논어』의 대표적인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송나라 주희의 『논어집주』에서도 32개의 양설병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하안의 『논어집해』는 선진시기와 가장 가까운 한나라의 주석들을 모아 위나라 때에 저술된 것이어서, 현존하는 주석서 중에서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가장 가깝고 완비된 주석서라고 할 수 있다. 『논어집주』에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학계를 생각할 때 좀 더 다양한 시각을 위해서든, 집해와 집주의 가치를 더 잘 알기 위해서든 『논어집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어집해』에 대해 국내에서 연구된 내용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 『논어집해』의 양설병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단지 양설병존이 나타나는 구절의 상세한 이해뿐만 아니라 『논어집해』 전체에 대한 이해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또한 『논어집해』에서 양설을 모두 남겨둔 구절이 후대의 주석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는 『논어집해』가 후대에 수용되고 전승되는 양상을 살피는 것임과 동시에 『논어집해』의 특징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다.

본고는 먼저 『논어집해』의 양설병존이 보이는 7구절에 대해 어떤 두 가지 견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 구절에 대하여 후대의 주석서인 『논어 의소』, 『논어주소』, 『논어집주』에서의 해설을 통해 『논어집해』에 남겨

진 두 가지 견해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Arthur Waley(1938)와 D. C. Lau(1979)의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기존연구

양설병존 현상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논어집해』에 대한 연구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논어집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경향과 양설병존 현상에 대해 단편적으로 언급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용재(2009~2010)의 “『논어집해』와 『논어집주』의 주석 비교를 통해 본 『논어』경문의 이해 [1]~[3]”라는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논어집해』와 『논어집주』 주석 비교를 해석학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는데, 『논어집해』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논어』 경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기 위한 방식으로 주석서 중의 하나인 『논어집해』를 다루었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논어집해』와 양설병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재석(2003)의 “고일총서본 『논어집해』 훈고 중의 연합식복합어”는 『논어집해』의 해석방법이나 문헌학적 연구이기보다는 복합어 양상 연구라는 언어학적인 연구에 속하는 것이다. 또 김영호(2010)는 『논어의 주석과 해석학』에서 일부 내용을 『논어집해』에 할애하였지만 이는 개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어서 깊이 있는 연구라고 할 수는 없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최초의 주석서로 『논어집해』의 가치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논어집해』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강재

(2002~2006)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논어집해』를 완역하여 학술지에 연재하였고 정태현 등(2013~2015)이 송대 형병(邢昺)의 『논어주소』를 완역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논어집해』가 완역되었는데, 이것이 향후 국내의 『논어집해』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음으로 국외의 연구 동향을 『논어집해』에 대한 연구와 양설병존에 대한 연구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는 『논어집해』에 대한 연구인데, 주로 『논어집해』의 주석이 갖는 특징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송강(2005)은, 『논어집해』의 출현 원인과 배경에는 육조논어학과 유학의 여러 상황이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하안이 이부상서로서 관리 선발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논어집해』가 관리의 선발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논어집해』의 출현은 학술사적으로 양한 시대 학술이 신학(神學)과 참위의 영향을 받은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였다. 『논어집해』와 관리 선발과의 관련을 언급한 점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저우창메이(2005)는, 『논어집해』의 판본 원류와 판본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연구하였는데, 이를 당대, 송명대, 청대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 그는 『논어집해』가 일본을 통해 전해지는 상황을 밝히면서 판본의 소실과 보존 등을 살피고 중요한 판본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판본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상세하여 『논어집해』의 문헌학적 고찰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장창성(2006)은, 『논어집해』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 성과를 담고 있는데, 『논어집해』의 편찬자 하안의 사상과 시대적 특징에 근거하여 이 책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책에 인용된 학자별로 성격과 주석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논어집해』에 인용된 공안국의 주는 역대로

후인들이 그의 이름을 의탁하여 쓴 것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논어집해』의 현학적 기풍은 『주역』의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고, 일본으로 건너가 청말에 다시 중국으로 유입된 일본 정평본(正平本)이 판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주장한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논어집해』 전반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논어집해』에 인용된 학자들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석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밖에 『논어집해』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위진현학과의 관련 속에서 언급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위진현학의 배경 속에서 논어학을 연구하면서 『논어집해』를 언급한 뒤편(2006), 『논어집해』의 한계와 긍정적 영향을 연구한 황희이, 강상원(2006), 하안의 주의 훈석 방법과 언어 등을 통해 주석의 특징과 한계점을 언급한 송강(2008) 등의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차오슈옌(2009)은, 정현의 주와 하안의 주를 대조하여 정현의 주가 지향하는 점과 『논어집해』의 체계를 분석하여 양자 사이에 상반된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어집해』를 고주로 주희의 주석을 신주로 말하지만, 정현의 주와 하안의 주는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 정현이 주석 중에서 그 자신만의 경학 체계를 세웠다고 한다면 『논어집해』는 경학적인 요소를 배제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논문은 『논어집해』가 연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초점은 당초본 등을 통해 근래에 알려진 정현 주의 특징을 밝히려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쉬샹첸, 옌춘신(2009)은, 『논어집해』가 전인의 견해를 모아서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하안 자신의 생각에 따라 『논어』를 해석하고 전인의 견해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옌춘신(2010)에서 발전된 형태로 제시되는데, 『논어집해』는 기본은 훈고를 중시하는

한주 계통에 속하지만 의미풀이를 중시하는 위진 신학풍도 적지 않아서 양한경학에서 위진현학으로 변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논어집해』의 경학사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장즈밍(2010)은, 언어 코퍼스 자료에 근거하여 『논어집해』와 『논어집주』의 훈고 자료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언어학적 각도에서 두 주석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논어』에 보이는 자주를 연구하고 두 주석에서 어휘 의미를 풀이하는 다른 점과 원인 등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주석의 비교 연구에 있어서 『논어』의 동사나 기타 품사 어휘에 대한 주석을 비교 분석하는 등 언어학적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쉬지편(2011)은, 『논어집해』에서 하안은 때로 다른 사람의 주석을 채용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곳곳에서 현언을 섞어 넣었으며 한학을 바꾸어 현학을 개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하안이 『논어집해』에서 유가사상 외에 역학사상을 넣었으며 『노자』, 『장자』와 『주역』이 흥성하던 당시의 기풍의 영향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현학사상을 발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논어집해』에 포함된 현학적 기풍의 근원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논어집해』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것이다.

장진후이(2012)는, 『논어집해』 중 하안의 주석이 갖고 있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귀납해 내었다. 먼저 해석의 원칙에 있어서 여러 견해를 두루 모으고 그 사이에 자신의 견해를 넣었다는 점,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 어휘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면서도 문장의 뜻을 중시하였다는 점, 사상적 측면에 있어서 현학사상으로 경전을 해석하여 현학과 유학이 함께 드러난다는 점, 해석하는 언어에 있어서 간결하고 정밀하되 어휘의

뜻은 풍부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만 이 글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어집해』의 주석 특징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해 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용어나 사례 등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사이즈하오(2015)는, 하안의 『논어집해』의 특징을 탐구하여 혼고를 중시하는 경학적 경향과 의리 탐구를 행하는 현학적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논어집해』가 경학의 실제적인 쓰임을 강조하는 해석의 시각을 계승하고, 한편으로는 본체론에 입각한 천인합일이라는 현학의 시각을 열었기에 『논어집해』가 경과 현의 사이에 있는 주석서라는 것이다. 이 글은 『논어집해』에서 발견되는 경학과 현학적 경향을 일반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어집해』의 전반적인 연구는 대체로 이 책이 갖는 특징과 가치에 관한 것이 대다수이며 위진현학과의 관련 속에서 『논어집해』와 하안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차오슈옌(2009)의 정현 주와 관련하여 연구된 것이나 장즈밍(2010)의 언어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독특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논어집해』에 대한 연구는 표면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논어집해』에 대한 다각도의 깊은 연구는 거의 없었다.

둘째는 『논어집해』의 양설병존에 관련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전면적으로 양설병존을 다룬 것은 없지만, 양설병존에 관심을 기울이고 언급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탕밍구이(2004)는, 『논어집해』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부분을 할애하여 양설병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안은 전인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좋은 견해 하나를 선택하되 자신의 설명이나 평론을 가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두 가지 견해를 함께 제시한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학이」의 “도천승지국장”과 「위정」의 “금지효자장”, 「양화(陽貨)」의 “향

원장” 등 세 구절을 예로 들고 있다. 그는 『논어집해』에서 “뜻이 의심스럽”거나 “다르게 읽어서” 두 가지 견해를 남겨둔 것은 후인들이 취사선택 하도록 하는 편찬자의 진지한 학풍이라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 직접 양설병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논어집해』에 보이는 양설병존 현상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언급이라고 할 것이다.

황좌이(2005)는 『논어집해』의 훈고를 연구하면서 이 책의 주요 내용, 훈석의 방법, 사상과 특징, 성취와 영향, 부족한 점 등 『논어집해』 전반을 다루고 있다. 하안이 의심스럽고 판단하기 어려워 결정하지 못한 양가병존의 현상이 7곳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학이」 2곳과 「공야장」 1곳을 제시하고 있다. 『논어집해』 전체에서 양설병존이 7곳 보인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양설병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 양설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있지 않아 아쉬움을 준다.

황좌이(2007)는 황좌이(2005)의 연장선에서 『논어집해』의 훈석사상에 있어서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 양설병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주의 대부분은 한 학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7곳에서 양설을 모두 남겨두었다고 하면서, 이 중 6곳은 다른 학자의 견해와 함께 ‘一曰’, ‘或曰’이라는 표지와 함께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였고 한 곳은 두 학자의 견해를 남겨두었다고 설명한다. 황좌이(2005)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두 가지 견해의 분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어서 양설병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논어집해』의 양설병존의 예시로 세 구절만을 언급하고 있고 기술하는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아직까지는 이 방면의 전면적인 연구라고 볼 수 없다.

양홍위안, 천샤오룽(2010)은, 『논어집해』에 대해 전통적으로 현학을 가지고 유가를 해석했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으며 『논어집해』는 유가의 학문을 지키고 있음을 주장하는 글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논어집해』의 체례를 언급하면서 대체로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견해만을 인용하지만 두 가지 견해가 각자 근거가 있고 옳고 그름을 단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설병존한다고 하면서 「학이」의 “도천승지국장”을 예로 들고 있다. 이 글은 양설병존에 대해 언급했을 뿐 앞의 황좌이(2007)에 비하여 더 진전된 논의가 없으므로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논어집해』의 양설병존에 관해서는 이설병존, 양가병존, 양설겸존, 양존 등의 용어로 총 7구절 중 1~3구절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연구는 없었다. 양설병존 현상이 7구절에서 보인다고 하면서 그 양설의 차이점까지 언급한 황좌이(2007)의 연구가 본고에서 연구하려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연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논어집해』는 물론 여러 주석 중에 등장하는 양설병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 『논어집해』의 양설병존 양상

『논어집해』는 여러 주석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참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중 특정한 의견을 취하게 되지만, 때로는 어떤 것이 옳은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설병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논어집해』에 보이는 양설병존 구절로는, 「학이」 2구절, 「위정」 1구절, 「공야장」 1구절, 「옹야」 1구절, 「선진」 1구절, 「양화」 1구절

의 총 7구절이 있다. 이 장에서는 『논어집해』의 양설병존 구절을 분석해 보고 아울러 이 구절이 『논어집해』 이후에 출판된 주석서에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Arthur Waley(1938)와 D. C. Lau(1979)의 『The Analects of Confucius』를 함께 분석하여 영미권에서는 『논어』의 해당 구절을 어떻게 보는지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1) 道千乘之國章

(1) 『The Analects of Confucius』

이 구절은 「학이」의 “수레 천 대를 낼 수 있을 정도인 제후의 나라를 다스릴 때, 정사를 신중히 하여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재정의 지출을 잘 조절하여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에는 그들의 상황을 잘 보아가면서 가장 적절한 시기를 이용해야 한다.”(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⁵⁾라는 공자의 말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중 『논어집해』에는 “천승지국(千乘之國)”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

천승의 땅에 대해 마옹은 『주례』를 근거삼아 “사방 316리 남짓”(方三百一十六里有疇)이라고 보았고, 포함은 『예기』와 『맹자』를 근거 삼아 “백 리의 나라”라고 보았다. 또한 하안은 “의심스러운지라 두 가지 모두 여기에 실어 놓았다.”라고 하여 양설병존을 했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The Analects of Confucius』의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5) 『논어』원문 번역은 이강재(2006) 『논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조화』의 것을 가져왔다.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6) 나열 순서대로 각각 Arthur Waley(1938)와 D. C. Lau(1979)의 장절과 해석 부분이며,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서이다.

1-5. The Master said, **A country of a thousand war-chariots** cannot be administered unless the ruler attends strictly to business, punctually observes his promises, is economical in expenditure, shows affection towards his subjects in general, and uses the labour of the peasantry only at the proper times of year.

1-5. The Master said, 'In guiding **a state of a thousand chariots**, approach your duties with reverence and be trustworthy in what you say: avoid excesses in expenditure and love your fellow men: employ the labour of the common people only in the right seasons.'

Arthur Waley(1938)은 “천대의 전차가 있는 나라는(A country of a thousand war-chariots)”이라고 볼 수 있어서 『논어집해』, 『논어의 소』, 『논어주소』에서 자세히 언급되었던 천승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논어집주』처럼 “천승은 제후의 나라이고 병거 천승이 나올 만하다”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 C. Lau(1979)은 “천대 병거의 나라(a state of a thousand chariots)”라고 하여 『논어집해』에서 양설로 남겨두었던 천승의 크기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후대 주의 양상

『논어집해』에서는 천승의 땅에 대해 마옹과 포함의 주석 2가지를 모두 적고, 양설병존의 이유를 하안 스스로 밝혔다. 마옹은 『주례』에 근거하여 천승이 사방 316리라고 하였고, 포함은 『예기』와 『맹자』에 근거하여 천승이 사방 100리(方100里)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마옹은 『주례』 「대사도」에 “제공의 봉지는 사방 500리이고, 후는 400리 이하이다.”라고 한 설에 의거하고, 포함은 『예기』 「왕

제」에 “사해 안이 구주이고, 주는 사방이 1,000리인데, 주마다 100리의 나라 30개, 70리의 나라 60개, 50리의 나라 120개를 세우니 모두 211국이다.”라고 한 설과, 또 『맹자』에 “천자의 제도는 땅이 사방 1,000리이고 공과 후의 제도는 모두 사방 100리이고, 백은 70리이고, 자와 남은 50리이다.”라고 한 설에 의거하였다. 포함은 『예기』 「왕제」와 『맹자』의 설에 의거하여 “대국도 그 땅이 100리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사방 500리와 400리의 봉국이 있다고 한 『주례』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다.

현존하는 『주례』에서 천승지국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장인은 구척이다. 사는 폭 5촌이고 2사는 우이고 1우의 벌은 넓이 1척이고 깊이가 1척을 일컬어 견이고 밭머리는 배로 하여 넓이가 2척이고 깊이가 2척이니 일컬어 수이다.”와 “9부는 정이니 정 사이의 넓이는 4척이고 깊이는 4척이니 일컬어 구이다. 사방10리를 성이라고 하고 성 사이의 넓이는 8척이고 깊이는 8척이니 일컬어 혁이라고 한다. 사방 100리를 동이라고 하고 동사이의 넓이는 2십이고 깊이는 2인(仞)이니 일컬어 회라고 한다. 오로지 천까지 이르고 각각 그 이름을 기재하였다.”라는 구절이다.

이를 통해서 마음이 근거로 삼았다는 『주례』의 사마법을 찾아보면 직접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하안의 주에서 마음이 『주례』를 따른다고 하는 부분은 『주례』에서 유실된 부분이거나 주(周)나라 때의 예법, 즉 제도라고 풀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기』에서 천승지국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공후의 땅은 사방 100리”와 “사방 1리는 밭 900무이다. 사방 10리는 사방 1리가 100이고 밭 9만 무이다. 사방 100리는 사방 10리가 100이고 밭 90억 무이다. 사방 천 리는 사방 100리가 100이고 밭 9만 억 무이다.”와 “제도의 농전은 100무로 단위를 삼고 있다.”와 “왕이 복록과 작위를 나눔에

공후백자남 5등급과 제후가 상대부경, 하대부, 상사, 중사, 하사 5등급으로 나누고, 천자의 땅은 사방 천리, 공후의 땅은 사방 100리, 백은 70리, 자남은 50리, 50리가 되지 못하면 천자와 연계를 갖지 못하고 제후에 부속되는데 부용이라고 한다. 천자의 3공의 땅은 공후로 본다. 천자의 경은 백으로 본다. 천자의 대부는 자남으로 본다. 천자의 원사는 부용으로 본다.”와 “성왕은 주공이 천하에 공로가 있다고 여겨 주공을 곡부에 봉하였다. 땅은 사방 70리이고 혁거는 1,000승이고 노공에게 대대로 주공의 제사를 천자의 예악으로 지내라고 명하였다. 따라서 노군이 맹춘 때 대로를 타고 호독을 신고 깃발 12류 세우고 일월의 무늬로 교에서 제사를 지내고 후직을 나란히 모셨는데 이것은 천자의 예이다.”라는 구절이다.

『맹자』에서 천승지국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천승의 집안이라는 것은 천자의 공경으로서 채지)가 백 리에 수레 천 대를 낼 수 있다. 천승의 나라라는 것은 제후의 나라이다.”와 “공과 후는 사방 백 리”라는 구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 등을 근거로 보았을 때 하안 시대에는 이미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기에 둘 다 남겨두었을 것이다. ‘도천승지국장’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천승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대해서이다. 『논어집해』를 저본으로 소를 달은 『논어의소』와 『논어주소』에서도 천승의 크기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천승의 차이를 좀 더 알 수 있다.

먼저 『논어의소』에서 천승의 크기를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云司馬法六尺爲步者] 사마법이라는 것은 齊景公 때 사마양지의 군

법이다. 그 법 중에 이 천승지설이 있다. 무릇 사람의 한 발짝(한 발을 드는 것)이 跬이다. 跬는 3척이다. 두 발짝이 步이다. 步는 6척이다. [云步百爲畝者] 넓이 1步, 길이 100步를 一畝라고 일컫는다. 畝는 母와 통한다. 백 보의 길이가 되면 가히 종묘를 심고, 기르는 공이 있음이 드러난다. [畝百爲夫者] 매 一畝는 넓이 6尺이고 길이 100步이다. 지금 100畝를 夫라고 한다. 즉 이것은 사방 100步인데 夫라고 일컫는다. 예부터 땅에 세금을 매겨 100畝의 땅으로써 한 농부에게 준 것이니 무릇 사람을 기르는 바이다. 땅의 비옥함과 황폐함과 그 가족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것뿐이다. 『禮記』 「玉制篇」에서 말하길 농사를 지음은 땅 100畝가 단위이다. 100畝의 구분은 비옥한 농전을 경작하는 농부는 (한 농전으로) 9인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云夫三爲屋者] 매 夫는 사방 100步이다. 지금 말하길 3夫는 사방 100步가 3개이다. 만약 나란히 놓고 말한다면 넓이 1리이다. 1리는 길이 300步이며 길이 100步와 같다. 屋이라고 일컫는 것은 뜻으로 그것을 이름 짓는다. 무릇 1家에는 부부와 자식이 있어서 3명이 갖추어져 있는데 屋의 도리가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3夫를 합쳐서 屋이라고 한다. [云屋三爲井者] 屋에 대해서 넓이는 1리이고, 길이는 100步이고, 이제 3屋을 나란히 옆으로 놓으면 즉 사방 1리이다. 이름하여 井이라는 것은 夫사이에 물을 따라서 중횡으로 서로 통해서 井이라는 글자를 이루기 때문이다. 何는 畝의 넓이가 6尺이고, 길이가 100步로 쟁기를 이용하여 경작한 것이다. 耜는 넓이 5寸이고, 쟁기 두 개를 나란히 하는 것을 耩라고 한다. 長沮, 桀溺이 나란히 하여 밭갈이한 것이 이것이다. 耩는 넓이 1尺을 경작하다. 畝는 넓이 6尺이니 1尺의 밭가는 것으로써 물이 통하게 하였다. 물의 흐름은 畝畝然하니 이 때문에 畝라고 불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밭머리는 두 배로 해 주는데 넓이 2尺이고 깊이 2尺을 遂라고 일컫는다. 9夫를 井이라고 한다. 井 사이가 넓이와 깊이를 4尺으로 하고 그것을 溝라고 부른다. 그 수로에 서로 통합이 井字와 같다. 그러므로 鄭玄이 말하길 井字와 비슷하므로 井이라고 부른다. 遂는 그 물이 비로소 도달하는 데서 (그 뜻을) 취한다. 溝는 그 점차 깊어지는 도랑이 되는 것에서 취한다. 『釋名』에 말하기를 밭 사이의 물을 溝라 하고, 溝는 溝이다. 중횡하여 서로 교차하여 만나기 때문이다. [云井十爲通者] 이것은 10井의 땅이다. 나란히 하면 넓이가 10리이고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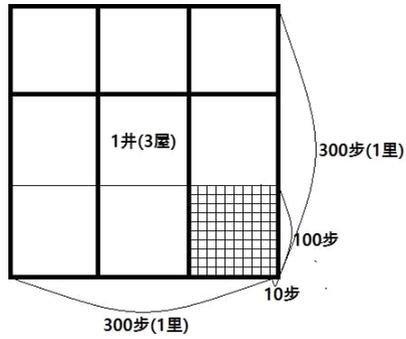
이 1리이다. 통이라고 일컫는 것은 그 땅에는 30屋이 있는데 서로 통한다. ... [云通十爲城者] 그 성의 땅은 사방 10리이고 城이라고 일컫는다. ... [云城出革車一乘者] 1乘이 나오는데 이것은 1成에서 거두는 것이므로 城이라고 일컫는다. [云千乘之賦其地千城也者] 땅 사방 10리가 1,000이 있으면 1,000城이고 1000乘을 수용할 수 있다. [云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奇者] 사방 100리는 사방 10리가 100이고, 만약 사방 300리라고 하면 3×3 은 9가 된다. 사방 100리가 9개가 있다. 합쳐서 成은 사방 10리가 900이니 사방 300리이고 단지 900乘만 있다. 만약 1,000乘이라고 한다면 100乘이 적다. 100乘은 사방 100리가 하나이다. 지금 사방 100리 1개를 취하고서 6개로 나누면 매 分은 넓이 16리이고 길이 100리이니 끌어다가 그것에 접하니 길이 600리이다. 그 넓이가 16리이고 지금 반으로 끊으면 각각 길이가 300리이다. 법을 세우는데 특히 앞 300리에 남서쪽에다가 2邊을 더 늘렸으니 이는 사방 316리이다. 그러나 남서의 끝에는 사방 16리가 빠지는 데가 하나다. 사방 16리가 하나있고 또 사방 10리가 두 개 있으며 또 사방 1리가 56리이다. 이는 사방 1리짜리가 256리가 적다. 그렇다면 이전에 사방 100리짜리를 6개로 나눈 것이다. 사방 300리를 2邊에다 더한 것이니 사방 1리가 400개가 남는다. 지금 사방 1리짜리 256으로써 西南쪽에 더하면 오히려 사방 1리가 144가 남는다. 또 법을 세우는데 쪼개서 316리에 2邊을 더하면 매 邊은 다시 半리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사방 316리에다가 조금 남는 것이 있다고 한 것이다.

위와 같이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고대의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해주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논어의소』는 천승의 크기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의 분량이 다른 주석서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많다. 다음으로 『논어주소』에서 천승의 크기를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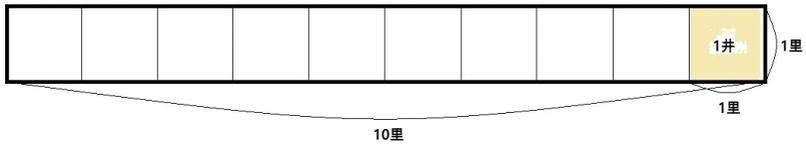
[云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奇者] 사방 100리의 땅 하나로 사방 10리의 땅 100개를 만들 수 있으니, 사방 300리의 땅은 '3 × 3은 9'가 되므

로 사방 100리의 땅이 아홉이 된다. 이를 합산하면 사방 10리의 땅이 900개이니 900乘을 얻을 수 있다. 千乘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百乘과 사방 100리의 땅 하나가 부족하다. 또 사방 100리의 땅 하나를 여섯으로 쪼개어 나누면 너비 16리, 길이 100리의 땅이 여섯이 되니, 이를 이어 붙이면 길이가 600리이고 너비가 16리이다. 또 이를 반으로 쪼개면 각각 길이가 300리이니, 이를 앞에 말한 300리 땅의 서쪽과 남쪽 두 가장자리에 보태면 사방 316리가 된다. 그래도 오히려 서남쪽 모퉁이에 사방 16리의 땅 하나가 부족하다. 사방 16리의 땅 하나는 사방 1리의 땅 256개이다. 그러나 앞서 사방 100리의 땅을 쪼개어 여섯으로 나눌 적에 사방 1리의 땅 400개가 남았으니, 지금 사방 1리의 땅 256개를 서남쪽 모퉁이에 보태더라도 여전히 사방 1리의 땅 144개가 남는다. 또다시 이를 쪼개어 316리의 양쪽 가장자리에 보태면 두 가장자리에 다시 半리가 모자란다. 그러므로 “三百一十六里有畸”라고 한 것이다. [云唯公侯之封 乃能容之者] 상고하건대 『周禮』 「大司徒」에 “諸公의 땅은 封地 사방 500리이고, 諸侯의 땅은 봉지 사방 400리이고, 諸伯의 땅은 봉지 사방 300리이고, 諸子의 땅은 봉지 사방 200리이고, 諸男의 땅은 봉지 사방 100리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千乘의 나라는 점유한 땅이 사방 316리 남짓하고, 伯·子·男의 땅은 사방 300리 이하이니, (千乘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봉후의 봉지만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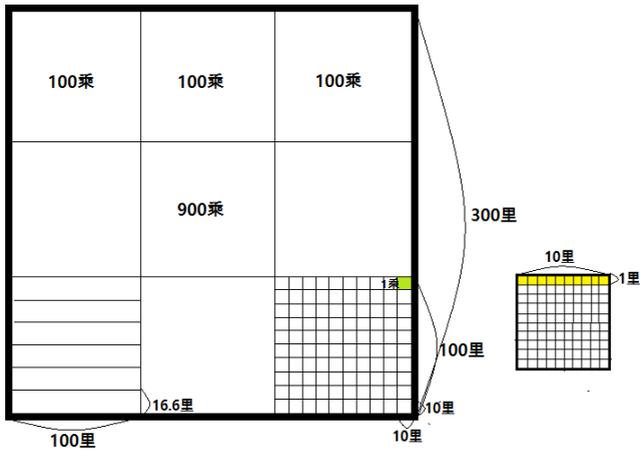
『논어주소』의 설명은 앞에서 보았던 『논어의소』에 비해서는 짧지만 여전히 천승의 크기에 대해 자세히 고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부분을 다시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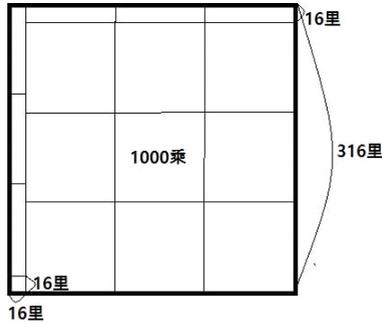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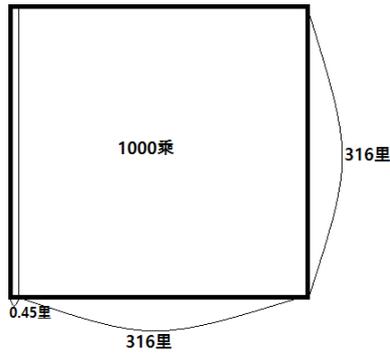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천승의 크기를 도출한 방식을 따른다면, 마옹은 [그림 1]과 [그림 2]처럼 사방 10리가 1승으로 보고 개방법으로 사방 300리를 900승으로 보았다. 그러면, 천승을 만들 때 100승이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그림 3]에서처럼 부족한 사방 100리를 6으로 쪼개어 '16.666 × 100리' 중 소수점을 제외한 '16里 × 100里' 6개를 정방형의 천승의 땅을 만들기 위해 두 변에 붙이고, 이것은 [그림 4]처럼 16里²가 부족한 316리²가 된다. 그런데 100리를 6개로 나눌 때 계산에서 제외한 0.666의 소수점

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0.666 \times 100 = 66.6$ 이고, 6개가 있으므로 $66.6 \times 6 = 399.6$ 이므로 대략 400으로 보고 16×16 인 254를 빼면 144가 남는다. 즉, [그림 4]의 정방형 316리²가 되고도 144를 더해야 하므로 316리² “남짓”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소수점을 제외한 “ $16 \times 16 = 256$ 리는 사방 10리 $\times 2 = 200$ 리와 사방 1리 $\times 56 = 56$ 리를 합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박홍수(1975)에 의하면, 1무는 사방 10보이고 넓이 100보로 보았다. 즉, 1보 \times 100보의 직사각형이든 사방 10보의 정사각형이든지 1무의 땅의 면적은 100보로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를 보면 남은 144를 316리에 더하려니 316리 \times 0.45리가 되므로 0.45리는 0.5리인 반 리가 되지 못하므로 “설법에서는 쪼개서 316리에 2변을 더한다. 매 변은 다시 반 리를 얻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논어주소』를 보면 “마옹은 『주례』<대사도>에 ‘제공의 봉지는 사방 500리이고, 후는 400리 이하이다.’라고 한 견해에 의거하였고, 포함은 『예기』<왕제>에 ‘사해 안이 구주이고, 주는 사방이 1,000리인데, 주마다 100리의 나라 30개, 70리의 나라 60개, 50리의 나라 120개를 세우니 모두 211국이다.’라고 한 견해와, 또 『맹자』에 ‘천자의 제도는 땅이 사방 1,000리이고 공과 후의 제도는 모두 사방 100리이고, 백은 70리이고, 자와 남은 50리이다.’라고 한 견해에 의거하였다. 포함은 『예기』와 『맹자』의 설에 의거하여 “‘대국도 그 땅이 100리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사방 500리와 400리의 봉국이 있다고 한 『주례』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여 마옹의 견해인 사방 316리가 옳지 않다고 했다. 포함의 견해를 따르면 주는 사방 천리이니 1000000리²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방 100리인 나라가 30개($100\text{리} \times 100\text{리} \times 30 = 300000\text{리}^2$)와 사방 70리가 60개($70\text{리} \times 70\text{리} \times 60 = 294000\text{리}^2$)와

50리의 나라 120개($50리 \times 50리 \times 120 = 300000리^2$)를 합친 것으로 보아서 $300000리^2 + 294000리^2 + 300000리^2 = 894,000리^2$ 가 $1000000리^2$ 안에 포함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마옹과 포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천승에 대한 크기이다. 마옹은 1승을 사방 10리, 즉 $100리^2$ 로 보고, 포함은 $10리 \times 1리$, 즉 $10리^2$ 로 보았으므로 10배의 차이가 난다. 또한, 천승을 마옹은 사방 316리 남짓이라고 보았고, 포함은 사방 100리로 보았다. 마옹은 천승의 면적을 약 사방 316.16리로 보아서 $99957.1456리^2$ 인, 약 $100000리^2$ 로 보았고, 포함은 사방 100리로 보아서 $10000리^2$ 로 보았으니 역시 대략 10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척과 1리는 과연 현재 단위로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중국 남북조 시대까지 후한척(23cm)과 진전척(23.1cm), 서진척(약 24cm), 동진척(약 25cm) 등이 쓰였다.⁷⁾ 즉, 1척을 23cm로 보면 1보는 138cm이므로 한 발짝은 69cm이고 1부가 경작하는 크기는 $19.04km^2$ 이다. 북위의 동척을 기준으로 하면 한 척은 오늘날의 30.9cm이다.⁸⁾ 지금 1척을 기준으로 한다면 30.303cm로 1보는 181.818cm이므로 한 발짝은 90.909cm이다. 또한 1부인 농부 한명이 경작하는 크기는 $32.7km^2$ 이다. 또 위잉제(1994)는 전한시대의 1리는 약 417.53m이고 후한 말기의 1리는 약 433.56m라고 하였는데, 이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아직까지는 확실한 고증을 하기 어렵다.

땅의 크기에 비례해서 군인을 선발하기 때문에 땅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면 군대 편제의 차이도 발생하게 된다. 천승에 해당되는 군대 편제

7) 위키백과 “자(尺)”. [2019년 2월 6일 검색]. 인터넷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_\(%EB%8B%A8%EC%9C%84\)](https://ko.wikipedia.org/wiki/%EC%9E%90_(%EB%8B%A8%EC%9C%84))

8) 唐明貴, 『論語學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

는 『논어의소』에서는 “(云井十爲通者) 이것은 10井의 땅이다. 나란히 하면 넓이가 10리이고 길이 1리이고, 통이라고 일컫는다. 그 땅에는 30옥이 있는데 서로 통한다. 함께 갑사 1명과 보병 2명이 나온다. (云通十爲城者) 그 성의 땅은 사방 10리이고 성이라고 일컫는다. 병부법에 1승은 성이다. 그 땅에 300옥이 있으면 혁거 1승과 갑사 10명 보병 20명이 나온다.”라는 구절뿐이다. 그에 비해서 『논어주소』에서는 군대 편제를 다음과 같이 『논어의소』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司馬法에 “兵車 1乘에 甲士가 3人, 步卒이 72人이다.”라고 하였으니, 千乘으로 계산하면 7만 5,000人이니, 바로 六軍이다. 『周禮』 「大司馬序官」에 “군대의 編制는 1만 2,500인이 一軍이니, 王은 六軍, 大國은 三軍, 次國은 二軍, 小國은 一軍이다.”라고 하였고, 『詩經』 「魯頌 閟宮」에 “公의 兵車는 천승이다.”라고 하였고, 『禮記』 「明堂位」에 “周公을 曲阜에 封하였는데, 封地가 사방 700리이고, 革車가 천승이었天子의 다.”라고 하였으니, 「坊記」와 「明堂位」의 말은 모두 『周禮』와 부합하지 않는다. 禮에 의하면 六軍은 六鄉에서 내는데, 1만 2,500家가 1鄉이고, 1만 2,500인이 一軍이다. 『周禮』 「地官 小司徒」에 “役徒를 일으킴에는 한 집에서 한 사람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한 집에서 한 사람만을 差出하는 것이다. 1鄉에서 1軍을 내니, 이것이 군대를 내는 常規이다. 天子의 六軍을 이미 六鄉에서 내었다면 제후의 三軍도 三鄉에서 내는 것이다. 『詩經』 「魯頌 閟宮」에 “公의 步兵 [徒] 이 3만이다.”라고 한 것은 鄉에서 낸 군대를 이르니 千乘의 군대가 아니고, 千乘은 井地를 계산해서 군대를 낸 것을 이르니 저 三軍의 兵車가 아니다. 두 가지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반드시 두 가지 법을 둔 까닭은 聖王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편안할 때에도 危亂을 잊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방마다 모두 군대를 내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王者나 霸者の 명에 따라 군대를 낼 경우에는 나라의 대소에 따라 三軍을 내기도 하고, 二軍을 내기도 하고, 一軍을 내기도 하지만, 적군이 항복하지 않아 전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境內의 壯丁을 모두 동원

하여 從軍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시 井地를 계산하여 군대를 내는 이 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鄕에서 군대를 내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한 사람만을 내지만, 井地를 계산해 군대를 내는 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成에서 一乘을 낸다. 이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대하는 것이다.

『사마법』에 의하면 1승에 군인이 75명으로 보고 1,000승이면 75,000명, 즉 6군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6군은 천자의 나라인 만승의 병력이고, 천승인 대국은 3군인 37,500명이어야 하므로 그 수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시경』 「노송, 비궁」에 “공의 보병이 3만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마옹의 천승 봉토에는 3만 옥이 있고 포함의 천승 봉토에는 3천 옥이 있다. 『주례』 「지관, 소사도」에 “부역을 일으킴에는 한 집에서 한 사람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에 의거해서 보면 마옹의 3만 옥에서 3만의 병사가 나옴이 맞다. 천승의 군대라는 개념은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천승의 땅 크기를 기준으로 나온 3만 屋의 3만 군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레 1승에 비례해서 차출해 내는 천승의 7만 5천의 군대이므로 군대 인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예기』 「방기」와 「명당위」에 따르면 땅이 아무리 커도 전쟁용 수레는 천승이 넘지 않는다고 했다. 주공 역시 땅의 크기는 사방 700리임에도 수레는 천승으로 제한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사마법에 의하면 1승이 75명이므로 병력 천승을 계산하면 7만 5천명이다. 그런데 7만 5천명은 6군이므로 천자의 나라인 만승의 크기여야 하고, 대국인 3군은 3만 7500명이고 500승이라고 봐야 하므로 그 숫자가 맞지 않는다. 마옹의 의견을 따르면 천승은 사방 316리이고 3만 옥을 포함하고 있고 마옹이 근거한 『주례』에 따르면 천승은 7만 5천 명의 병력을 가지므로 1옥당 2.5명

을 차출해야 한다. 『주례』에 “부역을 일으킴에는 한 집에서 한 사람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1옥당 2.5명 차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하지만 3만 옥에서 1명씩 차출한다면 『시경』에 “공의 보병이 3만이다.”라고 한 것과는 맞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논어집해』에서는 천승지국의 땅의 크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논어의소』와 『논어주소』는 천승의 땅의 크기와 더불어 그에 따른 군대 편제에 대한 차이까지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하안이 고민 끝에 양설병존을 했고, 황간과 형병이 자세히 기술한 천승의 땅의 크기나 군대 편제에 대한 설명이 신주인 『논어집주』에서는 “천승은 제후의 나라이고 병거 천승이 나올 만하다.”라는 한 줄의 설명이 전부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 살펴보았듯이 『논어집해』, 『논어의소』, 『논어주소』에서 자세히 언급되었던 천승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논어집주』처럼 “천대의 전차가 있는 나라는(A country of a thousand war-chariots)”와 “천대 병거의 나라(a state of a thousand chariots)”라고만 하여 크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 없이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연한 차이는 주희는 공자 정신의 해명을 의도하면서 공맹사상에 이학적 색채를 부여하였기⁹⁾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주희의 주석은 천승에 대한 설명보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요점과 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황간과 형병의 소는 하안의 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는 고석명물을 중시하는 훈고학적 특징을 가지는데 반해서 주희의 주는 의리를 강조하는 성리학에 입각한 새로운 독창적 주석서라는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9) 김영호, 『논어의 종합적 고찰』, 심산문화사, 2003.

는 ‘고주’와 ‘신주’, 또는 ‘한학’과 ‘송학’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君子不重章

(1) 『The Analects of Confucius』

이 구절은 「학이」의 “군자는 중후함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위엄이 없게 되며 배워도 견고하지 못하다. 언제나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충과 내실이 있어 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을 위주로 한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지 말며,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고치는 것에 대해 주저하며 망설여서는 안 된다.”(君子不重, 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라는 공자의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중 『논어집해』에는 ‘古’의 해석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

군자에 대한 특징으로 설명한 “古”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논어집해』에 인용된 공안국과 하안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 공안국은 ‘가리다’로 보았고 하안은 ‘굳건하다’로 보았는데 이를 『The Analects of Confucius』의 설명을 통해서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8. The Master said, If a gentleman is frivolous, he will lose the respect of his inferiors and lack **firm ground** upon which to build up his education.

1-8. The Master said, ‘A gentleman who lacks gravity does not inspire awe. A gentleman who studies is unlikely to be **inflexible**.

Arthur Waley(1938)는 “확고한 근거(firm ground)”라고 보고 있고, D. C. Lau(1979)는 “확고한/완강한(inflexible)”이라고 보았다. 즉, 『논어집해』와 『논어의소』, 『논어주소』에서 이어지던 ‘고(固)’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논어집주』에서 “굳건하다” 하나로 정해졌으며,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 후대 주의 양상

군자에 대한 공안국과 하안의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구절이다. 공안국의 주석에 의하면 “군자가 돈후하지 못하면 위엄이 없고 배우면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안은 “군자가 돈후하지 못하면 위엄이 없고 배우도 굳건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공안국의 말에서 측은 모두 순접으로 쓰였고, 하안의 말에서 측은 각각 순접과 역접으로 쓰였다. 이강재(1998)에서는 둘 다 문법적 결합은 없으나 문장의 흐름상 공안국의 설이 병렬문으로서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먼저 고를 ‘견고하다’로 풀이하면 본문은 군자가 중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두 가지 결과를 언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본문은 “군자가 돈후하지 못하면 위엄이 없고, 배우나 굳건하지 않는다.”(君子不重 則不威 學則不固)라 구두할 수 있지만 “~면 위엄이 없고(則不威)”와 “배우나 굳건하지 않는다(學則不固)”가 병렬문으로서의 자연스러움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두 개의 “즉”자가 각각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었기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에 고를 ‘가리다’로 풀이하면 본문은 군자에 대한 두 가지 병렬적 내용을 언급하는 문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돈후하지 못하면 위엄이 없고”[不重則不威]와 “배우면 가리지 않는다”[學則不固]가 ‘돈후하지 못하다’와 ‘배우다’라는 부정과 긍정의 상반된 어기로 기술되어 있다는 어색함을 피할 수 없다. 궁잉더는 1970년에 출간한 『논어의의집주』에서 이런 경우 차라

리 “군자가 돈후하지 못하면 위엄이 없고, 배우지 않으면 가린다.”〔君子不重則不威 不學則固〕라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강재(1998)에서는 궁인더의 주장을 인용하고서 이 주장에 동의하여 고(固)를 ‘가리다’로 풀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를 공안국, 궁인더, 이강재는 ‘가리다’로 보았고, 하안과 주희는 ‘굳건하다’로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논어의소』는 “내(황간)가 생각건대 공안국은 고는 ‘가리다’”라고 풀이하였다. 蔽는 ‘해당된다’와 같다. 사람이 이미 감히 후중할 수 없으면 비록 학문 또한 도리에 해당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시 300편을 한 마디로 덮다.’〔詩三百一言以蔽〕에서의 ‘덮다’와 같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약용의 『논어고금주』는 “고는 덮다이다.”라 하고 다시 ‘폐는 해당하다와 같다.’고 하는 것은 도리와 연관 지은 것이 사리에 맞지 않게 둘러댐이 심하다.”라고 하여 황간이 ‘폐는 해당하다와 같다.’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논어의소』에서 하안은 “군자가 후중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위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업 또한 견고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공안국 뒤에 주를 달아 말하기를 사람이 감히 후중하지 않으면 이미 위엄이 없다. 배우면 또한 그 의리를 아는 것이 견고할 수 없다.”라고 하여 ‘견고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논어주소』를 살펴보겠다.

양설이 있다. 공안국은 “固는 蔽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군자는 모름지기 돈중해야 하니 만약 돈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또 마땅히 先王의 道를 배워서 널리 듣고 힘써 기억해야 하니, 그리하면 固蔽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一曰에는 “固는 堅固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돈중하지 않으면 이미 위엄이 없고, 학문을 하더라도 견고하지 못하여 도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모름지기 돈중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공안국의 “고는 가리다이다.”를 형병은 ‘고폐하다’로 보아서 의미가 확장되어 ‘식견이 천박하여 감추다’, ‘고루하다’, ‘고지식하다’로 보았다. 그리고 하안은 “고는 견고하다.”라고 하여 ‘견고하다’고 보았다.

고(固)에 대한 두 가지 해설은 신주인 『논어집주』에서는 공안국의 “고(固)는 견고함이다”라는 한 가지 설만 제시하였으며 “그러므로 외면이 후중하지 못하면 위엄이 없어서 배우는 것도 또한 견고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논어집해』의 영향 아래 양설을 계속 병치하던 『논어의소』와 『논어주소』와 달리 『논어집주』는 이 중 한 가지 설만 제시하여 자신의 견해가 이미 정해졌음을 밝히고 있으며,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도 “확고한 근거(firm ground)”나 “확고한/완강한(inflexible)”라고 보아서 『논어집주』의 의견을 따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今之孝者章

(1) 『The Analects of Confucius』

이 구절은 「위정」에 보이는데, 공자의 제자인 자유가 부모님에 대한 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공자가 “오늘날의 효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개나 말조차도 모두 사람들이 가까이 길러주는 것이니 만약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개나 말을 길러주는 것과 어떤 구별이 있겠는가?”[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라고 답한 내용이다. 『논어집해』는 이 구절 중, “至於犬馬, 皆能有養.”의 해석에 대하여 두 가지의 다른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이 구절은 효를 실천함에 공양함뿐만 아니라 공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다. 그런데 포함은 “견마에 이르러 모두 공양함이 있다.”

[至於犬馬, 皆能有養.]을 “견마조차 사람을 공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하였고 하안은 “사람이 견마도 먹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The Analects of Confucius』의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7. The master said, ‘Filial sons’ nowadays are people who see to it that their parents get enough to eat. But **even dogs and horses are cared** for to that extent. If there is no feeling of respect, wherein lies the difference?

2-7. The master said, ‘Nowadays for a man to be filial means no more than that he is able to provide his parents with food. **Even hounds and horses are, in some way, provided with food.** If a man shows no reverence, where is the difference?’

Arthur Waley(1938))는 “개와 말도 그만큼 보살핌을 받는다.(even dogs and horses are cared.)”라고 보았다. 또한 D.C. Lau(1979)도 “사냥개와 말도 식량이 제공된다.(Even hounds and horses are provided with food.)”라고 보아서 하안처럼 “사람이 견마도 먹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후대 주의 양상

비록 『논어집해』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지만, 두 가지 견해 모두 효를 실천함에 있어서 공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견이다. 그럼 이 두 가지 견해가 후대의 주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논어의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는 사람을 위해 침입을 막아줄 수 있고 말은 사람을 위해 무거운 것을 지고 사람을 태울 수 있다. 모두 이것은 기를 수 있으나 공경을 행할 수는 없으므로 말하기를 개와 말에 이르러서도 모두 기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云不敬何以別乎者] 개와 말이 또한 사람을 보살핀다는 말이다. 다만 공경을 알지 못할 뿐이니 사람이 만약 기름을 알고 공경을 모른다면 개와 말과 더불어 다름이 있겠는가?

荀氏曰에서 畜之也이다.¹⁰⁾ [云犬以守禦馬以代勞能養人者也者] 오직 공경을 알지 못하니 사람과 더불어 다를 뿐이다. [云一曰人之所養乃能至於犬馬者] 이 해석은 전과 다르다. 사람이 기르는 바가 견마에 이르는다는 말이다. 개와 말을 기르는 반드시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부모를 기름에 공경하지 않으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云孟子曰養而不愛豕畜之也者] 『孟子』의 말을 끌어다 증거를 삼은 후에 통한다. 사람이 돼지를 키움에 다만 그것을 먹이기만 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云愛而不敬獸畜之也者] 또 사람은 귀하고 신기한 금수를 기름에 또한 그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나 그것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구절에 대해 『논어주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이는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비유를 든 것이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一曰에는 “개가 밤을 지켜 도둑을 막고, 말이 사람을 대신해 勞苦하는 것이 모두 사람을 잘 봉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짐승은 무지하여 사람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못한다. 만약 사람이 오직 그 부모를 공양하기만 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犬馬가 (사람을 봉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것이고, 一曰에는 “사람은 심지어 견마까지 길러, 그것들이 배고파하는지 목말라하는지를 살펴 물을 먹이고 사료를 먹여 그것들을 모두 잘 기른다. 그러나 사람이 개나 말을 기르는 것은 단지 사람의 用途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 이 견마를 공경

10) 『논어의소』의 판본에서는 荀氏曰至畜之也에서 包가 釐로 쓰여 있으며 也가 추가되어 있다.

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만약 그 부모를 봉양하기만 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견마를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것이니, 다름이 없다고 말하여 효도에는 공경이 필수임을 밝힌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논어의소』와 『논어주소』에서는 『논어집해』의 견해를 좀 더 풀어주었다. 포함의 견해에 대해서는 “지금의 효는 공양함에 있어서 견마에도 이르러 (견마가) 모두 (사람을) 공양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였다. 반면에 하안의 견해에 대해서는 “지금의 효는 공양함에 있어서 견마에도 이르니 (사람이) 모두 (견마를) 공양할 수 있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공양하는 주어와 목적어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논어집주』에서는 “사람이 견마를 기름에도 모두 음식으로 길러줌이 있으니 만약 그 아버이를 봉양하기만 하고 공경함이 지극하지 않다면 견마를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여 이전 시대까지 이어져 오던 두 가지 견해 중 하안의 견해만을 택하였다.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도 “개와 말도 그만큼 보살핌을 받는다.(even dogs and horses are cared.)”와 “사냥개와 말도 식량이 제공된다.(Even hounds and horses are provided with food.)”라고 보아서 『논어집주』와 같은 의견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由也好勇章

(1) 『The Analects of Confucius』

이 구절은 「공야장」에 보이는데, 전체 구절은 다음과 같다. 공자가 “내가 뜻하는 도가 이 세상에 행해지지 않아 뗏목을 띄워 바다로 떠나간

다면 나를 뒤따를 사람은 아마도 자로일 것이다”라고 말하자, 자로가 이를 듣고 공자가 자신을 알아준다는 사실에 기뻐하였다. 그러자 공자가 다시 “자로는 용기를 좋아하는 점에서는 나보다 낫지만, 사리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고 말하여 어떤 일의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자로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였다.〔子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從我者其由與?” 子路聞之喜. 子曰, “由也好勇過我, 無所取材.”〕 그런데 이 구절 중 “무소취재”의 ‘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이 구절은, 공자가 중국에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므로 바다로 떠나겠다는 말을 듣고 자로가 함께 떠나려 하자 공자가 한 말이다. 그런데 정현은 재를 ‘뗏목의 재목’으로 보았고, 하안은 ‘어조사 재’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 『The Analects of Confucius』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5-6. The master said, That is Yu indeed! He sets far too much store by feats of physical daring. It seems as though I should never get hold of the right sort of people.

5-7. The master said, ‘Yu has a greater love for courage than I, but is lacking in judgement.’

Arthur Waley(1938)은 “제대로 된 사람 같지는 않다.(I should never get hold of the right sort of people.)”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주석에 따르면 “문자적으로는 ‘재료를 얻다.’〔Literally, ‘get material.’〕”라고 설명해 두어 정현이 재목(材)으로 보았듯이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된다고 언급하였으나 해석은 어떤 일의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자로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부분은 장철의 분류는 다름을 알 수 있다. D. C. Lau(1979)은 “자로는

판단력이 부족하다.(Yu is lacking in judgement.)”라고 보았다. 이것은 『논어집주』처럼 材를 ‘헤아리다(裁)’의 가차로 본 것과 비슷하다.

(2) 후대 주의 양상

정현과 하안의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구절인데, 材의 의미와 공자가 자로를 희롱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재의 의미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논어의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뗏목의 재료로 삼을 것을 찾아서 취할 것이 없다. ... [云 無所復取哉言唯取於己也者] 이 주는 즉 다소 다르다. 哉는 구절을 보내는 말(送句)이다. 자로가 나를 믿어 행하고자 한 것을 말한 것이니 두루 살펴보지 못한다는 까닭은 장차 내가 바다로 가면 다시 남은 사람(餘人)을 취할 수 없으니 오직 자기를 취함을 말한 것이다. [云古字材 哉同耳者] 옛날에 材字를 사용함에 哉字와 더불어 같이 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글자가 비록 材로 쓰여 있지만 의미는 마땅히 哉가 되어야 한다.

또한 『논어주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無所取材에는 양설이 있다. 정현은 “材는 뗏목을 만드는 목재이다. 자로는 부자께서 참으로 떠나고자 하시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므로 ‘好勇過我’라고 하신 것이다. 無所取材는 뗏목을 만들 목재를 취할 곳이 없다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자로에게 일러주시어 자로로 하여금 당신께서 단지 세상에 도가 없음을 한탄한 것일 뿐이고 진실로 바다에 뜨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一曰에는 “材는 哉로 읽어야 한다. 자로는 공자께서 浮海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기뻐하고, 공자의 깊은 뜻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그의 용기에 감탄하시어 ‘過我’라고 하신 것이다. 無所取哉는 오직

자신에게서 취할 뿐, 타인에게서 취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강재(1998)는 “정현의 견해에 의하면 재란 뗏목의 재료로 쓸 재목을 말하며 용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보다 낫지만 바다로 나가기 위해 뗏목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또한 『논어주소』에서도 “실제 바다로 가고자 한 것이 아님을 알도록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논어정의』는 “정현은 자로가 공자께서 정말 떠나신다고 믿었으므로 공자께서 ‘용기를 좋아함이 나보다 낫다’(好勇過我)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무소취재(無所取材)라는 말은 뗏목 만들 재료를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여 재(材)를 ‘뗏목의 재료’로 봄을 알 수 있다.

하안은 재(材)를 가차자 재로 보아서 “자로는 용감함을 좋아함이 나보다 과하구나. 취할 것이 없도다.”라고 보았다. 신원철(2013)은 『경전석사(經傳釋詞)』에서 인성구의(因聲求義)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 허사 중에는 허사로 자주 사용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허사라 파악하기 쉽지 않은 ‘案’, ‘員’, ‘洪’, ‘遐’, ‘逝’, ‘誕’, ‘迪’, ‘疇’ 등도 있다. 이들은 이미 실사의 의미로 익숙하기 때문에 허사로 쓰인다는 점에 대해 어색하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즉, 인성구의의 특징은 실사로 주로 사용되거나 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논어』에서 실사인 材가 허사인 哉로 사용된 것도 이와 같은 경우일 것이다.

『논어집주』에서는 “그러므로 부자께서 그의 용맹을 찬미하시고 그 사리를 헤아려 의에 맞게 하지 못함을 기롱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재’에 대해서 이강재(1998)는 “『논어집주』의 견해에 의하면 材는 ‘무엇을 재량하다’, ‘헤아리다’는 ‘裁’의 의미이고, 이는 材가 고대 중국어에서 ‘裁’의 의미로 가차되어 쓰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백효도 “裁는

옷감을 사람의 몸에 맞추어 재단하는 것으로 사리에 맞게 처리함을 이른다. 材와 裁는 음이 같으므로 가차하여 쓴 것이다.”¹¹⁾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논어집주』에서는 材를 ‘헤아리다(裁)’라고 보았으므로 주희는 지금까지의 고주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 같지는 않다.(I should never get hold of the right sort of people.)”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의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자로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자로는 판단력이 부족하다.(Yu is lacking in judgement.)”라고 보았다. 이것은 『논어집주』처럼 材를 ‘헤아리다(裁)’라고 가차해서 본 것과 비슷하여 『논어집주』의 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子見男子章

(1) 『The Analects of Confucius』

이 구절은 「옹야장」에 나오는데, 전체 구절은 다음과 같다. “공자가 남자를 만나자 자로가 좋아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공자가 맹세하면서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면 하늘이 나를 버리실 것이다. 하늘이 나를 버리실 것이다.’라고 하였다.”〔子見南子, 子路不說. 夫子矢之曰, “予所否者, 天厭之! 天厭之!”〕 그런데 공자가 위 영공의 부인인 南子를 만난 것을 자로가 좋아하지 않자 자로에게 ‘맹세하여(矢)’ 말하였다는 점에 대해 『논어집해』에서 하안은 ‘뜻이 의심스럽다(義可疑也)’고 하였다. 『The Analects of Confucius』의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성백효,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10.

6-26. When the Master went to see Nan-tzu, Tzu-lu was not pleased. Whereupon the Master **made a solemn declaration** concerning his visit, **saying**, Whatsoever I have done amiss, may Heaven avert it, may Heaven avert it!

6-28. The Master went to see Nan Tzu. Tzu-lu was displeased. The Master **swore**, 'If I have done anything improper, may Heaven's curse be on me, may Heaven's curse be on me!'

Arthur Waley(1938)는 “엄숙하게 맹세하며 말하기를(made a solemn declaration..., saying,)”라고 보아 맹세(declaration)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장절 분류가 다르다. D. C. Lau(1979)는 “맹세하기를(swore)”이라고 보아 모두 “맹세하다”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후대 주의 양상

공자는 55세 때 모국인 노나라를 떠난 이후 위나라에서 다른 지역을 갔다가 56세 때 다시 위나라로 돌아왔고 이때 위나라 군주인 영공의 부인 남자를 만났다. 그런데 공자의 제자인 자로는 공자가 영공의 부인을 만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다. 여기에 있는 ‘矢’의 해석에 대해 공안국은 자로에게 맹세했다고 보았는데, 하안은 제자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스승이 맹세를 한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안은 시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의심스럽다고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논어집해』에서는 좀 더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다. 공안국의 의견에 대해서는 “시는 맹세하는 것이다...자로가 이미 기뻐하지 않았으니 공자가 그와 더불어 빌고 맹세한 것이다... 그것을 2번 말한 것

은 그 말로써 맹세한 까닭이다.”라고 하면서 시를 ‘맹세하다(誓)’라고도 보았다. 또한 채모의 의견을 들어서 시를 다르게도 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蔡謨가 말하길 “矢는 陳이다.” 『尙書』 「敍」에 말하길 臯陶가 그 술수를 늘어놓는다. 『春秋』에 말하길 “공이 당에서 물고기를 늘어놓는다.”가 모두 이것이다. 부자가 자로에게 천명을 늘어놓은 것이다. 맹세한 것이 아니다.

채모는 ‘시’를 ‘늘어놓다(陳)’으로 보고 “맹세한 것이 아니다〔非誓也〕”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하안이 의심한 것에 대해 풀어주려고 시도한다.

이 구절에 대해 『논어주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矢는 맹세이다. 자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께서 그에게 맹세하신 것이다. … 두 번 말한 것은 거듭 맹세하여 자로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하신 것이다. 공안국은 先儒의 구설이 인정에 가깝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뜻이 의심스럽다고 한 것이다. … 蔡謨는 “矢는 陳이니, 부자께서 자로를 위해 天命을 늘어놓으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논어주소』 역시 ‘시’를 ‘맹세하다’라는 해석도 소개하였지만 채모의 견해를 인용하여 ‘시’가 ‘늘어놓다(陳)’는 뜻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논어의소』와 『논어주소』는 이처럼 『논어집해』에서 던진 의심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늘어놓다’, ‘말하다’라는 뜻을 풀어주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후대의 『논어집주』에서 주희는 ‘시(矢)’는 ‘맹세하다(誓)’〔矢, 誓也.〕라는 설만 제시한다. 즉 주희의 입장에서는 『논어집해』에서 처음 제시한 ‘맹세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도 “엄숙하게 맹세하며 말하기를 (made a solemn declaration concerning..., saying.)”과 “맹세하기를 (swore)”이라고 보아 모두 “맹세하다”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回也其庶乎章

(1) 『The Analects of Confucius』

이는 「선진」에 있는 공자의 말로, “안회는 거의 도를 터득하였지만 자주 실패가 빈 정도의 궁핍한 형편이었고, 자공은 천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재산을 늘리는 재주가 있으며 예측을 하면 자주 들어맞았다.”[回也其庶乎, 屢空. 賜不受命, 而貨殖焉, 億則屢中.]라는 구절에 나온다. 이 중 ‘屢空’은 역대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논어집해』에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 구절은 ‘누공’을 안회가 ‘자주 궁핍’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매번 허중’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차이를 보인다. 다음에서 『The Analects of Confucius』의 설명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1-18. The Master said, Hui comes very near to it. **He is often empty.** Ssu(Tzu-kung) was discontented with his lot and has taken steps to enrich himself. In his calculations he often hits the mark.

11-19. The Master said, ‘Hui is perhaps difficult to improve upon: **he allows himself constantly to be in dire poverty.** Ssu refuses to accept his lot and indulges in money making, and frequently right in his conjectures.’

Arthur Waley(1938)는 “그는 자주 비었다.(He is often empty.)”

라고 보았다. D. C. Lau(1979)는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가 엄청난 가난에 허덕이게 하였다.(he allows himself constantly to be in dire poverty.)”라고 보았으며 장절이 다르다. 그리고 “回也其庶乎”를 “안회는 아마도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다.(Hui is perhaps difficult to improve upon:)”라고 해석하여 안회의 단점만을 나열했다고 보기에는 옳지 않은 듯싶다.

(2) 후대 주의 양상

누공에 대해서 ‘자주 궁핍하다’와 다른 견해로는 ‘매번 허중하다’라는 양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 견해에서는 자공이 오직 재화만 늘렸다고 본 데 비해 다른 견해는 자공이 우연히 부유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우선 『논어의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뜻의 풀이로는 모두 두 가지의 통하는 것이 있다. 하나는 庶는 庶幾이다. 屢는 每이다. 空은 궁핍하다는 뜻이다. 안자는 거의 성인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재물과 이득을 소홀히 하였다. 그러므로 집은 자주 가난하고 대그릇과 표주박으로 식사를 하고 누추한 동네에 살았다. 그러므로 王弼이 말하길 “庶幾는 성인을 본받는 것이니 홀연히 재업을 잇어서 자주 가난하였다.” 또한 한 가지 통하는 의미로는 空은 虛와 같다. 성인은 적막함을 체험하여 마음이 비고 얽매이는 것이 없다. 따라서 조금만 움직여도 드러난다. 하지만 현인은 무를 체득할 수 없다. 따라서 작은 것이 드러내지 못한다. 다만 거의 성인을 존경하기만 하고 마음이 때때로 비니 자주 비었다고 말한 것이다. 그 빈 것이 한번이 아니니 屢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顏特進이 말하기를 “空은 안회가 체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거의 자주 얻었다. 그래서 顧歡이 말하기를 “무릇 하고자 함이 없음에 대해 하고자 함이 없음은 성인의 일상이다. 하고자 함이 없음에 대해 하고자 함이 있음은 현인의 몫이다.” 두 가지 하고자 함은 無를 함께 하니 따라서 공은 온전히 하는 것으로서

성인은 목표로 한다. 한 번은 있다가 한 번은 없는 것은 매번 허할 때로賢이라고 한다. 현인은 有에서부터 본다면 하고자 함이 있음에 대해서 하고자 함이 없는 것이다. 無에서부터 본다면 하고자 함이 없는 것에 대해 하고자 함이 있는 것이다. 비었지만 완전히 다한 것이 아니니屢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大史叔明이 이것을 풀어서 말하길 “안자는 上賢이다. 구체적인 것을 갖추었고 공경함이 정밀하므로 진퇴하는 일이 없다.” 義에 나아가는 것은 위쪽에 서 있는 것이기에 자주 명성이 있었다. 그 인의에 마음 쓰고 예약을 잇는 것에 따라서 지체를 버리고 총명함을 물리쳤다. 앉은 자리에서 크게 통한다. 이러한 믿음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다. 믿음에는 곧바로 비어 버린다. 공이라 하지 않으면 뭐 하고 하겠는가? 만약 성인으로서 그것을 체험하면 성인은 잇는다. 큰 현인은 잇을 수가 없다. 잇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다시 다하지 못함이 있다. 한번 미진하면 한 번 빈다. 그러므로 ‘屢’라는 명칭이 여기서 생겼다. 말하길 賜는 명을 받지 못했지만 재화가 늘어났다.

〔云賜不受命而貨殖焉者〕 이것은 공자가 다시 자공의 해악(累)을 평가한 것이다. 또한 2가지 통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는 不受命은 자공의 성품과 행동이 하늘이 명을 내려줄 만큼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이 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貨殖이라는 것은 財物을 貨라고 하고 種藝를 殖이라고 한다. 자공의 집은 부유하였으니 청렴결백 못해서 나쁘다고 여기는 이유이다. 또 한 가지 통하길 殷仲堪이 말하기를 “嬌君 명을 받지 않는다.” 江熙가 말하기를 “자공은 혼탁한 세상의 녹을 영화롭지 않다고 하고 또한 도에 거의 가까웠다. 비록 그렇지만 재물이 늘어나는 업이 있었다. 편안하고 즐거움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안회를 바라보지 못했다.” 또한 말하길 “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공이 공자의 교명을 받지 못했으므로 명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논어의소』에서는 누공에 대해 “이 뜻의 풀이로는 모두 두 가지의 통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왕필, 안특진, 고환, 대사숙명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첫째, “하나는”이라고 하면서 ‘屢는 매번(每)이며, 공(空)은 궁핍하다’는 뜻으로 보고, 왕필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둘

째, “또 한 가지 통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пуст은 허중하다(虛)와 같다’고 하여 안특진, 고훈, 태사숙명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공의 성품과 행동이 천명을 받을 만큼 믿을 수 없어서 재화만 늘렸다고 본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은중감, 강희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자공이 공자의 교명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녹을 영화롭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인데 재물이 늘어나는 업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왕필은 “命은 작명(爵命)이다. 자공은 비록 작명을 받지 못했지만 부유했다”라고 보아 강희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偶富라는 것은 집안이 자연스럽게 우연히 부유해짐을 일컬으니 녹과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우연히 부유해졌다고 보았다.

다음으로는 『논어주소』를 살펴보겠다.

이 설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일설은 “屨는 자주(數)이고, 空은 뒤주가 빚(匱)이고, 億은 헤아림(度)이다. 안회는 성인의 도에 거의 근접하여 비록 빈궁하여 뒤주가 자주 비었으나 즐거움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말이니 이는 안회를 찬미하신 말씀이다. 賜는 교명을 받지 않고 오직 재화만을 불렀으나 시비를 헤아리면 자주 (사리에) 맞았다는 말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를 격려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 양설은 “屨는 매양(每)과 같고 空은 마음을 비워 일체의 잡념을 없앴(虛中)과 같다.”...매양 虛中하여 성인의 도에 근접할 수 없었던 자는 오직 안회뿐이었다. 가슴속에 품은 도가 심원하니 만약 마음을 비우지 않았다면 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공은 몇몇 사람과 같은 결점은 없었으나 그 또한 도를 알지 못한 자이다. 비록 사물의 이치를 곤궁하지 않았으나 요행히 사리에 맞았고 비록 천명이 아니었으나 우연히 부자가 되었으니 이 두 가지 해악(累)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다.

『논어주소』는 “이 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논어집해』의 해

설을 따르고 있다. 하나는 “누는 ‘자주(數)’이고, 공은 ‘뒤주가 빔(匱)’이고, 자공(賜)은 교명을 받지 않고 오직 재화만을 불렀다”라고 하였다. 즉, “오직 재화를 생산하고 증식시키는 일에만 힘썼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누는 ‘매양(每)’과 같고 공은 ‘마음을 비워 일체의 잡념을 없앴(虛中)’과 같다.”고 하였으며, “비록 천명이 아니었으나 우연히 부자가 되었다”고 하였다.

『논어집주』에서는, “누공은 자주 궁핍(空匱)함에 이르는 것이다. 가난으로 마음을 움직여 부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자주 궁핍함에 이른 것이다.”라고 하여 『논어집해』의 전자의 설을 받아들여서 한 가지 설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안희는 자주 궁핍하였고 가난을 편안하게 여겼기에 도에 가깝다고 보았다. 또한 명을 천명으로 보았다. 정자는 “자공이 재화를 증식함은 후세 사람들이 재물을 풍족히 한 것과는 같지 않았고 다만 이 마음을 잊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자공이 젊었을 때 일이고 성과 천도를 들음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성과 천도와 연결 지어 말함으로써 유교적 색채가 드러나 있다. 또한 범씨는 “빈부는 하늘에 달려 있는데 자공이 재화를 증식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았으니 이는 천명을 편안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여 자공은 재화를 증식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 구절은 도가적 성격이 드러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탕명구이는 『논어학사』에서 진례의 주장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청대 학자 진례는 『동숙독서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안의 注는 玄虛之言之 시작이다. 예컨대 子께서 말씀하셨다. ‘道를 思慕하고’에 대하여 하안은 ‘道는 체득할 수 없으므로 그것에 뜻을 둘 뿐이다’라고 注를 달았다. 또 子께서 말씀하셨다. ‘回는 道에 거의 근접

하였다. (뒤주가) 자주 비었다'에 대하여 '어떤 견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기도 한다. 空은 虛中과 같다.'라고 注를 달았다. 이로부터 玄談이 거세게 일어났다.

진례가 거론한 두 가지 예시는 후대 사람들의 많은 동의를 얻었다. 그들 대다수가 두 예시의 주석이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여겼다. “누공을 “허중”과 같은 것이라고 풀이한 것은 『노자』 제 4장의 “도는 조화롭게 사용하니 넘치지 않음이 있다.” 및 『장자』 「인간세」의 “도는 오직 마음을 비우는 곳에 응집된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마음을 재계하는 것이다.”에서 ‘심재’의 의리를 취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는 『장자』 우언 속의 공자와 안연의 대화로 『논어』를 해석한 것으로, “坐忘¹²⁾”, “지체를 버리고, 총명을 물리침(墮肢體, 黜聰明)”이 모두 『장자』 「대중사」가 그 출전이다. 이것은 현인은 어쩌다 한번씩 “공”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공”의 경지는 한 일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기에 “누”자를 집어넣은 것이다. 성인의 “공”은 늘 이와 같아서 의도적으로 추구할 필요 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하고자 함이 없음에 대해 하고자 함이 없음”(無欲於無欲)이라고 하여 성인을 현화하였다. 『논어』의 주된 내용은 공자의 언행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기에 『논어의소』에도 다수 성인의 의론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 현학화하는 경향을 주목할 만하다¹³⁾고 하였다.

12) 莊子の 第6篇 大宗師에서 안회와 공자의 대화를 안회가 인의와 예악을 잊은 경지보다 더 나아가서 좌망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안회가 말했다. “저는 좌망(坐忘)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중니가 깜짝 놀라 얼굴빛을 고치면서 말했다. “무엇을 좌망이라 하는가?” 안회가 말했다. “사지백체(四肢百體)를 다 버리고, 이목(耳目)의 감각작용을 물리치고 육체를 떠나고 지각작용을 없애서 대통의 세계와 같아졌을 때, 이것을 좌망(坐忘)이라 합니다.” 중니가 말했다. “대통(大通)의 세계와 같아지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게 되며, 큰 도의 변화와 함께하면 짐착이 없게 되니, 너는 과연 현명하구나! 나는 청컨대 너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

13) 唐明貴, 『論語學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

그러면서 탕밍구이는 “『주역』 「합괘, 상전」에서 ‘산 위에 못이 있는 것이 함이니, 군자가 보고서 마음을 비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라고 하였다. ‘마음을 비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인다’(以虛受人)는 ‘마음을 비워 감통한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운다는 뜻은 『노자』와 『장자』에서 나온 것은 아니므로 『논어집해』의 평가가 ‘현허한 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다. 『십삼경주소』 중에서 첫 번째 집주본으로써 『논어집해』는 후대 유자(儒者)들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그 유학적 색채가 농후함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또 전대흔(錢大昕)의 『하안론』에 따르면 왕필과 하안은 유학자이고 청담 이야기를 가지고 유가의 이야기를 푼 것이지, 청담만을 존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논어집해』에서의 두 번째 의견인 “누공을 “허중”하다고 풀이한 것을 현허한 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 “누공을 “그는 자주 비었다.(He is often empty.)”와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가 엄청난 가난에 허덕이게 하였다.(he allows himself constantly to be in dire poverty.)”로 보아 『논어집해』, 『논어의소』, 『논어주소』에서 양설로 제시한 “허중하다”는 의견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7) 鄉原章

(1) 『The Analects of Confucius』

이 구절은 「양화」에 나오는 구절로 “한 고을에서 그럴 듯하게 행동하며 근엄한 체하는 사이비 군자는, 궁극적으로 덕을 해치는 도둑과 같은 자이다.”(鄉原, 德之賊也.)라는 공자의 말인데, 그 중 향원(鄉原)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주생렬과 하안의 다른 시각이 나타나는 구절이다.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17-13. The master said, The ‘honest villager’ spoils true virtue.

17-13. The Master said, ‘The village worthy is the ruin of virtue.’

鄉原을 Arthur Waley(1938)는 “순수한 시골 사람(The ‘honest villager’)”이라고 보았고, D. C. Lau(1979)는 “시골 사람(The village worthy)”으로 보았다. 그리고 둘 다 장절이 17-11로 본 판본과는 차이를 보인다.

(2) 후대 주의 양상

향원을 어떻게 보는지 『논어의소』, 『논어주소』, 『논어집주』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논어의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鄉은 고을(鄉里)이고 原은 근거하다(原本)이다. 사람이 만약 이르고 자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면 문득 마음먹은 것에 거스를 것을 헤아리기도 한다. 그 사람의 정에 근거하여 그를 대하는 것이다...또 다른 설에 말하기를 鄉은 향하다(向)이다. 사람이 강직하지도 의지가 굳세지도 못하여 얼굴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여 사람을 만나면 번번이 취향에 아첨하고 향하여 취향에 근거하여 합해지기를 구하는 것을 일컬으니 이것이 덕을 해치는 것이다. 張憑이 말하기를 鄉原은 原壤이다. 공자의 같은 고향 사람이다. 그러므로 鄉原이라고 한 것이다.

주생렬은 향을 ‘고을(鄉里)’이라고 보았고, 원(原)을 ‘근거하다(原本)’라고 보아서 향원을 ‘마을에 근거하다’라고 보았다. 또한 하안은 향(鄉)

을 ‘향하다(向)’라고 보고 原을 ‘근거하다’라고 보아서 향원을 ‘향하여 근거하다’라고 보았다. 장빙이 말하기를 향원은 ‘原壤’을 가리키며 공자의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였다. 『논어』에서 “원양이 꾸부리고 앉아 공자를 기다리니 공자 말하기를 ‘어려서 공손하지 못하고 자라서는 들먹일 만한 것이 없으며, 늙어도 죽지 않으니 이는 곧 도적이라 하시고, 지팡이로 그의 정강이를 두드렸다.’”라고 하니 덕의 적으로 볼 수 있으나 주생렬과 하안의 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논어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옛 해석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주생렬은 “이르는 고장마다 그곳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서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사람들을 대하니 이는 덕을 해치고 어지럽힘이다.”라고 하고 하안은 “鄉은 向함이라고 하였으니 古字에는 같았다. 사람이 강직하지도 의지가 굳세지도 못하여 사람을 만나면 번번이 그 사람의 취향을 근거하여 아첨해 迎合함을 이르니 이것이 덕을 해치는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옛 해석에 두 가지 설이 있다”라고 제시하면서 주생렬은 향(鄉)은 ‘고향’으로 보고 原은 ‘살피다’로 보았으나 하안은 鄉은 ‘향하다(向)’라고 보고 原은 ‘근거하다’라고 보았다.

탕밍구이(2004)는 “앞은 ‘鄉’을 글자 그대로 읽는다. 뒤는 ‘鄉’과 ‘향하다(向)’를 같게 읽는다. 그 原자를 해석하면 동시에 ‘인정을 살피다(原人之情)’라고 이른다.”라고 하였다. 또한 탕밍구이(2009)에서도 “原은 ‘인정을 살피다(原人之情)’”라고 보았다. 탕밍구이의 의견에 따르면 주생렬의 견해는 ‘고을마다 살피다’로 보아야 하고, 하안의 견해는 ‘(상대를) 향해서 살피다’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논어의소』에서는 원을 ‘근거하

다(原本)'라고 제시하였으므로 모두 '살피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쉬싱훤, 엔첸신(2009)에서 “전인 연구에 따르면, ‘一曰’이하 주문은 일반적으로 하안 자신의 주석이다. 이곳은 하안 자신의 주석이 주생렬의 주석보다 낫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주생렬의 주문을 함께 수집했고 그 학술적 포부를 철저히 드러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주생렬의 주석보다 하안의 주석이 나은지는 알 수 없어 양설병존을 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논어집주』에서는 다음과 같다.

郷은 鄙俗의 뜻이다. 原은 愿과 같으니 『荀子』 「正論」에 原慤을 註에서 “原은 愿으로 읽는다.”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 郷原은 시골 사람에게 근후한 자이니 流俗과 동화하며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한다. 이 때문에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독 근후하다고 칭하는 것이다. 夫子께서 德과 비슷하나 덕이 아니어서 도리어 덕을 어지럽힌다고 여기셨다. 그러므로 德의 賊이라고 말씀하여 매우 미워하신 것이니 『孟子』 마지막 편(盡心 下)에 자세히 보인다.

郷은 ‘시골사람, 비루한 사람(鄙俗)’이란 뜻이다. 原은 ‘근엄하다愿’와 같으니 『순자』 「정론」에 原慤을 주에서 “原은 愿으로 읽는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라고 하였다.¹⁴⁾ 향원은 ‘시골 사람 중에 근후한 자’라고 하였다. 또한 『맹자』 「진심 하」에 자세히 나온다고 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맹자는 “향원은 엄연히 세상에 아첨하는 자라고 하였다. 또한 原人は 비난하려 하여도 들 것이 없으며 풍자하려 하여도 풍자할 것이 없어서 流俗과 동화되며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여 거함에 충신과 같으며 행함에 청렴결백과 같아서 여러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 스스로 옳다 여기되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 “원은 또한 근후한 칭호인

14) 순자 정론에서 愿慤이 두 차례 나오는데 忠厚恭謹이라고 貴州人民出版社의 백화문에서 해석하고 있다.

데 공자께서 ‘덕의 적’이라고 하셨으므로 만장이 의심했는데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유속과 동화하며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여 거함에 충신과 같으며 행함에 청렴결백과 같아서 여러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 스스로 옳다 여기되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덕의 적이라고 하셨다.’¹⁵⁾라고 하였다. 주희는 原을 愿으로 보아 시골 사람 중에 근후한 자라고 보아서 『논어집해』와는 다른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후 이 견해는 『맹자』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도 鄉原을 “순수한 시골 사람(The ‘honest villager’)”과 “시골 사람(The village worthy)”으로 보았으며 Arthur Waley(1938)의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해 긴 논의가 『맹자』에서 보인다고 하였으며, D. C Lau(1979)의 주석에서도 이 구절의 고심이 『맹자』에서 보인다고 주석을 닦으로써 “鄉原”을 “시골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맹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3. 결론

본고는 『논어집해』의 양설병존이 나타나는 7구절이 후대의 주석서인 『논어의소』, 『논어주소』, 『논어집주』에 어떻게 전승되었는지와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의 해석학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양설 병존이란 동일한 구절에 대해 두 개의 다른 견해가 나타나는 것이며, 주석자가 기존의 여러 견해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정확하지 않아서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남긴 것이다. 형식적으로 『논어집해』에서는 한 구절에서만 하안은 ‘의심스러워 두 가지 모두 여기에 실어놓는다’고 하면서

15) 성백효,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10.

다른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6구절은 두 가지 의견만 제시하였다. 『논어집해』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제가의 좋은 점만을 모아 [今集諸家之善者]’ 주석을 달았는데 양설이 병존하는 7구절은 하안도 어떤 설이 더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워 후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모두 적어 둔 실사구시하는 학자의 신중한 태도일 것이다. 이것은 『논어집해』를 저본으로 삼고 있는 『논어의소』와 『논어주소』에도 ‘소불과주’의 원칙에 따라 황간과 형병 모두 양설에 대한 근거를 소에 각각 밝혔을 뿐, 양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형병의 『논어주소』는 시기적으로는 신주에 가까우나 양설 병존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고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양설 병존되는 7구절의 『논어집주』로의 전승 양상은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데 첫째, 양설의 차이에 관심이 없이 단순화하거나 둘째, 양설 중 하나를 택하거나 셋째, 고주와는 다른 새로운 설을 제시하기도 하여 양설이 그대로 전승된 경우는 없었다. 황간과 형병의 소는 하안의 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는 고석명물을 중시하는 훈고학적 특징을 가지는 데 반해서 주자의 주는 의리를 강조하는 성리학에 입각한 새로운 독창적 주석서라는 특징이 드러난다. 이것은 고주와 신주, 한학과 송학의 차이이기도 하다.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 Arthur Waley(1938)은 주희(Chu Hsi/朱熹)도 ‘원조자라기보다는 전달자(transmitter rather than an originator)’라고 하였다. 그의 주된 목적은 정호, 정이 형제(brother Ch'êng)가 가르친 새로운 유교 경전을 대중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희는 위대한 학자로 불렸지만 학문(scholarship)와 신학(theology)의 차이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그의 방법은 모든 시점에서 학자(scholar)가 아닌 신학자(theologian)라고 하였다. 학자로서 고전이 쓰였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발견하는 것은 그의 목표가 아니었으며, 그는 정호, 정이 형제의 가르침과 공자의 말씀에 동등하게 구현된 한 가지 진리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항상 끊임없는 번역과 각색을 통해 주희는 다루기 힘든 본문을 진리와 일치하게 하여, 결국 『논어』가 정호, 정이 형제의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던 것과 같은 정통 성리학 논문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주희는 위대한 인기 교육자였고, 전도사였으나 결코 학자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주희가 성리학이라는 이념으로써 『논어』를 바라보았고, 순수하게 학자로서 『논어』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양철병존이 되고 있는 7구절에 대해 Arthur Waley(1938)의 해석적 관점은 주희의 『논어집주』와 일치하고 있다.

D. C. Lau(1979)는 『논어』의 세 가지 버전 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어』의 현재 버전은 하안(Ho Yen/何晏)에 의해 편집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로 장우(Chang Yü)와 정현(Cheng Hsüan) 버전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절충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7구절의 내용은 하안의 『논어집해』와는 차이를 보이고, 오히려 주희의 『논어집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후대 주석가가 처한 역사적 배경과 언어의 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기존 견해들과 자신의 견해 중 하나 이상의 의견을 남긴 것이 논어 주석서의 시작일 것이다. 보통의 주석은 한 경우에 하나의 주석만 남겨두려는 단일화 경향성 때문에 대부분 한 가지 주석만 남겨두고 있지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살펴본 바와 같이 양철병존을 하였다. 그리고 Arthur Waley(1938)와 D. C. Lau(1979)의 『The Analects of Confucius』에서 양철병존 구절은 주희의 『논어집주』와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7구절이 아

닌 전체적인 해석학적 비교를 통해 『논어』 텍스트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논어집해』 연구는 초보적 단계이고, 앞으로 경학적인 측면이나 주석학적 측면에서 한층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논어집해』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논어』에 대한 해석의 역사가 정밀하게 완성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Arthur Waley(1938), 『The Analects of Confucius』, The Macmillan Company.

D. C. Lau(1979), 『The Analects of Confucius』, Penguin books.

2. 논문

- 國內

김용재(2009~2010), 「『論語集解』와 『論語集註』의 註釋 比較를 통해 본 『論語』經文의 理解 [1]~[3]」, 『漢文教育研究』 第31號, 第34號, 第38號.

박홍수(1975), 「韓·中 古代 量田法에 관하여」, 『東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Vol.1 No.1.

신원철(2013), 「『經傳釋詞』에 나타난 因聲求義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이강재(1998), 「『논어』 上十篇의 解釋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재석(2003), 「古逸叢書本《論語集解》훈고 중의 聯合式複合語」, 『중국어학연구』 제26집.

- 國外

曲英杰(1994), 「漢魯城靈光殿考辨」, 『中國史研究』, 第1期.

喬秀巖(2009.3), 「鄭, 何注『論語』의 比較分析」,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6卷 第2期.

- 唐明貴(2004),「何晏『論語集解』探微」,『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6期.
- 宋綱(2005.12),「『論語集解』產生的原因與背景」,『煙臺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2卷 第4期.
- 宋綱(2008.11),「何晏的『論語』學 研究」,『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第6期.
- 賽子豪(2015),「經玄之際—論何晏在『論語集解』中詮釋方法與視域的兩個向度」,『許昌學院學報』,第34卷 第4期.
- 徐向群,閔春新(2009.10),「何晏『論語集解』研究」,『求索』.
- 若水(2006),「玄學背景下的魏晉南北朝『論語』學研究」,『北京大學研究生學志』,第86期.
- 楊鴻源,陳曉龍(2010.3),「『論語集解』以玄釋儒辨」,『社科縱橫』,總第25卷第3期.
- 閔春新(2010),「『論語集解』何晏注初探」,『齊魯學刊』,第2期 總第 215期.
- 張錦輝(2012.10),「『論語』何晏注文探析」,『語文知識』,第4期.
- 張長勝(2006),「『論語集解』研究」,曲阜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張志明(2010),「『論語集註』與『論語集解』訓詁比較研究」,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周昌梅(2005.1),「何晏『論語集解』板本考辨」,『古籍整理研究學刊』,第1期.
- 黃帥(2005),「何晏『論語集解』訓詁研究」,南京師大學 碩士學位論文.
- 黃帥,康尙文(2006.11),「何晏『論語集解』的成就及影向」,『井岡山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第11期 第2卷.
- 黃帥(2007),「『論語集解』訓釋思想上的特點」,『文學語言研究』,2007.11號上旬刊.
- 許吉芬(2011.3),「何晏『論語集解』所反映的玄學思想」,『社科縱橫』,總第 26卷.

A Study of 『Lunyujijie』's Coexistence of Two Theories Phenomenon

Choi, Si J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coexistence of two theories” phenomenon shown in the four major commentary books, including Heyan何晏's 『Lunyujijie』. And I looked at how the Confucius Quote is interpreted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I looked at the variation process of 7 Confucius Quote in 『Lunyujijie』 that shows coexistence of two theories, in later commentary books 『Lunyuyishu論語義疏』, 『Lunyuzhushu論語注疏』, 『Lunyujizhu論語集註』. In addition, I looked at 『The Analects of Confucius』 of Arthur Waley(1938) and D. C. Lau(1979) more.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on what perspective 『The Analects of Confucius』 views the text of 『The Analects』 through a holistic hermeneutic comparison rather than the 7 Confucius Quote of the coexistence of two theories will proceed in the future.

Key Words

coexistence of two theories, 『The Analects of Confucius』, 『Lunyujijie』, 『Lunyuyishu』, 『Lunyuzhushu』, 『Lunyujizhu』, Heyan

논문접수일: 2020. 2. 12, 심사완료일: 2022. 6. 28, 게재확정일: 2022. 6. 30

* Master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eacher, Shindo Middle School / E-mail: sijeong82@hanmail.net

『說文解字』 부속자에 의한 부수의 의미 확정 *

— 走部와 辵部の 비교를 중심으로

신원철 **

-
1. 서론
 2.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부수
 - 1) 부수의 의의
 - 2) 부수의 역할
 3. 부속자를 통한 부수 의미의 확정
 - 1) 走部가 가지는 의미역
 - 2) 辵部가 가지는 의미역
 - 3) 동일한 성부를 취하는 글자에서 부수의 의미
 4. 결론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설문해자』 부수(部首)의 부속자(附屬字)를 통해, 그 부수의 의미 영역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卷二에서 走部와 辵部를 중심으로 해당 부속자를 비교하여, 해당 부수의 본의(本義)와 파생의(派生義)를 상정할 것이고, 서로 동일한 성부(聲符)를 취한 각 부수의 부속자를 선택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각 부수의 부속자

* 본 논문은 2019년 6월 1일 한국중국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당시 토론자 및 참석자의 조언과 질정을 바탕으로 논문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이 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HK+사업단 HK조교수 / E-mail: chimsky@gmail.com

의 배열은 해당 부수의 파생 관계와 의미 영역을 나타낸다. 성부(聲符)가 동일한 글자의 의미상의 차이는 즉 각 부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설문해자(說文解字)』, 부수(部首), 부속자(附屬字), 의미 영역, 성부(聲符), 주부(走部), 착부(辵部), 배열(排列)

1. 서론

본 논문은 『설문해자』(이하 『설문』이라 한다.)의 부수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는 부수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해당 부수에 속하는 부속자를 분석하여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문』의 부수에 대한 설명은 매우 간략하다. 본 논문에서 들고자 하는 走부와 辵부의 설명을 비교하여 예시로 들고자 한다. 走부는 『설문』 권2상에, 辵부는 권2하에 속한다. 해당 부수자에 대한 설명은 각각 다음과 같다.

‘走’는 빠르게 움직인다는 의미이다.(走, 趨也.)(『설문』 권2상 走部 ‘走’字)

‘辵’은 가다 서다 하는 것이다.(辵, 乍行乍止也.)(『설문』 권2하 辵部 ‘辵’字)¹⁾

1) 趙宗乙(2013), 33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오형(高亨)은 『문자형의학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辵을 의미 성분으로 사용하는 글자는 모두 달려나가는 의미를 취한다. 그렇다면 ‘辵’이라는 것은 가다[行]의 의미이지, 가다서다하는 의미가 아니다.’(『설문』 본문에서 언급한 “讀若『春秋公羊傳』‘辵階而走’에 대해) ‘辵階而走’라는 것은, 지금 판본 『공양전·선공 6년』에서는 ‘躋階而走’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하휴 주에서 말하였다. ‘빠르게 서두르는 것과 같아서, 멈출 틈이 없다.’ 당 육덕명의 『석문』에서 말하였다. ‘躋자는 다른 판본에서는 辵으로 되어 있다.’ 이때의 ‘辵’은 ‘超遽’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이는 빠르게 움직임을 말한다.”(高亨『文字形義學概論』云: “從辵之字, 皆取行走之義, 則辵者, 行也, 非乍行乍止也。” “辵階而走”者,

이 둘은 결국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빠르게, 하나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말로도 ‘달리다’와 ‘걷다’의 차이를 구분할 때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다. 어느 시점이 달리는 것이고, 가다 서다 하는 상황을 구분해주어야 했을까? 또한 부수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부수자에 대한 설명이지 해당 부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부수를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수자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해당 부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충하고자 趙宗乙(2013)에서는 부수를 상세히 풀이하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서 대표적인 글자를 제시하면서 분석한 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설문』의 부속자에 주목하였다. 염정삼(2016)에서는 『설문』 내의 부속자의 의미 파생 관계 등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원용하여 부수의 의미역을 설정하고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부수 사이의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다른 부수 사이에서 성부를 공유하는 글자가 있다.²⁾ 단어의 의미는 해당 발음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³⁾, 성부를 같이 쓴다는 것은 그 해당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다. 부수는 이때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요소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이다. 먼저 부수

今本『公羊傳·宣公六年』作“蹻蹻而走”，何休注：“猶超遽，不暇以次。”唐·陸德明『釋文』云：“蹻，一本作蹻。”是“蹻”又有“超遽”義，謂行之疾也。）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면 ‘蹻’의 『설문』에서의 풀이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의 논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오히려 ‘走’와 ‘蹻’의 설명이 차이가 없는 편이 해당 부속자를 비교하여 의미적 차이를 찾아내야 하는 당위성이 형성되므로 더욱 설명에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래의 형태를 찾고 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의 주제로 남겨 두고 여기에 참고 사항으로 기재하고자 한다.

2) 走部和 蹻部 사이에서 이에 해당하는 자세한 목록은 3.3을 참조할 것.

3) 이러한 방식을 인성구의라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신원철(2014) 제2장 참조.

가 가지는 의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부수가 어떻게 존재하고 허신의 입장에서 이들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부속자 중에서 ‘走’와 ‘辵’를 들어 그 속에서의 의미의 분포를 확인하여 각 글자의 의미역을 확정할 것이다. 또한 走部와 辵部 사이에 성부를 공유하는 글자를 비교하여 각자의 역할 또는 성부 공유의 이유를 밝히고, 이를 통해서 현재까지 한자에 있어 중요한 의미 전달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부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부수

1) 부수의 의의

『설문』의 부수에 대한 정의로는 염정삼(2007)에서 상세히 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면서 중국에서의 연구 성과 등을 들어 그 정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염정삼(2007)에서는 『설문·서』를 인용하여 부수를 설명하였다.

『설문』서에서는 부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수를 세울 때는 ‘一’을 단초로 하여 방소는 類로서 모이고 만물은 群으로 나누었다. 동일한 조항은 연결되도록 하고 상관하는 이치가 전체를 꿰뚫게 하였다. 서로 다 함께 섞여 있으나 이치를 벗어나지 않게 하였고 자형에 근거하여 연관되도록 하였으며 의미의 확장과 발전을 통하여 만물의 이치를 窮究하였다. 마지막으로 ‘亥’에서 끝을 맺어 오묘한 변화를 다 알 수 있게 하였다.(其建首也, 立一爲端. 方以類聚, 物以群分. 同條牽屬, 共理相貫. 雜而不越, 據形系聯, 引而申之, 以究萬原. 畢終於亥, 知化窮冥.)⁴⁾

이와 같은 부수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부수는 ‘類’와 ‘群’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둘 다 ‘무리’를 나타내는 ‘類’와 ‘群’은 다수의 사물이나 현상 등에 특징을 부여하여 묶는 것을 가리킨다.⁵⁾ 이와 같은 분류의 기준점으로서 부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수는 해당 글자의 의미를 담당한다.⁶⁾ 이때 한 가지 주목할 부분으로는 육서 중 회의자에 대한 것이다. 회의자는 의미가 합쳐서 만들어진 자이다. 이들은 모두 의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해당 의미가 속한 글자에는 모두 수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信’은 ‘從人從言’으로 구성되어 人部나 言部에 모두 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설문』에서 ‘信’자를 찾으면 卷三上 言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왕균은 『설문석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허신이 문자를 배열할 때에, 형성자는 반드시 의미적으로 속하는 형태에 부속되도록 하였다. 이는 의미를 주로 한 것이다. 회의자는 두 가지의 의미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로 의미를 가지는 것과 종속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로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부수로 부속하였다. 이것은 통례이다. (許君之列文也, 形聲字必隸所從之形, 以義爲主也. 會意字雖兩從, 而意必有主從, 則必人主意一部, 此通例也.)⁷⁾

이는 해당 글자의 주요한 의미를 통해 하나의 부수에 부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점에 착안하여 왕균은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이

4) 엄정삼(2007)에서 재인용.

5) 『설문』에서 ‘類’는 “種類相似, 唯犬爲甚。”으로, ‘群’은 “輩也。”로 풀이하였다. 모두 ‘무리’를 나타내고, 유사한 것끼리 묶어냄을 가리킨다.

6) 이를 『설문』의 표현으로 보자면 ‘從某’이다.

7) 『說文釋例』 卷一, p.15, 黃天樹(2014), 152-153면에서 재인용, 번역은 발표자가 덧붙인 것이다.

다. 필자는 왕균의 설명 중에서 ‘主從’의 개념으로 풀이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한 의미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꿀 때 기준으로 삼을 내용은 바로 ‘類’와 ‘群’ 부분이다. 즉 ‘무리’에 속할 만한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의미부가 부수로 자리 잡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2) 부수의 역할

앞에서 부수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분류의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의는 실상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점에서 좀 더 나아가 부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부수를 분류의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면 이는 글자에서 부수를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단 허신의 의도는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 요소가 있다. 특히 부속자를 가지지 않는 부수가 36개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⁸⁾

그렇지만 부수가 성립되어 체제로 쓰인 상황을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는 또한 부수의 역할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허신이 540 부를 세워 이를 기준으로 『설문』을 편찬하였다. 그렇지만 부수로 묶는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주』, 『창힐』, 『원력』, 『박학』 등 옛날 글자 학습서에서 나타나는 집자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왔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창힐』에서는 ‘江漢滄汾, 河漭池

8) 黃天樹(2014), 151면에서 그 목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속자 없는 부수(이를 ‘空立의部首’라 하였다.)에 대해 1. 의미나 다양한 이유로 다른 부수에 편입시킬 수 없는 것, 2. 다른 글자가 만들어질 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시한 것 등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漳, “蘿藦薊葉, 薺芥萊荏” 등 네 자씩 글자를 묶었는데, 의미상으로 유사한 글자를 모으면서 그 구성요소인 ‘水’나 ‘艸’를 기준으로 묶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⁹⁾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설문』에서 해당 글자들을 “각각 부수에 속하면서 서로 섞이어 놓이지 않았다.(分別部居, 不相雜廁也.)”를 실현하면서, 이후 부속자들을 ‘各得其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부수 성립의 배경에서 한 가지 부수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로 부각되는 것이 ‘의미의 확정’이다. 즉 다양한 성부로 표시하는 음에 대해 그 의미를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들었던 『창힐』의 예문들도 그 해당 음만으로는 음이 주는 다양한 의미 속에서 확정 짓기 어렵다. 따라서 문자로 표시할 때 해당 발음뿐만 아니라 그 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중 어느 ‘무리’에 귀속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역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構詞法’에서 부수의 역할을 찾아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설문』에서의 부수는 형태적 측면에서 그 의미적 분류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3. 부속자를 통한 부수 의미의 확정

2장에서 부수에 대해 정의하고, 그 역할을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초 하에서, 부수자의 정확한 의미역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는 부속자의 의미를 추리고 의미간의 상관관계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염정삼(2016)에서 ‘口’부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

9) 자세한 내용은 黃天樹(2014), 68-9면 설명 참조.

었다. 이를 통해 '象'으로 표현되는 의미 내용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화하였는지를 밝혔다. 이때 나왔던 큰 결론 중 하나는 본의에 가까운 글자에서 파생된 의미 순으로 배치되고, 그 사이에 연결이 되는 글자가 있다는 것이다.¹⁰⁾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원용하여 走部和 趨部の 부속자를 분류, 파악한 후에 이를 통해 부수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확정짓고자 한다. 아울러 동일한 성부를 사용하지만 각각의 부수에 나뉘어 있는 자를 살펴 이들이 나뉘게 된 연유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1) 走部가 가지는 의미역

走자를 부수로 하는 글자는 부수자를 포함하여 총 84자이다. 이들의 의미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본래 의미(走~赴) → 추상화와 동작의 분화, 부수적 행동(趣~趨) → 모습의 묘사(趨~趨) → 행동의 의도(趨~趨) → 다양한 상황, 추상적 연면사(越~趕)

趙宗乙(2013) 28-29면에서는 走部の 부속자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1. 진행 중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을 드러낸다.(突出進行中步伐疾速的特點。) 2. 뛸 때 뛰어오르는 특징을 드러낸다.(突出跑動中騰空跳躍的特點。) 3. 뛰어 움직일 때 가벼우면서도 힘 있는 특징을 드러낸다.(突出其跑動時輕勁有力的特點。) 4. 기타 움직이는 것과 관련 있는 의미를 나타낸다.(表示其他與行走相關的意義。) 앞에서의 분석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 동일한 부속자로 파악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은 경향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10) 염정삼(2016) 110-117면 표 참조.

있다.

이와 같은 분포는 허신이 글자를 배치함에 있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부수가 가지는 의미의 파생 정도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직접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에서 행동의 묘사나 부수적인 상황 등으로 나아감을 알 수 있다. 이 중 추상화, 동작의 분화, 부수적 행동 등으로 묶인 부분은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글자의 배열에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네 번째 글자인 ‘趣’이다. 이 글자는 뒤에 나올 ‘趣’자와 더불어 모습의 묘사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의미 분포 분석과 趙宗乙(2013)의 내용을 통해 나타나는 走部가 포함하는 의미역은 다음과 같다.

달리다. → 달리는 행동에서 구분적,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뛰다, 넘다, 건너다. → 달리는 모습에 대한 묘사. → 달리고자 하는 의도 → 그 외의 다양한 상황 및 추상적 의미의 연면사

2) 走部가 가지는 의미역

走자를 부수로 하는 글자는 부수자를 포함하여 총 130자이다. 이들의 의미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가다 서다(辵(迹)) → 이동의 구체적 정황(遶~邁) → 이동 중 나타나는 부수적 행동(巡~邁) →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이동(速~邁) → 이동의 묘사(邁) → 이동에서 상상 가능한 다양한 행동(邁~迂) → 이동과 관련한 부수적인 요소, 추상적 의미의 연면사(逮~遙)

趙宗乙(2013) 33-34면에서는 辵部의 부속자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1. 일반적인 각각의 특색을 가진 이동을 나타낸다. (表示一般的各具特點的行走。) 2. 이동의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表示行走的不同狀貌。) 3. 앞으로 이동함을 나타낸다. (表示向前行走。) 4. 서로 만남을 가리킨다. (表示對面相遇。) 5.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表示返回原地。) 6. 도망을 나타낸다. (表示逃亡。) 7. 이동 속도를 나타낸다. (表示行走速度。) 8.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낸다. (表示行走的距離。) 9. 기타.(其他.) 이 부분에서는 상세하게 분석을 하였는데,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5.에서는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속에 속하는 '選', '送' 등은 돌아오는 의미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辵部의 의미 중에는 彳部와 이동이라는 의미에서 겹치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¹¹⁾ 이러한 점 때문에 예변하여 彳部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徒'자는 『설문』에서는 '辵'로 辵部에 속하지만 예변하여 '徒'가 되었다.¹²⁾ 이 '徒'에 대해 『강희자전(康熙字典)』에서는 彳部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허신의 의미 배열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走部와 유사한 점이 보인다. 이미 언급했듯이 구체적인 동작에서 출발하여 부수적인 행동과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파생 행동, 부수적인 요소 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 중에 그 위치에 문제가 되는 것은 '辵'자이다.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은 走部에서도 확인했듯이 의도, 상황보다는 앞서서 나오는 것을 볼

11) 그 외에도 辵, 辵, 行 등도 이동이라는 의미로 겹치고 공유한다. 이들은 모두 『설문』 卷二下에 포함되어 있다.

12) 段注：“辵隸變作徒。” 段玉裁(1981) 70면 참조.

수 있다.¹³⁾ 그렇다면 이동의 모습과 관련된 자로는 ‘迺’, ‘透迺’ 등과 함께 현재의 위치나 혹은 ‘迂’자 뒤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의미 분포 분석과 趙宗乙(2013)의 내용을 통해 나타나는 辵部가 포함하는 의미역은 다음과 같다.

가다 서다 → 이동의 구체적 정황 → 이동 중 나타나는 부수적 행동
→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이동 → 이동에서 상상 가능한 다양한 행동 →
이동의 묘사 → 이동과 관련한 부수적인 요소, 추상적 의미의 연면사

앞의 절과 합치하여 보면 부수 내의 부속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본래의 의미를 전반부에 배치하고 이후 파생된 의미를 배치하여 의미상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치에 대해서는 이미 두 부수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와 비교했을 때, 『설문』의 부속자는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배치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走部를 통해서는 달리는 행동과 그 행동에서 파생된 내용뿐만 아니라 달리고자 하는 의도만을 내세우는 것도 그 부수 속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辵部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 설명을 더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辵部에서 다루고 있는 이동의 문제가 좀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 ‘의도[意]’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셋째, 첫째에서 이야기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삽입되었거나 순서에 일치를 주지 못하는 부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본 논에서도 이러한 원칙 하에 순서에 변동을 주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이 의미역이 다른 두

13) 이러한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수 내 부속자의 배열을 분석해야 한다. 이는 추후에 추가하도록 하겠다.

글자 사이에 동일한 성부를 취하는 글자를 통해 해당 부수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3) 동일한 성부를 취하는 글자에서 부수의 의미

앞 두 절에서 이미 두 부수 내의 의미역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둘 사이에 의미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이에서 의미가 유사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파생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동일한 성부를 취하고 있는 글자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동일한 성부를 취하는 走部와 辵部の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연번	走部	훈석	발음	辵部	훈석	발음	공통성부
1	超	跳也	敕宵切	迢	迢, 遶也	徒聊切	召
2	越	度也	王伐切	越	踰也	王伐切	戍
3	趙	趙趙也	七雀切	遣	迹遣也	倉各切	昔
4	趨	走意	布賢切	邊	行垂崖也	布賢切	鼻(鼻)
5	趨	趨趨也	居謁切	遏	微止也	烏割切	曷
6	趨	疾也	況袁切	還	復也	戶關切	罨
7	迄	直行也	魚訖切	迄	至也	許訖切	气
8	越	趨也	都禮切	迤	怒不進也	都禮切	氏
9	趨	趨趙, 久也	直离切	迳	遷徙也	弋支切	多
10	趙	趨趙也	治小切	逍	逍遙也	相邀切	肖
11	赴	行難也	丘董切	近	附也	渠遴切	斤
12	越	遠也	敕角切	遠	遠也	敕角切	卓
13	趨	狂走也	余律切	遙	回避也	余律切	喬
14	趨	趨趨也	七余切	退	往也, 齊語	全徒切	且
15	趨	趨趨也	力玉切	遼	行謹也	盧谷切	杲

16	越	行越越也	七倫切	逡	復也	七倫切	夔
17	越	越鷲也	直离切	遞	更易也	特計切	虬
18	越	喪辟越	余隴切	通	達也	他紅切	甬
19	越	雀行也	徒遼切	逃	亾也	徒刀切	兆
20	趕	舉尾走也	巨言切	迂	進也	古寒切	干

이때 발음을 기준으로 그 같고 다름을 통해 의미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인성구의에 입각한 접근으로 의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그 발음 속에 있음에서 착안한 것이다.

발음이 동일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연번	走部	훈석	발음	辵部	훈석	발음	공통성부
2	越	度也	王伐切	越	踰也	王伐切	戛
4	越	走意	布賢切	邊	行垂崖也	布賢切	鼻(鼻)
8	越	越也	都禮切	遞	怒不進也	都禮切	氏
12	越	遠也	敕角切	遠	遠也	敕角切	卓
16	越	行越越也	七倫切	逡	復也	七倫切	夔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통할 것으로 짐작하였으나, 1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두고 있다. 12번도 다음자로 의미적 분화가 가능하겠지만 『설문』에서 ‘遠’에 대해 “讀若棹菴之棹”로 음을 확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는 발음을 통해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해당 발음의 글자가 쓰이는 환경이나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走部和 辵部 각각 부수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음이 다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연번	走部	훈석	발음	彡部	훈석	발음	공통성부
1	超	跳也	敕宵切	迢	迢, 遶也	徒聊切	召
3	趙	趙趙也	七雀切	遣	迹遣也	倉各切	昔
5	趨	趨趨也	居謁切	遏	微止也	烏割切	曷
6	趨	疾也	況袁切	還	復也	戶關切	霰
7	迄	直行也	魚訖切	迄	至也	許訖切	气
9	趨	趨趙, 久也	直离切	逖	遷徙也	弋支切	多
10	趙	趨趙也	治小切	逍	逍遙也	相邀切	肖
11	迓	行難也	丘莖切	近	附也	渠遴切	斤
13	趨	狂走也	余律切	遜	回避也	余律切	審
14	趨	趨趨也	七余切	迕	往也, 齊語	全徒切	且
15	趨	趨趨也	力玉切	遯	行謹也	盧谷切	泉
17	趨	趨驚也	直离切	遞	更易也	特計切	庇
18	趨	喪辟趨	余隴切	通	達也	他紅切	甬
19	趨	雀行也	徒遼切	逃	亾也	徒刀切	兆
20	趕	舉尾走也	巨言切	迂	進也	古寒切	干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록 같은 성부를 사용하지만 발음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따라서 의미적으로는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동일한 성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성부가 나타낼 수 있는 음은 하나의 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1번에서의 성부로 쓰인 '召'는 『광운』 기준으로 '直照切'과 '寔照切'로 구분된다. 이러한 성부를 사용한 글자 또한 각각 다른 발음을 나타내면서 의미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설문』 부속자를 통해 부수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走部和 辵部를 비교하면서 그 의미역을 살펴보고 동일한 성부를 사용하는 글자를 통해 각 부수의 의미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부수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부수는 ‘類와 群’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부수가 발생한 상황으로는 집자를 한 이전의 학습서에서 착안하여 허신이 이를 의미 분류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였다. 역할로서는 분류뿐만 아니라 ‘의미의 확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走部和 辵部の 부속자를 전면적으로 분석하면서 부수 내에서 이를 대분류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파생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走部和 辵部の 부속자는 이러한 점에서 충실하게 나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기준 내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에 대해서 판단하였다. 또한 두 부수 사이에서 동일한 성부를 공유하는 글자들을 추출하여 발음을 기준으로 동일한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발음이 동일한 것은 부수의 의미에 맞추어 둘 사이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동일한 점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발음이 다른 것은 하나의 성부가 다음자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음을 통해 의미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부속자를 통해 부수의 의미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3장의 두 절에서 走部和 辵部の 의미 파생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走部和 辵部の 의미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본의와 파생의가 부속자의 범위 내에서 배치되고, 그 배치된 의미가 즉 각 부수의 의미역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나머지 부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자의 본의

와 파생의 사이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段玉裁(1981),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연구논저〉

신원철 (2014), 『『경전석사』에 나타난 인성구의 연구』, 역락.

엄정삼(2007), 『『설문』 부수자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 (2016), 「유(類)와 상(象)을 통한 문자의미의 생성과 분화 - 『설문』 구(口) 부를 예증으로」, 『중국어문학지』 54집.

趙宗乙(2013), 『『說文解字』部首詳解』, 黑龍江人民出版社.

黃天樹(2014), 『說文解字通論』, 北京大學出版社.

Determining the Meaning of Radicals in Chinese Character by
Way of Subsidiary Characters in 『Shuowenjiezi說文解字』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Zou走 Part and Chuo辵 Part

Shin, Wonchul*

This thesis aims to determine the meaning of radicals in Chinese character by way of subsidiary characters in 『Shuowenjiezi說文解字』. This thesis focuses on the comparison between Zou走 and Chuo辵 parts in 『Shuowenjiezi說文解字』. Through this research, the original and derived meanings of Zou走 and Chuo辵 parts will be assumed. Subsidiary characters which have the same phonetic component in the Zou走 and Chuo辵 parts were selected and clarified the difference among them.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The arrangement of subsidiary characters in each radical shows the derivation relation and semantic fields of the radical. The difference of meaning in subsidiary characters which have the same phonetic component can be understood as a feature of each radical.

Key Words

『Shuowenjiezi說文解字』, radicals in Chinese character, subsidiary characters, semantic fields, phonetic component, Zou走 part, Chuo辵 part, arrangement

논문접수일: 2022. 1. 20, 심사완료일: 2022. 6. 28, 게재확정일: 2022. 6. 30

* 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Theology HK+ Project HK assistant professor / E-mail: chimsky@gmail.com

『시경』 연구 교류의 場 : 中國詩經學會 학술 동정

김수경*

들어가며

中國詩經學會는 1993년에 설립된 중국의 『시경』 연구 학회다.¹⁾ 경학 문헌 가운데 『시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술 단체로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는 학회에 해당한다.²⁾ 현인 王長華 회장은 河北師範大學 교수다. 학술대회는 주로 2년에 1회씩 개최하며 중국대륙 외에 대만, 홍콩, 한국, 일본, 미국 등지의 연구자들도 참여한다. 2021년 8월에 10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제14회 국제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 제15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고는 중국시경학회의 주요 활동 성과와 해당 학회가 주최한 최근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 E-mail: dansill@hanmail.net

- 1) 학회에 관한 주요 소개는 학회홈페이지(<http://wxy.hebtu.edu.cn/a/zgsjxh/xhjj/index.html>)를 참고할 수 있다. 단, 2022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볼 때, 학회 홈페이지의 정보가 2015년 이후로 갱신되지 않고 있다.
- 2) 日本詩經學會가 중국시경학회보다 일찍 결성되어 『詩經研究(The Journal of Shi-Jing)』도 1974년 10월부터 출간되었으나 2014년 12월 이후로는 학회지 및 학술 활동 거의 검색되지 않고 있다. 『詩經研究』, 小牧: 日本詩經學會/詩經學研究センター, 1号, 1974年10月~2014.12.(36호)까지 검색됨(<http://wxy.hebtu.edu.cn/a/2015/10/23/20151023110024.html>), 한편 우리나라의 한국시경학회는 『詩經研究』, 創刊號를 1999년에 출간한 이후에는 학회지 출간이 없다.

학술대회인 제14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요 발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시경』에 관심 있는 연구자에게 참고가 될 뿐 아니라 한국경학학회 등 경학 연구 중심 학회의 다양한 역할을 모색하는 데 일정 정도 참고가 되고자 한다.

연구 성과 축적을 위한 활동

중국시경학회는 해당 학회의 학술대회 성과를 학술대회 논문집과 『詩經研究叢刊』이라는 학술지로 출판하고 있다. 『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은 학술대회 논문집으로 학술대회용 논문집과 學苑出版社에서 출판하는 논문집이 있다. 근래 들어서는 학술대회 때 사용되는 논문집으로 충당하고 별도로 출간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詩經研究叢刊』은 비정기 간행 학술지다. 격년 학술대회를 기준으로 발표문을 정리해 잡지로 엮는 방식을 취한다. 2021년에 32집이 간행되었다. 중국시경학회의 학술대회 발표논문집과 학술지 편찬 방식은 다른 학회가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기본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중국시경학회가 학회 내 활동의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시경』 관련 연구 목록 정리는 기존 연구 성과를 전면적으로 축적하고 검토하여 향후 연구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본고는 이와 관련한 중국시경학회의 역할을 기타 관련 학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시경』 연구 성과 축적 작업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된다. 村山吉廣·江口尙純의 『詩經研究文獻目錄』은 일본 연구 목록인 邦

文編(1868~1990)에서 761항목, 중국 연구 목록인 中文編(1900~1990)에서 4,742항목을 정리했으며³⁾ 이후 증보 작업들이 日本詩經學會 학술지인 『詩經研究』에 개별 연구로 제출된 바 있다.⁴⁾ 한국에서는 홍유빈(2020)의 「최근 5년(2014.01~2019.10)간 국내 시경학 연구 현황」⁵⁾에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된,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91편의 연구논문 목록 및 주요 연구 경향을 한국경학학회 학술지인 『經學』에 소개한 바 있는데, 이 또한 한국경학학회에서 최근 관련 연구 동향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학술지 편집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寇淑慧의 『二十世紀詩經研究文獻目錄』(1901-2000)이 총 5,729항목, 補遺 20항목을 정리하였으며,⁶⁾ 대만에서는 周何의 『十三經著述考(一)·詩經著述考』⁷⁾가 書目, 역사서, 문집 서발문, 고증논평 등의 해제를 포함하여 총 9,115항목을 수록했다. 이 정리는 성격상 연구 목록과 저술 목록이 혼재하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중국 대륙 외 대만·홍콩 등지에서의 후속 연구 성과는 夏傳才·馬輝洪·寇淑慧에 의해 『中國香港·台灣地區詩經研究文獻目錄(1950-2010)』으로 정리된 바 있다.⁸⁾ 이 중 夏傳才(1924~2017)는 중국시경학회의의 전임 회장으로 본 학회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오랜 기간 학회를 견인한 학자로서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경』 연구 성과 축적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한 내용을 통해 한중일의 『시경』 연구 목록 편찬 작업은 각 나라의 관련 학회와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간에

3) 村山吉廣·江口尙純(1992).

4) 江口尙純(2000); 江口尙純(2001); 西口智也(2003).

5) 홍유빈(2020).

6) 寇淑慧(2001).

7) 周何 編著(2004).

8) 夏傳才·馬輝洪·寇淑慧(2012).

걸쳐 지속적, 전면적,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학술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학회가 담당할 때보다 많은 연구자가 양질의 학문 기초를 마련하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제14회 국제학술대회에서 王長華 회장은 향후 중국시경학학회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2000년까지 정리된 기존 『시경』 연구 목록(寇淑慧編)에 이어, 중국경학학회의 주관으로 2020년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 중에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는 본 학회가 국가의 학술 지원을 받게 된 ‘二十世紀以來『詩經』研究的回顧와展望’이라는 학술활동 주제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⁹⁾ 이를 통해 『시경』 연구 목록 정리가 개별 연구자와 학회가 긴밀한 연계를 맺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성과 정리와 같이 관련 분야 연구자 전체가 필요로 하는 작업에 대해 학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하겠다.

주요 『시경』 문헌 목록 및 문헌 정리, 전범화를 위한 노력

우리나라 『시경』 연구가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에서 편찬한 『韓國經學資料集成』 문헌 자료에 힘입은 바 크듯, 중국의 『시경』 문헌 목록 및 정리 성과 또한 중국 『시경』 연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劉毓慶(2002; 2008)의 역대 『시경』 저술의 정리와 해제 작업 및 주석별 정리 작업인 劉毓慶·賈培俊·李蹊·張儒(2006)의 『詩義稽考』¹⁰⁾는 중국시경학회에서 주편한 『詩經要籍集成』(2002; 2015) 작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시경학회에서 『詩經要籍集成』編輯委員會

9) 王長華·李娜(2021).

10) 상기 편저는 劉毓慶(2001), 『詩經百家別解考·國風』의 정리를 확장·정리한 주석별 異說 모음집의 성격을 지닌다.

와 함께 2002년에 주편한 『詩經要籍集成』(初編)은 141種의 대표적인 『시경』 要籍을 42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학회는 또한 해당 要籍에 대한 해제를 작성하여 『詩經要籍提要』를 별도로 출판한 바 있다. 이 『제요』에는 『시경요적집성』에 수록된 141종의 저술 외에 부록으로 시경학저작 存目 및 存目 제요 260종, 청대 및 민국시기 저작 輯目 229종 수록하고 있다. 단, 2002년 初編 편찬 당시 현전 『시경』 문헌을 600여종으로 파악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다량의 문헌 자료가 추가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편찬 및 初編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 『詩經要籍集成二編』(修訂本)을 간행하여 善本·抄本·稿本 및 출토문헌 등 103種을 수록하였다.

한편, 2014년에 출판된 夏傳才 主編의 『詩經學大辭典』도 중국시경학회를 중심으로 출판된 연구성과에 해당한다. 上下冊 가운데 上冊은 基本理論卷, 三百篇解題卷, 詩體藝術卷, 出土文獻卷, 歷代詩經學史卷, 現代詩經學卷, 世界詩經學卷, 詩經文化學卷(및 附錄: 現代詩經著述目錄)으로, 下冊은 詩經詞語(4212조항), 詩經成語(693조항), 詩經名物, 詩經言語學(向熹), 中國歷代詩經著述存佚書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은 기존의 『시경』 연구문헌관련 목록서들의 목차구성을 참고하되 근래 부각되는 연구 항목들을 별도로 고려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상기 사전은 축적된 연구 성과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회원을 주축으로 학술성 및 참고자료성을 겸비한 전문학술사전을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시경학대사전』의 「前言」에 따르면 해당 사전은 중국시경학회 2004년 학술대회를 통해 편찬을 결정하고 학회단체 주관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의 성과물이다.¹¹⁾ 학회의 회의를 통해 편찬을 결정하고 실제 출판물을 완성하는 데 이르기까지 총1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11) 夏傳才 主編(2014), 5면 참조.

볼 때 학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살필 수 있다.

그 외, 2021년에 영미권, 일본권, 한국권, 프랑스권의 『시경』 연구를 4책으로 구성한 『世界漢學詩經學』¹²⁾ 또한 중국시경학회가 주축이 된 연구 성과에 해당한다. 이 연구 성과를 통해 중국시경학회의 관심이 중국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시경』 연구 동향에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14회 중국시경학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제 발표 및 한국 시경 관련 발표

중국시경학회는 평균 2년에 1회씩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6년 10월, 廣西大學에서 개최된 제12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148편의 발표가 있었고 2018년 8월, 西北師範大學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102편의 발표가 있었다. 제14회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1년이 늦춰진 2021년 8월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약 100편의 발표가 있었다. 제14회 국제학술대회의 정식 명칭은 ‘中國詩經學會第十四屆年會暨國際學術研討會’로 ‘중국시경학회 제14회 연례회의 및 국제학술연토회’이며 본 장에서는 ‘제14회 학술대회’로 약칭하기로 한다.

제14회 학술대회는 크게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섹션인 ‘『詩經』文獻研究·小學研究·詩旨考辨与歷史研究’에서는 20편이, 제2섹션인 ‘『詩經』文學研究与漢魏詩經學史研究’에서는 25편이, 제3섹션인 ‘宋以后詩經學史研究’에서는 24편이, 제4섹션인 ‘『詩經』文化研究·域外詩經學與詩經漢學研究’에서는 24편이 발표되었다. 섹션 발표 가운데 10

12) 夏傳才·王長華 主編(2021).

편의 발표가 학술대회의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에서 주제 발표 형식으로 재발표되었는데 그중 4편은 별도의 발표문 없이 PPT와 구두로 발표되었다. 10편의 주제발표의 경우, 언어문자혼고, 출토문헌, 문헌고증, 문화제도 분야가 중심을 차지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중국 『시경』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 분야를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10편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한국 시경학 연구와 관련된 3편의 발표를 소개함으로써 제14회 국제학술대회의 시경학의 관심 방향 및 한국 시경학 연구에 대한 관심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0편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학술발표를 전후로 기타 학술지에 게재한 상황이 확인된 경우 게재 학술지를 함께 제시하였다.

1. 李炳海(中國人民大學), 「『詩經』中宛·菀·苑의同源關聯及構成意象」: 因聲求義의 傳統訓詁方法을 運用하여, 宛·菀·苑자 모두 芘자에서 孳生하여 形·音·義가 相通하는 同源字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芘자의 基本含義가 하나는 屈曲의 모습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轉動의 의미를 가리키는데 『詩經』에 등장하는 宛·菀·苑자는 모두 이 두 의미가 運用된 것임을 高찰하였다.

2. 李旭昇(聊城大學), 「『毛詩·小雅·菀柳』探究」: 「菀柳」편의 ‘不尙’, ‘蹈’ 등의 字句 및 詩旨를 분석하였다. 특히 “有菀者柳, 不尙息焉”의 ‘不尙’에 대한 8종의 기존 異說을 종합한 후 ‘不尙’을 「鄭箋」의 ‘庶幾’에 의거하여 ‘원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이를 出토문헌인 『清華大學藏戰國竹簡(柒)·越公其事』의 “孤用委命重臣, [馳]冒兵刃, 匍匐就君, 余聽命於門. 君不尙親友寡人, 抑荒棄孤, 圯墟宗廟, 陟棲於會稽.”구절에 쓰인 ‘不尙’의 用例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3. 趙敏俐(首都師範大學), 「簡論安大簡『詩經』抄本中的訛誤等問題」(2021년 『北方論叢』(哈爾濱師範大學)에 게재): 2015년 安徽大學에서 입수한, 海昏侯 劉賀 墓의 『詩經』(『安徽大學藏戰國竹簡(一)』에 57편(殘簡 포함) 수록)에 대한 자료적 가치에 대해 논하였다. 安大簡 『시경』이 戰國時代 초·중기의 『시경』 孤本, 珍本은 맞지만 善本은 아니며 현전 『모시』 판본이 지닌 완성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安大簡 『시경』을 연구하거나 인용할 때 이 점을 유념할 것을 강조하였다.

4. 李山(北京師範大學), 「從親耕典禮到祭祖儀式: 論『詩經』農事詩篇中的觀念變遷」: 중국 문화사·역사학 분야에서 『시경』을 하나의 총체로 간주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내부에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변천의 맥락을 읽어야 함을 주장했다. 가령 「周頌·噶嘻」편과 같은 초기 작품에는, 祭天典禮로서 農事와 生産이 강조되고 成王의 제사가 거론되는 데 비해, 「周頌·良耜」편과 같은 중기 작품에는 農耕을 일종의 전통으로 인식하고 내용이 풍부해지며 后稷의 제사가 부각됨을 고찰하였다.

5. 韓高年(西北師範大學), 「春秋聘禮觀詩與詩評詩論的產生」: 『시경』의 社會 기능을 말한 興觀群怨 가운데 ‘觀『詩』’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고 보고, 이를 춘추시대 史料를 통해 고구하고자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魯襄公 29년에 吳公 季札(당시 孔子 8歲)의 觀『詩』 사례부터 그 실제 상황 및 배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孔子 『詩』論 성립 이전의 詩論을 고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의 관련 저술로 『禮俗儀式與先秦詩歌演變』(2006)이 있다.

6. 邵炳軍(上海大學), 「春秋時期政治生態變遷與怨刺詩類型演化」(2020년 『山西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에 既發表한 내용): 춘추시대 怨刺詩 107편(『詩經』88편+逸詩19편)을 추출하고 怨刺對象이 속한 사

회계층을 天子·國君·卿大夫·家臣의 4종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春秋時期 怨刺詩 類型的 변천과정이 당시 정치생태환경의 변천 과정(『論語·季氏』篇: 怨刺天子與“禮樂征伐自天子出”(23편); 怨刺國君與“禮樂征伐自諸侯出”(66편); 怨刺卿大夫與禮樂征伐“自大夫出”(14편); 怨刺家臣與“陪臣執國命”(3편)(「南蒯歎」, 「南蒯歌」(『左傳』); 「鳳鳥歌」(論語))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7. 常森(北京大學), 「新出土文獻與屈原辭: 早期『詩經』學與『離騷』之關聯爲中心」: 「巫咸降神告吉」부분을 『離騷』를 독해하는 중요한 은유적 열쇠라고 보고 戰國竹簡(郭店楚簡「窮達以時」[늦어도 B.C.300년 이전 문헌(李學勤說)]) 등의 儒家思想 및 詩學관련 문헌 내용이 연관됨을 고찰하였다.

8. 馬銀琴(清華大學), 「雅·夏關係與周代雅樂正統地位的確立」(2021년 『北方論叢』(哈爾濱師範大學)에 동일한 제목으로 게재): 風雅頌에서 夏가 아닌 雅가 사용된 배경을, 당시 用字 습관이 夏자 사용에서 雅자 사용으로 변화한 과정에서 찾고자 하였다. 先秦出土文獻에서 雅자는 예외 없이 모두 夏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戰國 中期 이전 문헌에서의 雅자는(『詩經』·『論語』·『左傳』·『孝經』·『墨子』·『周禮』·『禮記』) 주로 詩樂과 관련됨을 지적하였다. 한편 『左傳』의 ‘九夏’는 大小雅와 마찬가지로 왕실조희, 연향 등의 의례 활동에 쓰인 음악으로 雅樂에 속하며 공연방식[九夏—金奏; 大小雅—工歌]이나 그에 대응하는 典禮儀式의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전국시대 중기 이후부터 漢代 초기에 雅자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의미도 복잡해지면서 字義 변천의 脈絡상에 斷層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9. 張祝平(南通大學), 「八股文宗師姑蘇王鏊科舉經義學術淵源」(2022년 『社會科學論壇』에 「八股文宗師王鏊科舉經義學術淵源」을 제목으로

계재): 經學과 科擧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온 연구자로서 八股文宗師 王鏊의 科擧經義時文의 學術淵源을 고찰하였다. 연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中國科擧錄彙編』 중 『成化二十三年會試錄』에 1등으로 등재된 王鏊의 문장은 실제 丘濬이 쓴 것임을 고증하였고 현재까지 정리·소개된 팔고문에 대한 정보 오류가 많으며 경학과 科擧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공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0. 王承略(山東大學), 「關於『詩序』研究的新思考」: 「모시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史의 형성 맥락에 주목하였다. 20년 동안 「모시서」를 연구한 기반 위에 「詩序」를 三部序로 나누고 이 가운데 중심(主體) 부분은 『毛傳』 이전 전국시대 중후기 孟子學派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子夏作『序』說’, ‘衛宏作『序』說’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衛宏이 편찬한 것은 「毛詩序」가 아닌 별도의 저술인 『毛詩序義』임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美刺說이 『시』 해석에 적용되는 시점을 고찰하였는데, 『맹자』나 『孔子詩論』에 美刺적 접근이 있기는 하나 美刺說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것은 「毛詩序」一部序에 이르러서라고 파악하였다.

상기 주제 발표 외에, 제4섹션인 『詩經』文化研究·域外詩經學與詩經漢學研究에서 세 편의 한국 『시경』 연구 관련 발표가 있다. 세 편의 발표자는 모두 한국 시경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다.

1. 張安琪(太原學院), 「朝鮮王朝『詩經』的校勘及其文化意義」: 조선시대 시경학을 중국 시경학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여 조선시대 초기의 義理·倫理學 각도에서 중후기의 考證學의 각도로 전환한다고 파악하고, 成海應·申綽 등의 판본 교감 상황 및 특징을 종합·정리하고자 하였다.

2. 張景昆(山西大學), 「朝鮮時代申綽『詩次故』成書考: 兼論朝鮮對明清考據學的接受」(2021년 『國際漢學研究通訊』 第22期(北京大學國際漢學家研修基地 編)에 동일한 제목으로 게재): 조선시대 『시경』 고증학 문헌인 신작의 『시차고』에 대해 『石泉遺集』의 『日乘』과 書信을 중심으로 『시차고』의 成書 과정을 고찰하고 신작이 참고한 문헌의 내원을 파악하였다. 신작이 공개적으로 인용했다고 표명한 唐代 이전의 문헌뿐 아니라, 각종 叢書에서 재인용한 상황 및 신작이 직접 표명하지 않은 宋代 이후의 저작을 인용한 상황[呂祖謙·王應麟의 시경학 저술 및 洪邁·顧炎武의 문자학 저술 등] 등을 밀도 있게 고찰하였다.

3. 金秀奭(公州大學), 「程子『詩』說對韓國朝鮮時期的影響: 以考察程子『詩』說與朱子『詩』說之間的韻頡爲中心」(2021년 『태동고전연구』 46집에 발표한 한국어 논문을 중국어로 번역 발표): 주자『시』설과 정자『시』설이 성리학적 접근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님과 동시에 세부 『시경』 해석과 논의상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임을 지적하였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시경』 논의에 노정된 다양한 층차를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경학 풍토가 강한 조선시대 경학연구에서 다양한 『시경』설이 발생하는 맥락을 살피는 데 하나의 접근 각도를 제공하였다.

나가며

이상에서 중국시경학학회의 학회의 주요 활동 성과 및 제14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제 발표 내용 및 한국 시경학 관련 연구 내용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본 학회의 활동이나 최근 국제학술대회의 개략을 살펴보면

서 다음 몇 가지 특징에 유의할 수 있었다.

첫째, 학회를 주축으로 한 연구 성과의 集積. 중국시경학회는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주요 문헌을 학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종합하려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해당 연구 영역에 권위 있는 학회가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집적해 줄 경우, 연구의 효율성 및 학술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연구 성과 집적의 다변화. 중국시경학회에서의 『시경』 연구 성과 集積 작업은 목록서 편찬에 그치지 않는다. 『시경』 관련 주요 문헌 자료를 직접 수집해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해제 작업을 하며 『시경』 관련 辭典을 편찬하거나 확장, 심화된 연구서를 편찬하는 작업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학회의 연구 성과 집적이 다변화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또한 연구자들이 신뢰하고 참고할 수 있는 학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셋째, 대규모 프로젝트의 장기적이고 지속발전적인 진행 가능성. 학회를 주축으로 하는 까닭에 학회가 지속되는 한, 특정 주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시경학대사전』의 경우 2004년에 프로젝트를 결정하여 2014년에 완성하였고 『시경요적집성』의 경우 2002년에 初編이 완성되고 편찬 과정에서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느껴 2015년에 二編을 완성하는 사례 등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넷째, 학술대회 발표자의 다양화. 초창기에는 『시경』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면 근래 들어서는 『시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석박사 연구생이나 다른 문헌이나 다른 분야를 연구하면서 『시경』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들의 발표 수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청년 『시경』 연구자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시경』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접근을 다양화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다만 중국시경학회 국제학술대회는 중국어로만 진행되며 별도의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이는 ‘국제학술대회’를 표방하면서도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면에 해당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해외 학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이러한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중국시경학회가 해외 연구자들까지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준다면 『시경』 연구 활동과 연구자 양성의 외연을 해외로까지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국시경학회 홈페이지는 정보가 잘 갱신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주로 기존 회원에게 발송되는 메일을 통해 학회 동정을 파악할 수 있는 까닭에 비회원인 연구자가 최신 학회 동향을 파악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짧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 100여 편 이상의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시경학회의 활동성과는 『시경』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일정 정도 유용하게 참고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H. G. 크릴 저, 이성규 역, 『공자, 인간과 신화』

함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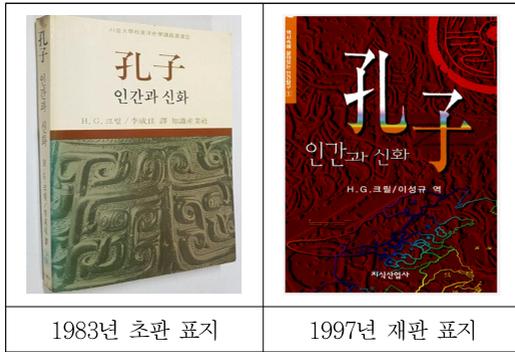
1.

1995년 11월 23일이었다. 우연히 학교 구내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해 구입한 날이다. ‘모자이크판을 맞추어 나가듯 孔子를 알아간다’라는 맨 앞쪽의 자필 메모가 보인다. 이 책을 정독하며 매우 크게 감탄했다. 공자를 파악하는데 『논어』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큰 학적 충격을 받았다. 신선했다.

2009년 성호학파의 맹자학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으로 그 해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주는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그 인연으로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여러 학술대회와 연구기획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활동할 당시 다산학술문화재단에는 정해창 이사장님께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한번은 경학을 한다는 이유로 당신께서 재미있게 읽었다는 책을 하나 보내주셨다. 이 책, 『공자, 인간과 신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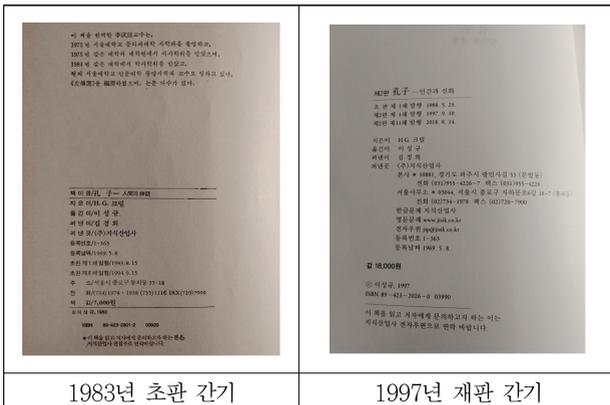
2020년 9월 경상국립대 한문학과로 부임하고 나서 이듬해 가을부터 『논어』를 강의했다. 이 책은 1번 참고문헌이었다. 다시 이 책을 보게 되었다.

* 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부교수 / E-mail: alongdiri@hanmail.net



2.

내가 처음 구입한 책은 1983년 8월 15일에 초판을 인쇄한 이래의 8쇄로 1994년 9월 15일 출간한 책이다. 이 당시 역자이신 이성규 선생은 본인이 수학한 서울대 동양사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정해창 이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책은 제2판의 11쇄로 2018년 8월 14일에 출간한 책이었다. 2018년 당시 이성규 선생은 학술원회원이었고 『중국 고대제국 성립사 연구』, 『사기-중국 고대사회의 형성』 등 당시 학계에서는 이



미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다수의 저작이 있었다. 그런데 2018년의 재판 11쇄의 간기에는 초판 1쇄의 발행을 1988년 5월 25일로 '誤記'해 놓았다.

이 초판의 발행이 1983년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성규 선생님께서 1984년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사학위를 받는 일정을 조정하면서 이 책의 번역에 매진하셨을 선생의 노고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자의 말 말미는 “이 책의 번역을 적극 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격려해주신 閔斗基 교수, 번역상의 난점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金容德 교수 두 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상업성이 약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준 지식산업사에도 감사를 드린다”로 마무리되고 있다. 아마도 민두기 교수는 역자 본인의 지도교수였을 것이며, 김용덕 교수 역시 그 논문의 심사위원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사논문을 준비하면서 이 책의 번역에 온통 신경을 쏟았을 이성규 선생과 그 과정을 훤히 바라보면서도 이 작업을 응원하신 두 교수님, 결과적으로는 상업적인 성공까지 획득했지만 출간 당시에는 아직 박사학위도 받지 않은 젊은 동양사학 연구자의 책을 출간해 주는 상당한 모험을 감행한 지식산업사 덕분에 우리는 이 귀한 책을 얻게 되었다.

3.

그럼 역자는 무엇이 이끌려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것일까? 심지어 자신도 크릴 교수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책이 지닌 가치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譯者의 말, 그 일부를 옮겨본다.

이 책은 적어도 앞에서 지적한 공자연구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한 방향을 제시한 것은 분명하며, 가장 순수한 학자적 양심과 정열에서 출발하여 수준 높은 성과를 올린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이 제시한 인간미 넘치는 정신적인 거인 孔子, 생동하는 제자들의 개성, 유가적인 원리와 다른 학파의 명쾌한 대비, 初期 儒敎史의 상세한 고찰, 서구 근대 사상에 미친 공자사상의 영향 등은 다른 어떤 孔子傳記類에서도 볼 수 없는 감명과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극히 전문적인 연구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술형식을 취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수많은 공자 전기 중에서 역자가 이 책을 자신있게 추천하는 것이며(비록 30여 년 전에 나온 것이지만), 아울러 이 책을 읽고 난 후 『논어』의 재독을 권하고 싶다.

이성규 선생이 이 책에 얼마나 깊이 매료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역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의 저자 H. G 크릴은 1905년 시카고 출생으로,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하버드 대학에서의 2년간의 연구와 4년간(1932~1936)의 북경 유학을 거쳐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줄곧 재직하면서 중국고대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학자이다.

그의 학풍은 정치한 문헌비판은 물론 金文·甲骨文에 대한 소양을 토대로 동서양의 연구성과를 광범위하게 섭렵하면서 중국 고대의 사상 및 제도의 기원을 견실하게 추구하는 것이 특색이며, 특히 중국문화가 서양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문제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공자사상이 17,8세기 유럽 민주주의의 발전 및 문관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은 공자의 진면목을 찾으려는 최초의 시도도 아니고, 최후의 시도가 될 것도 아니며,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일보 전진한 것만 된다면 만족할 따름”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책은 이후 공자와 논어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이 그의 아내인 로레인 크릴의 박사논문에서 계기가 되어 부부간의 토론을 통해 그 기초를 잡은 것이나 1945~46년 2년동안 록펠러재단의 연구비를 받아 온전히 이 연구에만 전념했던 것은 이 책의 탄생과 관련하여 흥미롭게 볼 대목이다. 그가 사의를 표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자들과 도서관 직원들의 인명은 그가 이 책을 집필하며 얼마나 많은 학문적 고투와 개고의 과정을 거쳤는가를 보여준다. 이 책은 1949년에 출간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논어』 憲問편 26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여 스스로를 “과실을 적게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못한 사람〔欲寡其過而未能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의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다.

4.

그런데 정작 저자는 무엇 때문에 이 책을 집필하려 했던 것일까? 그는 동아시아에서 공자의 이론을 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여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이념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시각에 공자는 인류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근대 서구의 사회 및 정치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공자의 철학이 그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에서의 그러한 오해는 그에게 매우 의아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오해가 아무런 배경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문제의식이다. 그의 말을 들어 본다.

그러나 그의 명성에서 일단 눈을 돌려 그 배후에 있는 인물에 관한 傳承을 조사해 보면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단지 고대의 관행을 부활시키려고만 하였던 극히 비창조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자의 생애에 관한 기록에도 그

는 무기력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상을 구현하는 데 크게 실패한 사람으로 자주 묘사되어 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에 틀림없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전승대로라면 이 사람은 역사상 실증된 그런 결과를 가져올 만한 위인이 못되지 않은가? 실제의 공자가 정확하게 전승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도 그 해답이 될 수 있는데, 이 책은 그 가능성을 탐구해 보려는 것이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이 틀림없다는 느낌’으로 공자의 전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규명해 보겠다는 것이다. 무려 이천년도 더 이전의 고대 문헌에서 공자에 대한 기록과 그 전승의 오류를 짚겠다는 것이다. 금문, 갑골문에 대한 소양은 물론 정치한 문헌비판이 가능했던 그의 학문적 수준에서 나온 포부이자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고전문헌의 해독에도 급급한 처지로서는 놀랍고 부러울 따름이다. 이런 착목처가 바로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책의 가치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 책의 後記에 붙어있는 그의 공자에 대한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간 상호간의 도덕률,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 상호간의 성공적인 협동’에 있어서 공자의 제안은 여전히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의 실천적인 노력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그는 공자가 “협동적인 국가를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정열적으로 그 실현에 헌신하였으며 민주주의의 철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열심히 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자는 “극단적인 열정과 철저한 사려심을 조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논리정연한 민주주의의 입장을 손상할지도 모르는 과도한 요구는 결코 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또 “사람은 도를 확충시킬 수 있지만 도가 사람을 확충시킬 수는 없다”는 말이 오늘날 민주주의적인 생활방식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 공자는 근대 민주주의에서 이따금 연상되는 것보

다 더 큰 열정과 열의를 갖고 그것을 주장했다고 짚었다.

조금은 과도하게도 볼 수 있는 공자철학과 민주주의와의 연관성에 대한 탐구는 그가 고전을 연구하면서도 당대 현실에 대한 관심을 전혀 놓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는 말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최대의 싸움은 악에 대한 극적인 투쟁이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권태에 대한 투쟁이라는 것을 공자는 인식하였던 것 같다.”

참으로 형형한 안목이다.

한국경학학회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名稱)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 學會誌 論文 投稿에 관한 規程이라 한다.

제2조 (目的)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의 學會誌 『經學』에 게재할 論文의 投稿에 관한 절차를 定하고 관련 업무를 規定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著作權) 本 學會의 學會誌인 『經學』에 掲載된 論文 등의 著作權은 本 學會가 소유한다. 著作權에는 디지털로의 複製權 및 電送權을 포함한다. 다만, 掲載된 論文 등의 筆者가 本人의 論文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學會는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이를 承認한다.

제4조 (논문의 성격) 本 學會의 學會誌인 『經學』은 經學과 關聯이 있는 전공 학술 논문을 비롯하여 관련 글, 소식 등을 收錄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학술성을 지닌 역주도 할 수 있다.

- 1) 논문은 다른 學術誌(학위 논문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학술성을 지닌 역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3) 論文 掲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연구자의 논문은 연속 게재 하지 않는다. 단, 기획 논문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4) 투고 논문이 표절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5조 (발행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1회로 하되, 2월 28일에 발간

한다.

제6조 (투고 시한) 원고 투고 시한은 12월 말로 한다.

제7조 (투고 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본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호를 개방한다.

제8조 (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제한하지 않으나 200매를 超過할 경우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 (논문 提出處) 투고 원고는 학회 이메일(studyclassic@naver.com)로 제출한다.

제10조 (게재료) 研究費를 받아서 수행된 論文을 掲載할 경우, 편 당 30만 원의 掲載料를 投稿者가 부담한다.

제11조 (원고 작성 방식) 모든 원고는 본 학회가 정한 원고 작성 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한 원고도 수록할 수 있다.
- 2)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 3)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의 순서로 작성한다. 단 본격 논문이 아닌 서평 등의 글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 5)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 기관 및 직위 / E-mail」로 한다.

-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제1저자)).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제1저자와 연결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제1저자) · ○○○(연결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 · ○○○(연결저자)).
- 7)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이 A4 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 8)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영문저자표시의 경우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만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 기관 및 직위 / E-mail」 등으로 한다. 단 그 논문의 성격상 중문초록이 의미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문초록을 추가할 수 있다.
- 9) 脚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 ②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출판 연도(갈

은 해에 여러 편의 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다음의 예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2), 20면.

홍길동(2000) 참조.

홍길동(2001a), 217면.

홍길동(2001b), 66~67면 참조.

홍길동 외(2000).

홍길동(2001a), 217면.

홍길동(2001b), 66~67면 참조.

③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2); 조선인(1988); 한국인(2000) 참조.

홍길동(2000; 2001a; 2001b) 참조.

홍길동(2001b), 66~67면; 조선인(1988), 35~36면;

한국인(2000), 42~47면 참조.

④ 공동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제시한다.

예) 홍길동·조선인(2000).

⑤ 공동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조선인·한국인(2000).

홍길동 외(2000).

⑥ 原典 資料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저자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書名 및 卷數, 작품 제목(작품 제목을 표

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1』 卷17, 「爲李仁榮贈言」, 372면.

『正宗大王實錄』 卷32, 正祖 15년 2월 丁巳. 201~202면.

⑦ 서양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135.

Henderson, Gregory(1957), p.19.

James, Palais(1975), *ibid.*, p.107.

Henderson, Gregory(1957), *op. cit.*, pp.20~21.

10) 參考文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 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각 문헌은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배치하고, 연구 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 문헌의 순으로 배치하되, 그 배열 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③ 원전 자료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출판사, 발행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경인문화사, 1987.

『朝鮮王朝實錄』 46 『正宗大王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57.

④ 연구 논저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여러 명일 경우 모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논문 제목(단행본의 경우 생략), 서명, 출판사의 순으로 표기하되, 논문은 수록된

책 속의 처음과 끝 페이지를 명기하고 단행본은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는다.

예) 홍길동(1998), 『서명』, 한국출판사.

홍길동 편(1999), 『편서명』, 한국출판사.

홍길동(2000), 「논문 제목」, 『서명』, 한국출판사, 25~37면.

홍길동(2001a), 「논문 제목」, 『經學』 제1집, 한국경학학회, 215~245면.

홍길동(2001b), 「논문 제목」, 『經學』 제1집, 한국경학학회, 64~85면.

⑤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 연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⑥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한다.

예) 홍길동(2002), 「논문 제목」, 한국한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4월 5일~6일.

⑦ 서양 논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olitics and Polic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Henderson, Gregory(1957), “Chong Ta-san, A Study on Korea’s Intellectual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VI, No.3. pp.15~29.

11) 주요 부호(기호)는 다음으로 통일한다.

①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장편소설, 서사시, 전집류, 학회지 명 등 - 『 』

② 작품명, 논문(석사·박사 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

시), 중단편 소설,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

③ 강조, 간접 인용 - ‘ ’

④ 직접 인용(단, 인용문을 별도의 인용문단으로 처리할 경우에
는 기호 생략), 대화 - “ ”

12) 본문 및 각주에서 한문 원문을 인용할 경우, 기본적인 구두점(쉼
표·마침표·물음표·느낌표·따옴표)을 가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적 원칙에 따라 여타의 부호를 추가 표기할 수 있다.

1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名稱)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 編輯委員會 規程이라 한다.

제2조 (目的)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 회칙에 따른 編輯委員會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規定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제3조 (構成) 編輯委員會는 委員長과 약간 명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제4조 (編輯委員의 委囑) 편집위원회는 세부 전공 분야 및 연구 업적을 감안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 1) 학문적 연구 업적 및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공익적 활동
- 2) 세부 전공 분야의 포괄성(한중일의 문학, 역사, 철학 등 한국 경학의 제분야를 망라함)
- 3)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
- 4) 學者로서의 名望과 人格

제5조 (編輯委員長의 選任)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 중에서 會長이 선임하되,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編輯委員會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7조 (編輯委員의 任期) 편집위원의 任期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編輯委員會의 任務) 編輯委員會는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審議 執行한다.

- 1) 編輯委員會는 編輯委員會 規程과 學會誌 論文 投稿에 관한 規

程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제9조 (編輯委員會의 召集) 편집위원회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隨時로 召集한다.

제10조 (編輯委員會의 成立)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闕席한 경우에는 編輯委員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1조 (編輯委員會의 議決)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다만, 贊反 同數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審査委員)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審査委員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 친족 관계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으로 한다.

제13조 (匿名性和 秘密 維持) 審査用 原稿은 반드시 匿名으로 하며, 審査에 관한 諸般 事項은 編輯委員長 책임 하에 對外秘로 하여야 한다.

- 1) 匿名性和 秘密 維持의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심사위원에게 重大한 피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關席시킨 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 (審査 節次)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編輯委員會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등의 判定 所見을 編輯委員會에 제출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투고 논문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를 결정한다.
- 4) 심사 결과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 所見을 검토하여 修正 要求 事項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심사 결과 '게재 불가'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 所見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6) '게재 가' 및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投稿者는 論文審査書를 수령한 후 所定期日 內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7)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判定을 받은 논문 중에서 修正 要求 事項이 성실하게 이행되었거나 해명된 論文에 한하여 掲載를 최종 결정한다.

제15조 (審査의 基準)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2) 항목별 평가는 ①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 인식의 새로움, ②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③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④ 용어·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⑤ 자료 검증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기준마다 5가지의 차등 점수를 주어 평가하도록 한다.

- 3) 게재 여부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 4)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 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게재 여부 결정의 條件)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각 審査委員의 심사 결과 '게재 가'의 경우 3점, '수정 후 게재'의 경우 2점, '게재 불가'의 경우 0점을 부여한다.
- 2)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8-9점인 경우 최종 결과를 '게재 가'로 판정한다.
- 3)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6-7점인 경우 최종 결과를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 4)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3점 이하인 경우 최종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5)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編輯委員會에서 掲載 與否를 최종 결정한다.
- 6)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 이상 이어서 해당 호에 모두 수록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 부여받은 점수에 근거하여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17조 (異議 申請) 투고자는 審査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200자 원고지 3매 이상의

異議申請書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異議申請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編輯委員會에서 異議申請의 受諾 與否를 결정한다. 수락한 異議申請에 대한 조치 방법은 編輯委員會에서 결정한다.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경학』에 발표되는 논문과 그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대상) 『경학』에 투고한 연구자는 모두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4조 (적용 범위)

- 1) 이 규정은 『경학』 공모 논문 심사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이 규정은 『경학』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5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도출과 출판,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연구의 계획,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4)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5)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제6조 (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 - 연구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① 타 연구자의 발상,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

는 행위.

-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학위 논문 포함)의 내용을 출처나 인용의 표기를 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구성하는 행위.
 - ⑤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제보자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
 - 6) 피조사자 - 제보 또는 연구 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 단,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7) 예비 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 8) 본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 9) 판정 -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

제7조 (편집위원 윤리 규정)

-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전 심사 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심사위원 윤리 규정)

- 1)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에 대해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과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관 분야 전공자에게 회장이 위임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 피제보자와 갈등 관계에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4)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후 호선으로 선출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① 예비 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 통보
 - ②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보호
 - ③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편집위원회의 부의 사항

제10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1) 본 학술지 투고 논문 가운데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예시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는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 2) 예비 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알리

는 절차를 말한다.

제12조 (예비 조사의 절차)

-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예비 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 내용이 제4조 각 항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성,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 ③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3) 예비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예비 조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5) 예비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기초 정보
 - ② 연구 부정행위 혐의 조사의 대상이 된 논문 및 관련 조항
 -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 (본조사의 절차)

- 1) 본조사는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본조사 수행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가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고지해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 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보자의 성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개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신원이 가능한 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승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충분하고도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조사 결과 보고)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 내용
 - ②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⑥ 연구윤리위원 명단과 기초정보

제18조 (판정)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편집위원회로 이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 1)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3)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가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예비 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 총무진이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과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1) 연구자의 학회 제명 및 논문 투고 금지
- 2)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 논문 삭제
- 3)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23조 (연구윤리 규정 시행지침)

-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 투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한국경학학회 임원

고 문 : 김언중(고려대 명예교수),
이기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최석기(경상대)

회 장 : 이강재(서울대)

부 회 장 : 김승룡(부산대, 겸 편집위원장),
김용재(성신여대, 겸 학술위원장),
이영호(성균관대), 엄연석(한림대),
박순철(전북대), 정우락(경북대),
서대원(충북대)

총무이사 : 노경희(조선대), 신원철(안양대)

연구이사 : 양원석(고려대), 당윤희(건국대)

섭외이사 : 원용준(충북대), 전성건(안동대), 이승률(경북대)

출판이사 : 함영대(경상국립대), 김수경(공주대)

감 사 : 김성중(계명대), 황병기(대진대)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원)

- 1) 대학에서 경학과 관련된 강의를 담당하거나 번역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는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 2) 경학 연구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
- 3) 경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기관회원) 경학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 또는 공공도서관.

3. (특별회원) 그 밖에 경학에 관심이 높고 본 학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이나 단체.

- 입회 안내

본 학회 홈페이지의 입회 안내문을 따라 회원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개인회원: 연 5만 원, 종신회비 30만 원

기관회원: 연 5만 원

혜택: 학회지 증정, 학술대회 초청

계좌 번호: 농협 079-12-486845 이강재

* 학회 입회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studyclassic@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원고 모집 안내

한국경학학회에서 원고를 모집합니다.

본 학회 학회지 『경학』에 게재할 원고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성격/분량

- 학술 논문-고전의 정리 및 경학과 관련한 연구 성과물(번역서에 대한 학술적 비평도 포함)/ 원고지 130매 이내
- 연구사 정리-기존 경학 연구 논저에 대한 연구사 정리
/ 원고지 100매 이내
- 서평 : 경학 연구서 REVIEW-경학 연구 비평 또는 학술 회의 관전 소개
/ 원고지 50매 이내
- 원로 회고 -경학 연구에 참여한 노학자의 경학과 관련한 자유로운 주제
/ 원고지 제한 없음

2. 원고 제출: 학회 E-mail (studyclassic@naver.com)

3. 원고 마감: 매년 12월 31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김승룡(부산대 한문학)

편집위원	김용재(성신여대 동양철학)	박순철(전북대 중문학)
	양원석(고려대 한문학)	당윤희(건국대 중문학)
	신원철(안양대 중문학)	노경희(조선대 한문학)
	전병철(경상대 한문학)	전성건(안동대 동양철학)
	서대원(충북대 동양철학)	원용준(충북대 동양철학)
	김수경(공주대 한문학)	함영대(경상대 한문학)
	노명동(홍콩침례대 경학)	김배의(대만사대 중문학)
	강지은(대만대 한문학)	정선모(남경대 한문학)

經 學 3

2022년 6월 30일 인쇄

2022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도서출판 한모임

편 집 한국경학학회

회장 이강재

E-mail: studyclassic@naver.com

제 작 도서출판 한모임

ISSN 2713-9638

값 17,000원

